

제22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 입선작

대 학생 통일 논문 집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 간 사

한반도 분단이 50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통일실현 가능성에 회의론을 가지고 있으며, 또 통일 이후에 발생할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갈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균형있는 대북관, 건전한 통일관, 튼튼한 안보관을 심어주고 통일이 가져올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민족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까지 감상적인 통일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가 하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 또한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통일관이란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통일이 우리민족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과 대 학사회내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응모된 논문들은,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반영하여 시사성 있고 실용적인 소재를 다룬 것들이 많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도시계획, 관광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이 각기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아가 통일의지를 북돋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논문 공모의 입선작 6편을 이 책에 모았습니다.

이 논문집이 대학 사회에서 건전한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2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박성훈 *박성훈*

목 차

◇ 최우수

- ▷ 탈북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탈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3
김정기 · 임성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 우수

- ▷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진출 중소기업 사례 분석 37
김성철 · 김지철 (성결대학교 도시계획학과 3학년)
- ▷ 통일의 배경으로서의 국제협력 레짐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 관심집단 통일교육 방안 89
이 원 경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4학년)

◇ 장려

- ▷ 남북한 관광교류가 대학생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133
김수현 · 장미화 (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 2학년)
- ▷ 금강산 관광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185
최 용 혁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4학년)
- ▷ UN체제를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
-국제기구와 UN사무총장 역할 중심으로 221
박 지 선 (선문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 최 우 수 >

탈북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탈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전 주 대 학 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정기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임성철

《 목 차 》

【요 약 문】

【본 문】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프로그램 제시

V. 논문의 한계

V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문】

탈북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탈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입국 규모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 내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회적응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한에 거주하는 외로움, 죄의식, 스트레스, 좌절감 그리고 남한 사람들의 무시와 곱지 않은 시선에서 나타나는 소외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이다. 둘째,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임시 직종에 종사하는 세대의 저소득 그리고 국가 지원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입국초기에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후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몇몇 복지관들도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을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각 지역사회 복지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은 양적·질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문제의 한계는 첫째, 지방소재 지역복지관의 참여 미흡, 둘째,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부족, 셋째,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부족, 넷째,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미흡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 및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대학생 자원봉사자(멘터)와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일대일 정서적 결연 프로그램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참고로 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

년의 일반적인 욕구를 조사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그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즉,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멘터와 북한 이탈 청소년 멘티가 1:1 정서적 결연을 맺어 친형, 친누나처럼 지내면서 남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남한 사람(일차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주입식, 프로그램의 제공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북한 이탈 청소년과 남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멘토)와 북한 이탈 청소년(멘티)의 개별 학습지도와 개별 상담이 주 활동이 되며, 부수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여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5회 이상의 집단 활동들을 통하여 서로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사회적응, 대인관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들과 단위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는 양적 평가방법과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모든 구성원들의 프로그램 참여소감을 적어내는 질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문】

I. 서 론

1. 문제제기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간 50명을 상회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전년도와 약 2배인 1,141명이 입국하였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입국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2년 12월까지 총 3,131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2,886명이 1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입국 현황>

(2002.12.31 현재)

연도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계
인원(명)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41	3,131

* 총 입국 3,131명 : 국내거주 2,886명, 사망·이민 등 245명 1)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 경 대부분 식량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1997~8년 경 국경 탈출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 발생한 탈북자들의 탈북 원인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 부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충족, 자유체제의 생활 동경 등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탈북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표현임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과 돈을 벌이 새 삶을 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탈북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계층만이 아니라

1) 통일부, 「2003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p.252

북한의 전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

그러나 정작 국경을 탈출하여 남한 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 첫번째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이다.³⁾ 탈북자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단독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 외로움, 죄의식,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평소 생활하던 문화권과는 전혀 생소한 문화권에서의 생활은 근본적인 불안을 야기하기 마련인데, 탈북자들은 이전 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가정, 이웃, 친구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망 또는 사회관계망과 완전 분리된 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외롭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생명의 위협, 함께 오지 못한 친지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남은 가족이 당할지 모를 불이익 등에 대한 생각들로 죄의식을 동반한 심리적 외상(trauma)을 경험하고 있다.⁴⁾ 그리고 어려움 감정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 이것은 고독감을 증가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중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남한 사람들의 거부적 태도와 무시, 경멸적 언행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적절한 도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될 때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내적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고 일부는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것은 다시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부르고 그러한 무시와 경멸의 분위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⁵⁾

2) 윤여상,(2002) “탈북난민정책과 활동방향 - 탈북자를 위한 수용시설과 적응프로그램 개발(대량 탈북자 증가 대비, 저비용·교효율 지원정책 절실)”, <<월간북한(통권제370호)>> 북한연구소

3) 이기영(1999),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4) 이기영(1999), 앞의 책

5) 이영선 전우택 (1996), <<탈북자의 삶-문제와 삶>>, 오름

두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버는 능력의 부족, 직장을 가져도 그 안에 들어가 경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의 어려움,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지 못하여 생기는 어려움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다.⁶⁾

이처럼 매년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남한 사회적응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이들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초기 사회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원”의 약 2개월 가량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마친 후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북한의 이질화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매김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거주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발생되고 있지만 정착 이들을 위한 후속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사회적응이란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의 재반 사회 환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적으로 영위하며, 심리적으로 남한 사회의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⁷⁾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⁸⁾

6)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7) 이기영(200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태화사회복지관>>, 2002탈북가족 지원 사업 세미나

8) 황부자(2002),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업소개, 『2002 탈북가족지원사업 세미나 자료집』”,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또한 “하나원”의 프로그램 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시행하는 북한 이탈 주민 프로그램은 대개 편입 직후 지역사회(사회)생활 안내 및 교육(체험 교육 포함), 지역사회(사회)탐방, 상담 활동(개별상담과 집단상담), 청소년 학습 지도, 취업 및 직업훈련 정보의 제공, 지역내 관조직(거주지, 신변, 취업보호담당관)과 정례적 간담회 개최, 일회성 위안 행사 및 물품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이러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편입 직후 초기 적응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초점을 맞추어 남한 주민과의 교류, 여가 선용, 명절시 위안 행사 등의 심리·정서적인 면과 지역사회 탐방 및 지역 내 관조직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일차적 이해 및 생활 안내를 돕는 사회·문화적인 면을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지방소재 지역복지관의 참여가 미흡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면 지방에서 실시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이러한 지방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부족으로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 소재 지역복지관의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¹⁰⁾

둘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기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대상이 주로 장년기에 있는 성인들을 위주로 하여 취업알선이나, 경제생활에 필요한 직업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가족을 동반한 집단 탈북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¹¹⁾ 북한 이탈 청소년

9) 이기영(2002), 앞의 책

10) 위의 책

11) 통일부(2003), 앞의 책

년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의 장기간 교육기회 상실로 입국 후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지만 또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편입된다. 그래서 또래친구 사귀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남한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중도에 학교생활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학교생활 중단 후 검정고시, 직업학교 등을 통해 학업활동을 재시도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부적응 상태가 계속되어 가출, 폭력행위 등의 비행행위를 일으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

셋째,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가족을 동반한 집단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탈북자들간 세대 갈등과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 가족간에 겪는 새로운 문제점에는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간의 적응의 차이에서 생긴 세대간의 갈등과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충돌하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전자는 젊은 세대들이 학교생활 등을 통해 북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익숙한 기성세대들보다 비교적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됨에 따라, 어른들은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북한 여성들이 초기 남한 생활에 적응할 때 남성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남편의 역할과 위상이 낮아지고, 남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북한 사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가부장적인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느끼는 좌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갈등을 말한다. 위와 같이 가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가족의 문제에 대응하는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통일한국, 2001. 4).

넷째,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사업의 단기적 목표는 사회적응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북한 이탈 주민만 변화하는 것이

12) 황부자(2002), 앞의 책

아니라 남한 주민들도 함께 변화되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그릇된 편견들을 감소되게 해야한다.¹³⁾

지금까지 “하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언급된 바와 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들은 기존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정부나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아 성인(멘터) 1명과 청소년(멘티) 1명이 1:1로 한쌍을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한 개인(멘티)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멘티)의 욕구나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다. 즉 멘토링은 학업, 직업, 사회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상담하고 돕는 것을 말한다.¹⁴⁾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결손가정 청소년,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멘티(위에서 말한 청소년들)들의 자아존중감 향상¹⁵⁾, 가족 기능 강화¹⁶⁾, 학교생활적응¹⁷⁾, 비행행동의 감소¹⁸⁾, 사회적 지지도 향상¹⁹⁾ 등의

13) 이기영(2002), 앞의 책

14)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제 3섹터 연구소 (2000), <<1020 멘터 프로그램 교육자료집>>.

15)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우(2002, 8),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참조

16)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의 가족관계가 향상되어 가족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우(2002, 8), 위 책 참조

17)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고 위험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태도와 학교에 대한 흥미 등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유성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멘티들을 지원하는 멘터(자원봉사자)들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북한 이탈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의 일대일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북한 이탈 청소년 집단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자아형성을 돕고, 건전한 역할모델을 제시하며,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남한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또래 청소년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원활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도 남한사회 내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다. 즉, 북한 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존의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지방소재 사회복지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시하는데 연구

경·이소래(1999),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원, 외(2000), “비행에서 탈비행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참조

- 18) 멘토링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대표적인 다섯가지의 비행군(일반 지위비행, 약물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성민(2001),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참조
- 19)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지지도가 향상됨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성민(2001),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참조
- 20)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멘터)에게 신체자아, 대처자아, 도덕자아 등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선(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참조

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북한 이탈 청소년과 사회적응

북한 이탈 청소년은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²¹⁾ 탈북자 일반의 사회적응의 개념을 구체화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더 세부적인 인구학적 집단으로서의 북한 이탈 청소년에 특화된 사회적응의 개념정의가 희박하다는 것을 말한다.²²⁾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인 탈북자의 경우, 남한 사회적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 경제적 부분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이 될 수 있다면,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는 학업부문에서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적응,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경제적 적응의 차원이 매우 중요한 제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적소의 구실을 한다면,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는 바로 학업성취를 위주로 하는 학교를 위시한 학업의 장에서 남한의 학교라는 사회화기관에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적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적응하고 남한의 청소년들과 무리없이 섞이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자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관련되는 중요한 차원은 이들이 소속된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의 지속이다. 말하자면 독신으로 온 청소년 탈북자를 제외하고 많은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 가족의 일원으로

21) 엄경란(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22)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23) 위의 책

서 남한사회에 적응할 터인데, 이러한 경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가족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와 특성

1)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멘터(Mentor)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딧세이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BC1200년 경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딧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멘터(Mentor)였다. 멘터는 오딧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여년 동안, 왕자의 친구, 교사,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멘터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젊은 남성에게 아버지의 친구나 친척 중에서 경험 많은 늙은 남성을 짝지어 주어 멘터의 경험과 가치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²⁴⁾ 이후 멘터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멘터라는 개념에 기반해서 두 사람간의 긍정적 관계경험을 근거로 하는 프로그램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멘토링(Mentoring)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쌍방의 긍정적 경험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정부나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인(멘터) 1명과 청소년(멘티) 1명이 1:1로 한쌍을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한 개인(멘티)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멘티)의 욕구나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멘토링은 학업, 직업, 사회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상담하고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멘터는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24) 정학재(1998), "멘토관계의 효과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멘티가 청소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2) 멘터 프로그램의 배경

1904년 코울터(Ernest K. Coulter)는 사회화, 지도, 긍정적인 성인역할 모델의 제공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손을 펼치는 Big Brother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Big Brother/Big Sister (BB/BS)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큰멘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BB/BS 프로그램은 멘터에 대한 교육 훈련과 이들 멘터를 도움이 필요한 Little Brothers/ Little Sisters와 조심스럽게 연결해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 및 폭력조직 가입에 대한 감소를 위해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Delinquency Prevention)에서 실시한 JUMP(The Justice Mentoring Program)는 청소년 선도제도로 평가되고 있다.²⁶⁾

3)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은 멘터(Mentor), 멘티(Mentee), 결연 관리자이다. 멘터는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을 이른다. 즉, 멘터는 지혜롭고 믿을 만한 조언자(Advisor), 후원인(Sponsor), 후견인(Tutor), 옹호자(Adocate), 인도자(Guide) 역할을 함으로써 요보호 청소년에게 정서적·사회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멘티는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위로, 지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멘토링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이른다. 결연 관리자는 전문가 집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와 도움을 제공할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역할과 결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

25)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제3섹터 연구소 (2000), 앞의 책

26) 김훈기(1999),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학생 멘티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른다.²⁷⁾

4)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성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터인 자원봉사자와 대상자인 청소년을 연결해주면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는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갖는 형식의 유연성과 내용의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초기 청소년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있어 상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상자는 멘터와 일대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직접적이다.

3.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사례²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부보호관찰소와 협력을 맺어 2000년 7월부터 보호관찰 2·3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2001년 1월 20일부터 2001년 4월 28일 3개월 동안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5명,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10명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자아통제력, 자기유능감), 사회적지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비행행동의 감소, 사회적 지지도 향상, 자기유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 박현선(2000), <<실직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북대 사회복지지원센터 실업연구총서.

28) 하성민(2001), 앞의 책

Ⅲ. 연구방법

북한 이탈 청소년의 욕구 조사는 2차 자료를 통하여 욕구를 조사하였고, 기존의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그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Ⅳ. 프로그램 제시

1. 프로그램명 - 북한 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2. 문제 및 욕구분석

북한 이탈 청소년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적응 이렇게 2가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심리적 적응 부분에서의 문제는 외로움, 불안과 걱정, 소외감, 자신감 및 자부심의 약화, 자아존중감의 결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정서적인 충족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학습능력, 친구·교사와의 관계 등), 일반적 대인관계 능력의 저하, 가족과의 문제(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 내 가족과의 상호작용 등), 언어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있고,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원만한 적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29) 장창호(2000),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서비스 대상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총 50명이다.³⁰⁾ 하지만 탈북자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서비스 대상 청소년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눈덩이(Snow Ball) 표집(눈덩이 표본 추출방법은 눈덩이 추출법이라고 하며 접근이 어렵거나 추출 틀의 작성이 곤란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먼저 해당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소개과정을 통해서 표본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게 된다.)³¹⁾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4.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1) 목적

본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정서적 결연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쉽게 적응을 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올바른 탈북자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과 자원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0) 통일부(2003), 앞의 책

31) 사회조사방법론(1998), A. 루빈 ; E. 바비 저 ; 성숙진 ; 유태균 ; 이선우 공역 참조

(2)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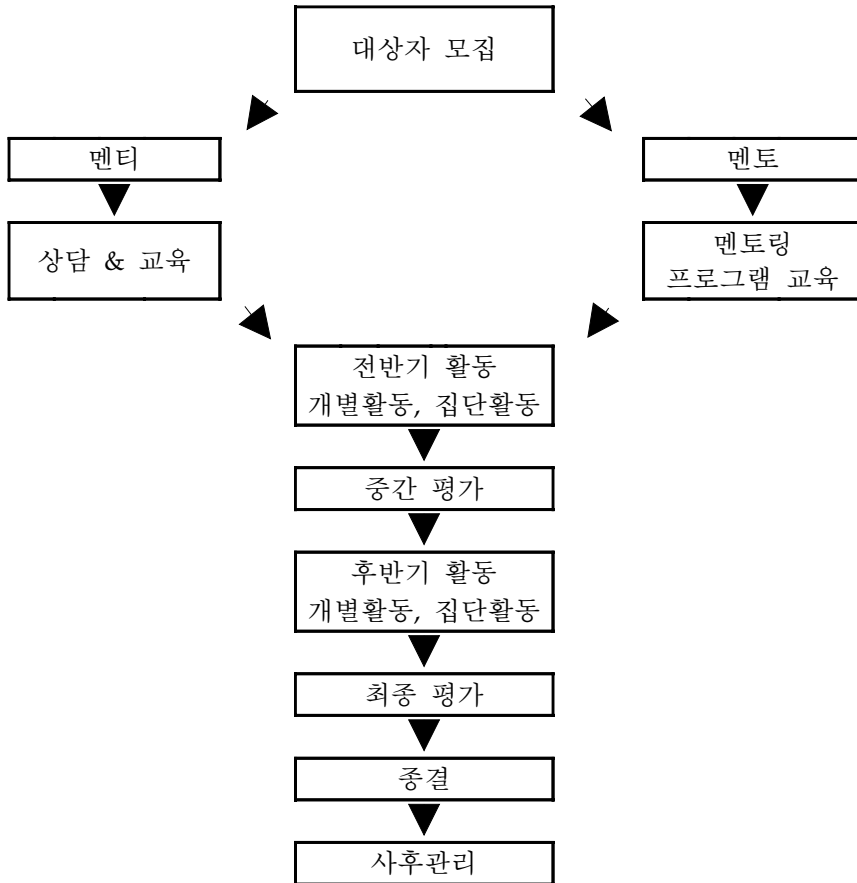
목 표	하 위 목 표	평가방법
1. 북한 이탈 청소년과 자원봉사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북한 이탈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탈북자, 청소년의 특성과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중간평가 ①② 교육 만족도 조사
2. 북한 이탈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신과 서로를 이해한다.	①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남한사회와 남한사회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북한사회와 탈북자를 이해할 수 있다. ③ 북한 이탈 청소년과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적성을 알 수 있다.	①② 프로그램 평가만족도 조사
3. 북한 이탈 청소년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	① 북한 이탈 청소년의 70%를 사회적응,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를 향상 시킨다.	①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척도 - 사전·사후 검사 결과

5. 프로그램 기대효과

북한 이탈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 정서적 도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줌으로써 정서적 불안으로 비행과 문제행동, 범죄 등과 같은 이탈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 이탈 청소년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셋째, 북한 이탈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이 바람직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넷째,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북한 이탈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은 남·북한사회와 서로의 체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에 탈북자를 유치, 정착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내용

(1) 사업 진행과정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정은 위 그림과 같이, 먼저 멘티(북한 이탈 청소년)와 멘토(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교육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한다. 즉 멘토를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과 탈북자, 청소년 교육, 전문 자원봉사자 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멘티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멘토링 교육을 시행한다. 그 후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멘티와 멘토를 결연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크게 개별활동과 집단활동으로 전·후반기 모두 실시된다. 개별활동은 멘토와 멘티의 정서적 유대관계 위주의 개별적인 만남으로 이뤄지고, 집단활동은 북한 이탈 청소년의 교육,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평가는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로 2회 실시되며,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검사를 통한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지지 정도의 측정, 프로그램 목적 달성도, 참여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내용, 프로그램의 좋은점과 나쁜점, 건의사항 등이 있다.

또한 본래 멘토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종결한 후에도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지속 유지된다. 따라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종결 이후에도 이러한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인 관계 이외에 지역사회복지관이 북한 이탈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① 전체일정

사업명	일 정	목 표	진행담당	사 업 진 행 내 용	비 고
모 집	1월 ~ 2월		리더 중간 관리자	-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 (멘토와 멘티들을 충분히 검토 후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	멘티 모집 에 비례해 서 멘토를 모집한다.
멘 토 교 육	2. 27	목표 1 ②	리더 중간 관리자	- 적성검사 실시 - 멘토링 프로그램 이해, 북한 이탈 청소년 특성 교육 및 기초 상담교육 을 실시한다.	사전 검사 실시

사업명	일 정	목 표	진행담당	사 업 진 행 내 용	비 고
멘티교육	2. 27	목표 1 ①	리더 중간 관리자	-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적성검사 실시 -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전검사, 적성검사 실시
전반기 활동	3월 ~ 7월	목표 2 ①, ② 목표 3 ①	리더 중간 관리자, 멘토	개별활동 - 1주일에 1회 방문 개별 상담 집단활동 - 등산, 퀴즈 대회, 체육대회, 적성검사 분석	
중간평가	7. 17		총책임자, 리더, 중간 관리자, 멘토,멘티	- 전반기 활동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한다.	만족도 평가 실시
후반기 활동	8월 ~ 11. 19	목표 2 ①,②,③ 목표 3 ①	리더, 중간 관리자, 멘토	개별활동 - 1주일에 1회 방문 개별 상담 집단활동 - 관공서 이용, 소시오 드라마 관람, 캠프	
최종평가	11. 21		총책임자, 리더, 중간 관리자, 멘토,멘티	- 사회적응,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후반기 활동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한다.	사후검사, 만족도 평가 실시

(2) 세부사업내용

① 개별 활동

개별활동은 멘토(자원봉사자)와 멘티(북한 이탈 청소년)가 정서적 유대관계 속에서 주변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할 수 있게 하며, 멘티의 특이사항을 참조하고, 멘티가 원하는 것들 위주로 개별적인 만

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별활동은 멘토가 중간관리자에게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중간관리자는 이러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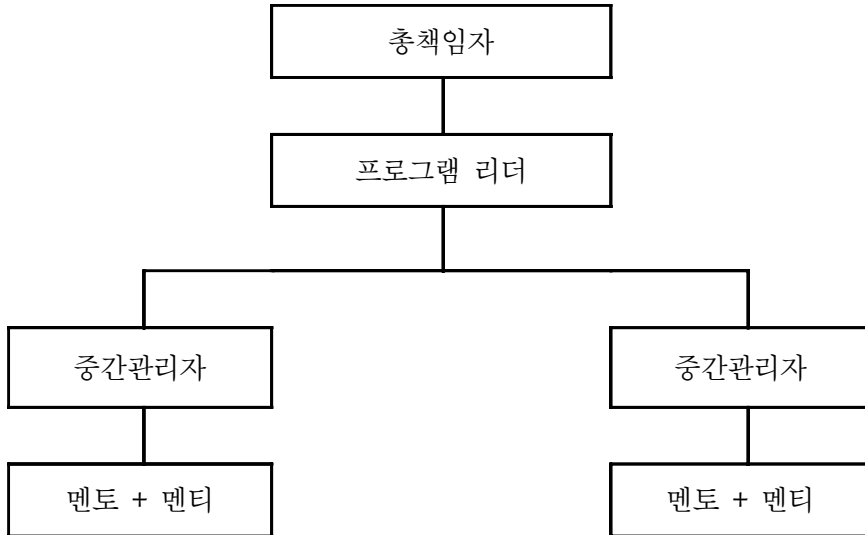
일 정	목 표	진행 담당	사 업 진 행 내 용	비 고
3월 ~ 11월	목표2 ①②	멘토	- 주 1회 멘토가 멘티(북한 이탈 청소년)와의 기초상담을 실시한다.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상담가를 연계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개별상담을 통한 북한 이탈가족 성원간의 상호 이해를 돕고, 개인별 특이사항을 참조하여, 멘티의 의견을 상담에 적극 반영한다.
	목표3 ①		-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대상자 사례관리 (Case Management)를 한다. 중간관리자에게 방문 후 이메일(E-mail)로 제출	

② 집단활동

집단활동은 본래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지만 북한 이탈 청소년의 여러 가지 교육,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좀더 비중을 두었다. 집단활동에서 중요한 내용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남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남한사회에 긍정적인 부분만 인식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본 프로그램에서 집단활동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날 짜	집단활동명	목 표	진 행 방 법	비 고
3. 1	등산	목표3-①	멘토와 멘티가 등반을 하면서 친밀감 및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3. 27	남·북한 퀴즈대회	목표2-①② 목표3-①	북한 이탈 청소년과 남한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각각의 문제를 내고 맞추는 퀴즈대회를 통해 남·북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5. 5	체육대회	목표3-①	남·북한 각각의 서로 다른 운동경기를 함께 함으로써 체육활동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남·북한의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7. 17	적성검사 해석	목표2-③	북한 이탈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자신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중간평가
9. 3	관공서 이용하기	목표2-①	생활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은행, 우체국,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개인 통장 만들기,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기, 편지 보내기 등)	
11. 6	소시오 드라마 관람	목표2-①②	북한 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을 주제로 한 소시오 드라마를 관람한다. (남한사회 부정적 측면을 강조)	지역대학교 소시오 드라마 동아리와 협의
11. 20 ~ 21	성·예절 캠프	목표2-①② 목표3-①	주제가 있는 캠프 실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식 & 최종평가 실시	최종평가

(3) 사업 조직도



(4) 사업진행일정

기간 \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멘토와 멘티 모 집											
멘토와 멘티 교육											
전반기 활동											
중 간 평 가											
후반기 활동											
최 중 평 가											

7. 프로그램 평가방법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사전 사후검사와 프로그램 평가설문지를 통한 양적 평가방법과 구성원들의 소감문을 통한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

사전 사후검사는 프로그램의 실행 전에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지지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측정하여 전반기 활동 종료 후 중간평가 때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며, 프로그램 평가설문지는 프로그램 목적 달성도, 참여도 및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소감문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을 통한 개선되어진 내용, 프로그램의 좋은점과 나쁜점, 건의사항 등을 소감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1) 양적 평가방법

① 측정도구를 활용한 사전 사후 검사

- 사회적응 (사회적응은 사회적지지 지각척도를 사용하였음)
- 자아존중감
- 대인관계

② 프로그램 평가설문지

- : 프로그램 중간과 종결 시 사용하고, 프로그램 목적 달성도, 참여도, 세부 프로그램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 질적 평가방법

① 구성원들의 소감문

- 프로그램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때 소감문 작성을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되어진 내용, 프로그램의

좋은 점 & 나쁜 점, 건의사항 등을 적도록 한다.

V. 논문의 한계

본 논문은 연구방법에 있어서 북한 이탈 청소년의 욕구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2차 자료를 토대로 욕구를 파악하였다. 탈북자의 특성상 노출을 꺼려하여 직접 욕구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존 연구자들이 탈북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해 놓은 2차 자료를 통해 욕구를 파악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일반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전체적인 사회적응의 문제를 파악해보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안으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시하였다.

필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게 남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방소재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실천적 참여에 기여했다는데 이 연구의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기존의 주입식 프로그램과는 달리 남한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북한 이탈 청소년들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기획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 크게는 남·북의 사회통합의 가치에 기여한다는데 그 두 번째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잘 수행되어 진다면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혼기(1999),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학생 멘터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현선(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 박현선(2000), <<실직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북대 사회복지지원센터 실업연구총서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01), 정무성, 양서원.
- 사회조사방법론(1998), A. 루빈 ; E. 바비 저 ; 성숙진 ; 유태균 ; 이선우 공역, 나남출판
-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2003), 박정희, 나눔의집.
- 유성경·이소래(1999),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원. 외(2000), “비행에서 탈비행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여상(2002), “탈북난민정책과 활동방향 - 탈북자를 위한 수용시설과 적응프로그램 개발(대량 탈북자 증가 대비, 저비용·고효율 지원정책 절실)”, <<월간북한(통권제370호)>> 북한연구소
- 이기영(1999),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 이기영(200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태화사회복지관>>, 2002탈북가족 지원 사업 세미나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 장창호(2000),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 정학재(1998), “멘토관계의 효과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 하성민(2001),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제 3섹터 연구소 (2000), <<1020 멘터 프로그램 교육 자료집>>.
- 한정우(2002, 8),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황부자(2002),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업소개, 『2002 탈북가족지원사업 세미나 자료집』”,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부 록】

- 자아존중감 척도, 대인관계지지 평가 척도,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는 박정희 (2003)의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나눔의 집)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1.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From B)

범주 :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2.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다.
3.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많은 부분을 고치고 싶다.
4.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집에서 화나 짜증을 잘 낸다.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8. 나는 내 또래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9.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
10. 나는 매우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신다.
12.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13. 내 생활에서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
14. 친구들은 내 의견이나 생각을 대체로 따라준다.
15. 나는 내 자신을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16. 나는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 나는 가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화가 날 때가 있다.
18. 다른 사람이나 친구와 비교해볼 때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19.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대체로 그 말을 하는 편이다.
20.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신다.
21.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22. 우리 가족은 늘 나를 재촉하는 것 같다.
23.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종종 실망을 한다.
24. 나는 상당히 행복한 편이다.
25. 나의 학교 생활은 자랑스럽다.

2. 대인관계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

범주 : ① 절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
2. 내가 외출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같이 동행해줄 사람이 있다.
3. 내가 혹시 잘못되어 감옥에 간다고 했을 때 즉시 나를 위해 애써줄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4. 그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5. 내가 하는 일을 잘 한다고 인정해 준다.
6. 내 생일잔치를 베풀어줄 사람이 있다.
7. 입원이나 여행 등으로 잠시 집을 비울 때 내 대신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

8.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9.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생활에 잘 대처하고 있다.
10. 나와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11.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있다.
12.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
13. 내 친구나 친지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14.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부르지 않는다.
15. 자신이 아끼는 물건(예:시계, 반지, 자동차 등)을 서너 시간 동안 쾌히 빌려줄 사람이 있다.
16.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17.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다.
18. 내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을 때 쾌히 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19. 내가 갑자기 돈 10만원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없다.
20. 성에 대하여 고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상의할 사람이 있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활에 만족한다.
22.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23. 내가 만약 이사를 간다고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24.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5. 내 주변의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가 힘들다.
26. 외롭고 우울할 때에 전화로 얘기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27. 내가 아픈 동안 나의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28. 내가 외롭고 두려울 때 마음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29.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지낸다.

31. 멀리 시외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상황일 때 전화만 하면 곧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다.
32. 나의 가정에 난관이 닥쳐도 내 손을 잡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3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구나 친지들과 가깝다.
34. 나는 내 친구나 친지들의 모임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35.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36.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일이나 할 수가 없다.
37. 잠시 여행하고 싶을 때 같이 갈 사람을 찾기 힘들다.
38. 아침 일찍 역이나 공항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다.

3.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범주 :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준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0.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8.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 우수 >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사례 분석 -



성 결 대 학 교

도시계획학과 3학년 김성철

도시계획학과 3학년 김지철

《 목 차 》

【요 약 문】

【본 문】

I. 서 론

II.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개관

III.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및 사례분석

IV.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요 약 문】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사례 분석 -

세계가 무한경쟁의 다자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실리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고착화를 경계하고 남북한의 상생을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은 민간기업과 정부당국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을 취한 북한의 전략과 서해교전, 북핵문제 등 군사적인 돌발상황, 정몽헌 회장의 사망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3년 8월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 간의 관계에 본격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그동안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산업 모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윈윈(Win-Win)전략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경협에서 대기업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 및 잠재력을 검토해보고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경협은 남북교역과 남북협력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는 간접 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북경협은 국제경쟁력 결정요소의 남북한간 보완, 통일비

용의 절약,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교역현황을 살펴보면, 교역합계금액이 2002년 말 현재 6억4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1억5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경협은 물자교역분야에서 199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직 업종이나 품목 및 참여기업 등에 있어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협력사업분야는 접촉에 비해 그 사업의 성사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남북경협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점과 북한의 남북경협 흡수능력이 낮다는 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미비와 북한경제의 낙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남북경협에서도 뿌리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치적·군사적 대립의 상황 속에서도 남북경협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향후에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핵심주체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이 있는 비중은 금액면에서 65.5%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경제체제의 상이성,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부재, 대남경협인식의 문제성, 수송체계의 미흡에 따른 물류비 과다 등 구조적인 제약성, 둘째, 북한의 경제침체 메커니즘에 따른 물자결핍현상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남북경협사업영역 확대의 제한성, 셋째, 남북경협지원체계의 미흡과 금융지원제도의 미비로 인한 정책지원제도의 미비이다. 위와 같은 동향과악과 문제점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실제 북한진출기업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의 비교우위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의 역할로 첫째,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험기반 조성, 둘째, 「신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보장, 셋째,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정 기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사업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둘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셋째, 수익성 제고를 위한 판로·물류비 지원, 넷째, 경영·기술교류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문】

I.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는 이념갈등에 의한 양자체제의 시대를 마감하고 WTO체제를 출범시킴에 따라 바야흐로 치열한 무한경쟁의 다자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협력과 조화를 지향하는 국제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는 보편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 국가간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국가별 세계화 전략 속에서 무한경쟁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이제 이념적 갈등에서 야기되는 군사적·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모든 역량을 경제실리 추구의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구시대의 산물인 이념 갈등에 의한 소모적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북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군비증강 등의 낭비적 요소에 상당한 자원을 더 낭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더욱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의 무대에서 도태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에 걸친 단절 상황은 모든 부문에 있어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남북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하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은 차치하고 영원한 분단국으로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온 민족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은 민간기업과의 경제교류협력은 개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남한 당국과의 접촉은 회피하는 북한의 전략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 경의선 철도복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최근 8월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등으로 남북한간의 관계에 본격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그동안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남북경협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과정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산업 모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윈윈(Win-Win)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남북경협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의 중심적인 주체로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현재까지 남북경협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산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나 대기업 위주의 연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경협에서 대기업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 및 잠재력을 검토해보고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북한이 서로 대립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관계로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추구를 위하여 모색할 수 있는 방안과 둘째, 현재의 남북경협 환경 및 여건하에서 보다 현실적인 중소기업 남북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남북경협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의 수가 적고 그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의 교류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기업측에서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등에 의한 실증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2차

적인 문헌적 조사에 의존하였다. 연구대상이 남북한 사이의 국내문제이고 또한 이에 관해서는 국내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정부부처, 정부기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와 북한관련 학과를 개설중인 대학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개관에서는 남북경협 개념 및 중요성, 현황 및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3장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현황 및 사례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동향,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실제 북한진출기업 추진사례를 분석해 보고, 제4장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문제점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I.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개관

제1절 남북경협의 개념 및 중요성

1. 남북경협의 개념

남북경협은 남한과 북한의 국민, 법인, 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물품의 반출·반입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남북교역과 남북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1) 남북경협 구분

1) 남북교역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의 이동¹⁾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교역은 거래에 대한 반대급부가 요구되는 가에 따라 거래성교역과 비거래성교역으로 구분된다. 거래성교역은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상품을 반입하거나 남한에서 상품을 반출하는 상업적 매매거래(단순물자교역)와 북한에 가공임을 지급할 조건으로 설비,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고, 가공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교역²⁾이 있다.

비거래성교역은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지원 등에 따른 반·출입 형태를 말한다. 현재 인도적차원에서 쌀, 비료, 의약품 등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KEDO중유, 금강산관광사업 등 협력사업물자의 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남북협력사업

남북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

1)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한다.

2) 원·부자재만 제공하는 「단순형」과 생산설비까지 제공하는 「설비제공형」으로 구분되며 현재 남북경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설비제공형이 점차 증가추세이다.

영사업, 합작사업,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남북교역 당사자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무역업 고유번호가 부여된 업체(관계자)가 추진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역 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3) 남북교역 형태

남북교역 형태는 남북 교역당사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직접교역과 중개인을 매개로 한 계약에 의한 간접교역이 있다. 직접교역은 교역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처 방법 모색이 곤란하고 간접교역은 북측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으나, 교역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 또한 중개상의 손실보전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상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교역은 현재까지 대부분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동안 조성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2. 남북경협 의 중요성

(1) 국제경쟁력 결정요소의 남북한간 보완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쟁력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요소³⁾경

3) 단순요소로는 천연자원, 단순인력, 임금수준, 도로·항만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경쟁력이 너무 급속하게 하락하여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온 고급요소⁴⁾경쟁력의 효과를 반전시켜버림에 따라, 한편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사양산업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소위 강요된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조정은 사양산업의 보호보다는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의 주력산업이었으나 현재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이 급격하게 퇴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즉, 이들 산업의 퇴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실업의 문제, 이들 산업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 마케팅력, 산업설비 등의 유희화 등 국가적 자원의 낭비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경제통합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경협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경협의 궁극적인 목표를 경제통합에 둔다면, 이는 국내 시장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자립도를 고양시켜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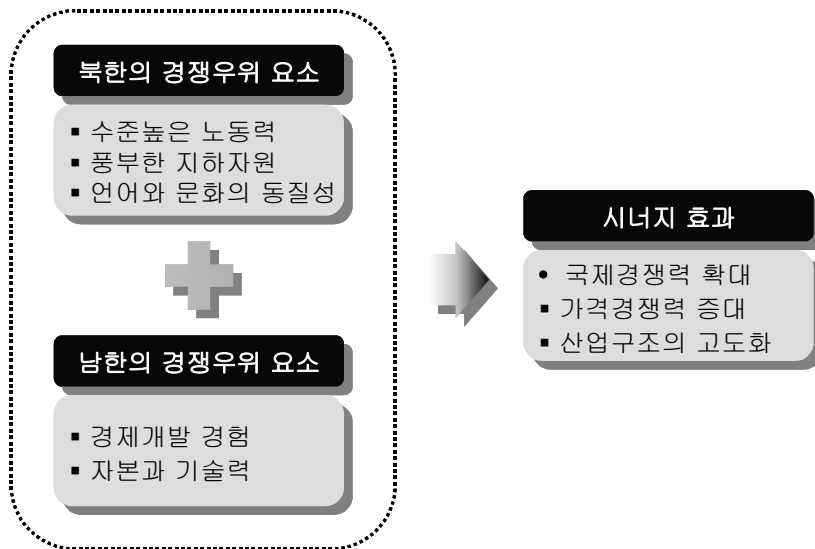
둘째, 남북경협을 미래의 남북통합을 대비하는 남북한 산업의 재배치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순요소경쟁력의 하락으로 노동집약산업의 퇴출, 수입자본재의 국산화를 통한 자립적 생산기반의 확립,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생산구조 전환 등과 같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유희산업설비의 북한 내

등이 있다.

4) 고급요소로는 기술수준, 국내수요의 질, 통신·항공 등의 현대적인 사회간접자본, 유통·금융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의 수준 등을 포함한다.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충격을 완화해 줄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도모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경협 의 파급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자료 : 윤희숙(200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P23 수정.

(2) 통일비용의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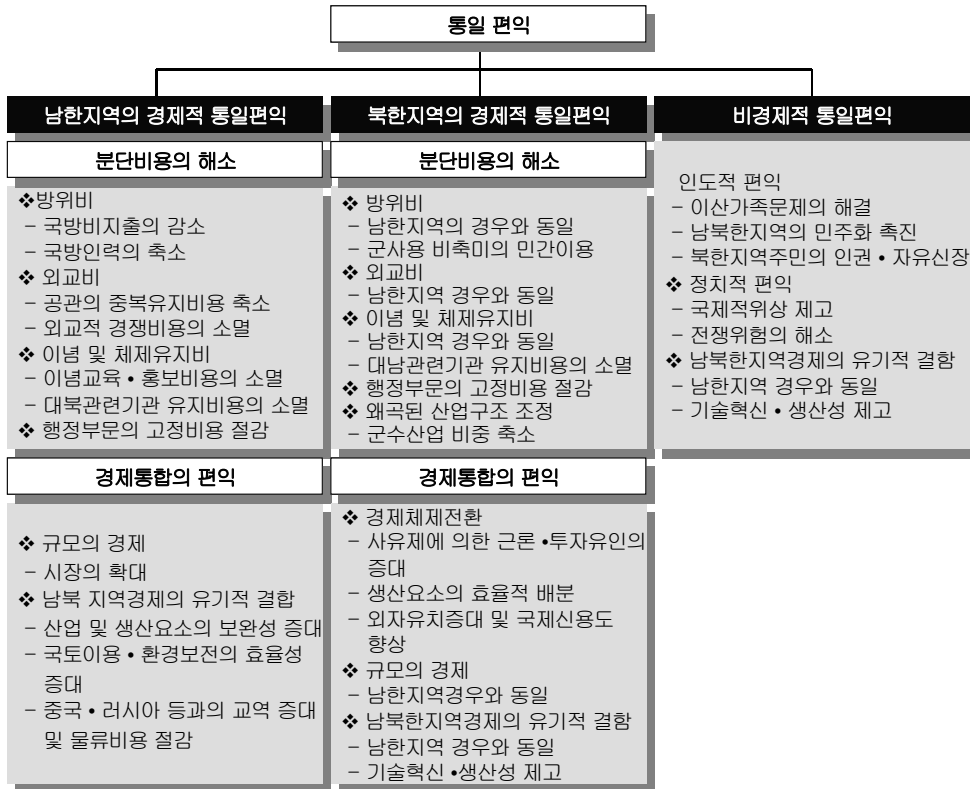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통일에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통일주체간의 경제력 격차의 크기와 비례하게 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러한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의 손실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의 추정규모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추정의 목적과 비용의 개념 및 제반가정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된 통일 비용의 크기는 연구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⁵⁾ 조용균(1997)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이후 10년간에 걸쳐 적게는 2,000억 달러에서 최고 1조 8,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무려 9배가 넘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이 중 가장 적은 규모의 비용이라 할지라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만 본다면 통일은 오히려 남한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남한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가 통일비용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통일에 따른 편익이 상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통일편익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그림 2>와 같다.

5) 조용균, 「한반도 통일비용 추계의 의미와 한계」, 외교통상부, 1997.9

<그림2> 통일편익의 분류



자료 : 윤희숙(200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P30

이 모든 요소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면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지만 이를 추계하는 것은 본 논문의 영역에서는 어려우므로 우선 계량이 용이한 통일편익만을 추정한 연구결과만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1992년을 통일시점으로 그리고 통일로 인한 노동력 증가의 성장기여율 증가와, 자본투입의 성장기여율 증가 그리고 자본투입의 성장기여율 증가를 각각 0.5%, 생산성향상에 의한 성장기여율 증가를 1%로 가정하여 통일 10년 후인 2001년의 남북한 GNP의 합계를 추계한 연구에서는 분단유지시의 합계보다

806-848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⁶⁾ 국방비지출을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켰을 경우 남한경제가 어느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추정한 연구에서는 1996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2020년의 통일편익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6조 5천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편익을 통일비용에서 상계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통일비용의 규모와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과중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통일편익을 향유해 나가면서, 그 진전에 따른 남북한간의 소득격차 및 경제규모의 격차의 완화를 통하여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며, 이는 중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3) 사회·정치적 안정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정치적 불안정은 그 나라의 국제경쟁력의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북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왔던 국제적 냉전체제는 이미 10여년 전에 사라졌다. 세계는 지금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전쟁의 위협, 테러·폭파·납치 등 과거 5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정치·사회적 불안정 상태를 영구히 해결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 남북분단에 따른 불안정한 평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하여 전체 한민족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예컨대 무력을 통한 통일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심각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

6)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6, p.20

할 것이므로 오히려 오랜 기간동안 한민족의 삶의 질을 격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는 통일의 중간과정으로서의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체 즉 남북경제공동체의 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경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또한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접촉과 발전을 유발할 수 있는 선도 분야이기 때문이다.⁷⁾

남북경협은 남한과의 경제적인 접촉에 의한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학습효과를 통해 북한의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의 방향전환을 유도하고 남한에 대한 적대감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⁸⁾ 정치·사회적 안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손실을 완화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특징

1.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

남북한간의 경협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협력과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한반도를 냉전의 잔존지역으로 존속케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북한간의 경협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남북경협은 1988년 10월 남한정부의 「대북한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남북한간 교역이 시작된 이후 열 가지 어려운 여건과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증대되어 1989년 1천 8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교역은 2000년에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대북지원 및 경수로 사업 등으로 남북교역 사상 최초로 4천 달러를 상회하였다.

7)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6, p.78

8) 박성근,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p.72

대북투자는 북한 내 투자여건의 미흡 및 남북관계의 불안정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북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인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대우의 남포공단 운영, 한국 전력의 신포 경수로 건설공사,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다.⁹⁾

(1) 물자 교역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1998년 「7.7 특별선언」 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 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 달러를 넘어 서기 시작하였다. 남북교역은 1989~90년 기간동안 1~2천만 달러로서 시험적 거래를 통한 상호교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1994년 10월, 북한 핵문제 타결의 계기로 우리 정부의 1994년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1995년의 남북교역은 위탁 가공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였다.

9) 통일부, 「통일 백서」, 2001, p.154.

<표 1> 남북 경제 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9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74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5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2,957
2002	5,023	202	271,575	3,773	493	370,155	8,796	568	641,730
계	25,708		2,066,292	25,804		1,504,613	50,792		3,570,905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03, p.172

주1 : 19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1997년에는 대북식량자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3억 83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⁰⁾

1998년 IMF경제위기로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 달러였으나 1999년에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와 금강산 관광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

10) 최수영, 「남북경협 모델 설정」, (서울:통일연구원, 2000), p.3~4

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경수로 본공사 착공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었다.

남북교역의 반출입교역 수지를 살펴보면, 반입액이 반출액 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지속되고 있는바 1992년에는 1억5천2백만 달러, 1993년에는 1억7천만 달러, 1994년에는 1억5천만 달러, 1997년에는 7천8백만 달러의 남북교역상 대북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남북간 교역수지

(단위 :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계	교역수지	비고
1989	18,655	69	18,724	△18,586	
1990	12,278	1,188	13,466	△11,090	
1991	105,715	5,547	111,266	△100,172	1991~2002 연평균 △44,333 (△122,806)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993	178,167	8,425	185,59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133,049)	
1998	92,264	129,678	221,943	37,415(△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53,929)	
2000	125,373	272,775	425,148	120,402(△56,794)	
2001	152,373	272,775	425,148	120,402(△110,639)	
2002	176,170	226,787	402,957	50,617(△197,419)	
계	271,575	370,155	641,730	98,580(△1,503,349)	

자료 : 통일부, 「통일 백서」, 2003, p.173

주1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 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 교역수지임.

1998년도에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9천2백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반입하고, 1억2천9백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반출하여 3천7백만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및 경수로, 금강산 관광사업 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물자를 제외하면 실질 교역상으로는 북한이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교역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광산물과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 이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이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에도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5년부터 KEDO중유, 대북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상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제품도 1999년 20.2% 2000년에는 35%로 반출비중이 높아졌다.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운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다. 2000년도 위탁가공 교역액은 1억 2,919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 신발, 완구, 등도 일부 생산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설비반출도 2000년도에만 31건 557만 달러이며 참

여업체도 151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¹¹⁾

(3) 경제 협력사업

경제 협력사업은 1992년 (주)대우가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0년 상반기까지 4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5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1999년 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 17건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단순가공에서 전자제품 조립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국제 물류유통기지 개발·운영 등 그 추세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방대해짐을 알 수 있으며, 식량난 해소를 위한 두레마을 영농조합 법인과 국제 옥수수 재단에서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평화자동차의 남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과 삼성전자의 남북 software 공동 개발사업 추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2. 남북한 경제협력 특징

(1) 물자교역

남북한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남한이 반입위주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였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이 반출우위 구조로 바뀌었다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 1997년 경수로 건설사업,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이 차지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를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1.161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11) 통일부, 「통일 백서」, 2001, p.145~146.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되, 계약 결제는 제3국 중개상을 통하는 방식의 간접교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승인 기준으로 1991년 7.5%, 1993년 1.7%, 1995년 8.7%, 1996년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교역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경제의 대남 의존도 증대, 내부 주민동요 등 북한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북한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북간 단순교역은 1991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탁가공교역의 증대현상은 향후 남북교역에서 중요한 패턴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위탁가공교역은 1억 2,919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품목가운데는 섬유류가 전체 반출금액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출입 상위 7개품목이 전체 반출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70%를 넘어서고 있고, 또한 남북교역 참여 업체별로 볼때 상위 5개 기업의 반출입 실적이 전체 반출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같이 남북교역은 업종이나 품목 및 참여 기업 등에 있어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음 알 수 있다.¹²⁾

(2) 협력사업 분야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접촉에 비해 그 사업의 성사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남한정부가 1998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로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협력사업 동시 승인제 신설 등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확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2001년 3월 현재 협력사업자 승인은 39건, 협력사업 승인은 18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사업이 성사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많지

12) 배종열, 「남북경제교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0, p.64

않아 낮은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창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생수공장을 건설하고 2000년 7월부터 생수를 국내 시판중이며, 녹십자는 혈전치료제인 「요노키나제」 생산공장을 2000년 7월에 증공한 후 국내 반입중에 있다. 평화자동차는 남포지역에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며, 삼성전자는 2000년 3월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S/W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는 1998년 11월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¹³⁾

우리 기업들은 북한이 경제특구로 개방한 나진·선봉지역보다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평양·남포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다. 현재 협력업자로 지정받은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일부 농산물의 합영·합작을 제외하면 경공업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있어서 평양·남포지역을 투자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최근 남북간의 경제교류에서 위탁가공교역의 증가추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교류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제3절 남북경협의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1)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영향

남북 경제교류는 그동안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영향에 의해 교역과 투자의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치·군사적 영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대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북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⁴⁾ 첫째, 한반도 정세의 국제적 환경이 불안해지면 남북경제교류를 위축시키는 요인

13) 신보현,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p.67

14) 김규륜,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42

이 된다. 둘째로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로 인한 남북관계 불안정은 남북경협
안정적 추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 따른 정부의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경협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에 따른 우리 정
부의 「정경연계원칙」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되어 왔
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남북경협 흡수능력 저하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하지 않고
있어 남북한 간 합의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경협사업 협의 등 남북간 화해분위기
가 조성되고 있으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관점이 우리 기업과의
경협 추진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입장에서 기업인 방북초청 및 협력
사업에 호응해 나오고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시 자유사조 유입 등 체
제개방을 우려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강성대국” 기치 하에 “우리식 사
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남북경협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과 남북한 경협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구성
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가동, 정례화 하여 당국차원의 경협사안을 풀어 나감
으로써 민간차원의 경협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측면

(1)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미비

남북경협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 긴장상황 등 정치적 측면의 영향이 있
겠으나 경협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질적 향상과 투자부문으로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이 부문의 정비가 시급하다.

남북한은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에 적용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재 등 경협 4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남북경협이 공식적인 제도적 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은 경협 합의서가 체결된 만큼 향후 세부 분야에 대한 후속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북 교역 및 투자 진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북한경제의 낙후성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기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 내부의 비효율성이 부적절한 경제발전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요소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계획적 경제관리에 따른 효율성 상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서 파생된 경쟁력 저하,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투자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등이 그것이다.

3. 교역 및 협력사업

(1) 물자교역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 중의 하나는 과도한 물류비용이다. 남북한간 교역은 (주)동률해운에서 1997년 10월부터 부산~나빈간을 운항중이며, (주)한성선박은 1998년 8월부터 인천~남포간을 제3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월3회씩 운항하고 있으나 물류량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와 북한내에서의 물류처리기간 지연으로 전반적인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남북한간 수송료는 현재 인천~남포간 220마일 운송시 20피트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약 1,000달러로서 이보다 더 먼거리인 인천 천진의 250~350달러, 인천~단동의 600달러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항구의 노후화 및 열악한 기계설비 등 문제점은 장기적 과제로 협력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남한 내에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하고 있는 교역품목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사이의 불일치도 교역의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다. 식량, 원유, 비료, 핵심기자재 등은 북한이 간접경로를 통해 반입하기를 원하는 품목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군사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렵다.¹⁵⁾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내수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어 우리 상품이 북한에 진출하여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위탁가공교역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산업의 낙후로 임가공에 필요한 관련 원·부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공업생산단지는 광양, 남포 등 서해안에 있고 경공업 원료생산단지는 함흥, 청진 등 동해안에 있는 비효율적 생산배치로 인해 대부분의 부속품을 남측에서 북한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남북한 운송체계나 북한의 하역 및 수송시스템으로서는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임가공 생산기지의 취약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임가공용 설비가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관련설비의 제공이 필요하나 설비 제공형 임가공이 임가공료에 비해 비용규모가 크고 설비대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면에서 아직 설비형 임가공이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위탁가공제품은 대부분 시장의 판로가 남한에 한정되어 있는바 장기

46) 배종열, 「남북경제교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0, p.70

적으로는 북한에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3) 협력사업

북한은 철도, 항만,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SOC분야중 특히 전력이 부족하여 산업생산시설의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며, 철도의 경우에도 화물수송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선이며 일제 때 건설한 것이 대부분으로 대규모 물동량 수송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대북투자를 요하는 협력사업이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미비, 북한 SOC 열악 등 이외에 북한이 체제 개방을 우려하여 우리기업이 대북진출 지역을 제한해 오고 있어 대북투자 확대를 어렵게 한다. 북한이 원하는 투자지역과 남한기업들이 원하는 투자지역간에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기업들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해줄기를 요구해 왔으며 우리기업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평양·남포지역을 원하고 있다. 임가공은 남북간의 인력접촉이 소수로 한정되는 반면에 투자는 남북간의 인력접촉이 임가공보다는 확대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체제유지를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평양·남포지역이 적합지역으로서 북한은 동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및 사례분석

제1절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제화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과 기술협력의 단계를 거쳐 자본, 인력, 기술 등 기업경영 요소 전반이 복합적으로 이전하는 해외 직접투자로 귀

결된다.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2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순투자기준으로 14,507건에 296억달러이며, 그중 중소기업이 9,237건에 68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63.7%, 23.0%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93.2%와 40.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협력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진출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의 다양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 이전의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투자건수 기준 약 4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경협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⁶⁾

<표 3> 한국의 대중국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88~1991 (수교 이전)	21	28	80	37	101	65
1992~2002 (수교 이후)	421	3,371	6,003	2,249	6,424	5,620
누 계	442 (6.8%)	3,399 (59.8%)	6,083 (93.2%)	2,286 (40.2%)	6,525 (100.0%)	5,685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3)

남북경협 역시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남한 외 지역의 생산요소 활용, 시장 진입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확대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남북경협이 매년 증가추세는 보여왔으나 교역물량 및 투자액의 소규모, 업종의 단순성, 사업추진기간의 단기성 등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16) 김주영, 「한국의 대중국 투자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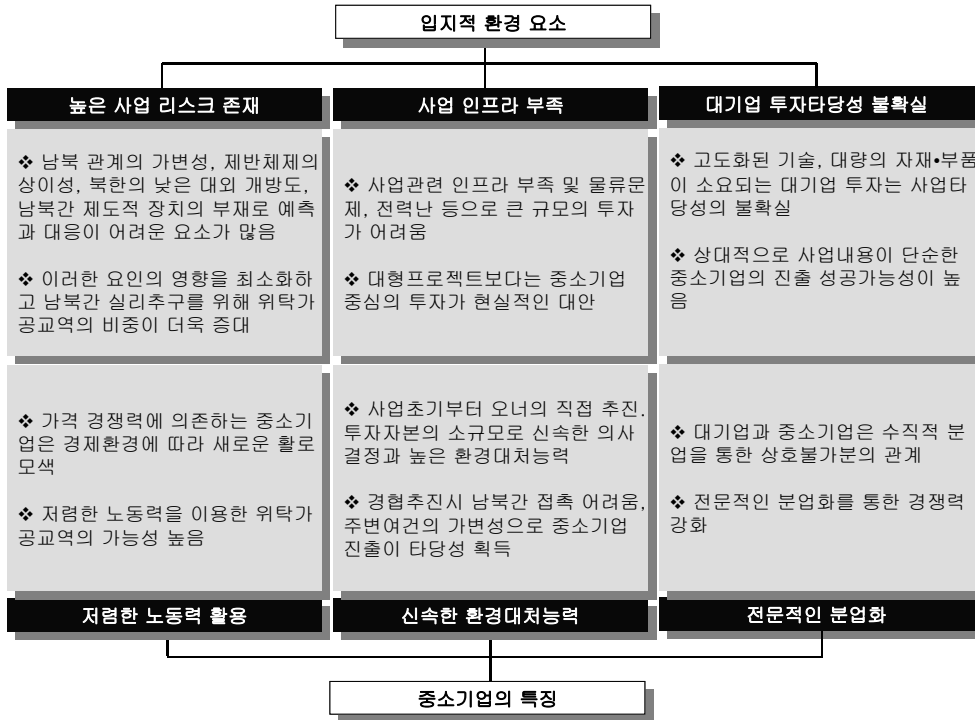
으며, 이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부분의 요소에 있어서의 제한성 및 높은 리스크에 기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역의 사업환경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남북경협 경우에는 북한 내부의 환경 외에도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제정세의 영향도 많이 받는 등 타 지역보다는 특수하고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어 현재와 같은 사업여건이 개선되어 경협이 일정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변화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소규모 투자방식으로 환경변화에 대응이 용이하고 사업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그동안의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교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대북진출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해당 지역의 입지적 환경요소 측면에서 북한은 대규모 또는 많은 기업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북한도 생필품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공업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소기업을 통한 남북경협의 확대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요소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특성 내지 대기업과의 차이 측면에서도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은 남북경협에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림 3>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북한경제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생산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¹⁷⁾, 한정된 수산물, 비(卑)금속·광물 등을 제외한 수출 주도 업종은 섬유·의류 등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⁸⁾ 또한 중소기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탄력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란 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경협 환경하에서는 경제규모의 비교우위를 적용하기에는 그 제약성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보다 기대된다 하겠다.

17)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전략과 활성화 방안」 1998.10, p.1

18) KOTRA,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2. 6, p.21

제2절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동향

현재 남북경협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금액 측면에서도 대기업을 추월하는 등 실제 남북경협에 있어 그 중요도 및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일부 추진 업체는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사업 성공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추진 경향을 보면 업종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최근들어 생산설비제공에 의한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및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투자협력사업의 증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여건개선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최근 2~3년간 신규 추진기업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 진출기업 중에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자금, 정보력, 판로 등의 취약성으로 관련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남북경협 접근방법의 미숙이나 전략적 차질에서 야기되는 경영 내적인 장애요인도 일부 존재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남북경협의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중 위탁가공교역 반입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⁹⁾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01년까지 최근 5년간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추진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97년의 경우 업체수 68.8%, 금액 25.2%에서 01년에는 각각 84.1%, 65.5%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99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19) 분석방법은 통일부의 위탁가공교역 반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분적으로는 '기타'로 처리되어 전체적인 업체별 반입실적을 파악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확인이 가능한 업체 반입실적에 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였으며, 사실확인이 어렵지만 '기타'로 처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유추되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추진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97	98	99	00	01
전체(A)	업체수	48 (31.2)	52 (26.9)	78 (16.7)	74 (17.6)	63 (15.9)
	금액	42,894	41,371	53,736	63,434	57,029
중소기업(B) (%, B/A)	업체수 (%)	33 (68.8)	38 (73.1)	65 (83.3)	61 (82.4)	53 (84.1)
	금액 (%)	10,821 (25.2)	11,483 (27.8)	33,544 (62.4)	39,233 (61.8)	37,344 (65.5)

자료 : 통일부 자료(2002) 재구성(위탁가공교역 참가업체 물품 반입기준)

2001년 위탁가공교역 반입 실적이 있는 53개 업체의 최근 5년간 교역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교역기간이 3개년 이하가 77.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5년간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9.4%에 불과하여 북한사업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업체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교역 기간(2001)

(단위 : 개, %)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업체수	15 (28.3)	11 (20.8)	15 (28.3)	7 (13.2)	5 (9.4)	53 (100.0)

한편, 최근 5년간 반입 금액을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66.0%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거래가 영세함을 알 수 있는 반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업체도 22.7%로 나타나 섬유·봉제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업체의 경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교역 규모(2001)

(단위 : 업체수, %)

교역금액	\$50만	\$51만-\$100만	\$101만-\$200만	\$200만초과	계
업체수	22 (41.5)	13 (24.5)	6 (11.3)	12 (22.7)	53 (100.0)

제3절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문제점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문제점을 첫째, 남북경협 추진상의 구조적인 제약성, 둘째, 남북경협 사업분야의 제한성, 셋째, 대북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제도의 미흡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구조적인 제약성

(1) 경제체제의 상이성

남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화와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시되는 경제체제로 인해 시장경제 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은 이질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거래 관계는 남한은 기업의 '사적 영리추구 동기'가 강하고 북한은 '국가적 수요 충족 동기'가 강하다. 또한 남북경협이 남한의 경우는 '경제 확장적 동기'가 강하나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 유지적 동기'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둘째, 북한의 중앙계획 당국의 경제계획 목표에 따라 해당연도의 계획으로 승인된 사업과 정해진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이에 반영되지

20) 김성훈, 「남북한 경제통합론-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2001, p.253

못한 당해연도의 경협사업을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자원 배분 및 가격결정 등을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가격구조 및 유통구조가 극심하게 왜곡되어 내수시장 체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노동인력 채용 역시 노동 노력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에 배치된 인력까지도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등 자율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부재

그 동안 남북경협은 북한당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법·제도적 안전장치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교역환경의 부작용을 피해보려는 의도에서 실행된 것이 간접교역 방식이었으며, 대북투자 사업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기본적인 경협시스템이 부재에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협관행과 교역방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자유로운 왕래와 경영활동 보장이 제한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이완 등을 우려해 체제유지 차원에서 통행, 통신, 통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경협사업 성사를 위한 대북 접촉, 사전 현지 환경 및 시장 조사 등이 어려워져 대부분 북경 등 제3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사업 성사율은 저조하다. 방북을 통한 현지 기술지도 및 품질검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신뢰하는 남한 기업이거나 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기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등 제3국인을 중개자로 한 간접교역을 추진하는 기업은 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간혹 중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납기일 지연, 품질의 하락 등 교역과정에서의 각종 문제들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관행화되어 있다.

둘째, 대북투자의 투명성·안정성·지속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 즉, 남북한 당국간의 “법·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결여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사정²¹⁾, 물류비 문제 등과 함께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식 서명한 바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경협 4개 합의는 아직까지 쌍방간의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산결제 등과 관련한 합의서 후속조치 시한을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후속차원의 제도화 보완을 위한 법률적 측면에서는 통행·통신합의, 원산지 증명 및 해운합의, 산업표준화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간접결제는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환결제 등 금융결제시스템의 확립이 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남북 당국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교역부분의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위탁가공교역과 달리 투자협력사업의 경우는 특히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과 경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북한의 대남 경협의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 리스크 등을 고려한 보수적인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3) 대남 경협 인식의 문제성

남한은 대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기업 교류협력실현, 정부간 교류 상호주의의 적용이라는 3대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반면, 북한은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이라는 생존전략의 일환책으로 남북경협을 다루다 보니 정치상황에 연동되는 불투명성과 이중적인 대남 경협 성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인 점은 인정하나 법규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남한 기업들의 나진·선봉경제

21) 행정자치부, 「북한의 기본현황」, 2001년 3월호, p.10~22.

무역지대 내의 합영 사업 승인을 제한하거나 승인 업체들의 방북을 불허하여 사업을 중단시킨 조치, 2000년 말 최대의 남북물류 수송로인 인천~남포간 정기 선박을 수개월간 운항 중단시킨 사태, 가공 무역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거 기술지도와 품질검사원의 체류를 허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남 경협 협상 담당자들은 상당한 경제전문지식과 협상력을 지닌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에 의한 무리한 임가공 단가 및 상품가격 인상 요구, 해당사업 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북한과의 경협사업이 하나의 특혜라는 인식 또한 경협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대남 경협 인식의 문제를 거론 할 때 정치상황에 연동되는 불투명성과 이중적인 대남 경협 성향 등을 자본주의 마인드의 결여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하나 실질적으로는 남한을 진정한 경협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예컨대 자본과 기술만을 받아들인다는 “모기장 전략”과 경협 사업에 있어서 “甲과 乙”이 뒤바뀐 상황도 그렇지만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급하는 선하증권 기재내용 중 ‘목적항’란에는 인천항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본의 고베항 등으로 표기하여 발급하면 남한의 선박회사 측 선장이 별도로 발급한 직항증명서에 의해 통관 처리되는 상황은 대남 경협 인식의 문제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4) 수송체계의 미흡에 따른 물류비 과다

고도한 물류비는 남북간 교역이나 경협의 확대·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며,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생산단가의 약 40% 판매가격의 10~15%를 차지하여 무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²²⁾

22) 조명철,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93

물류비의 부담요인은 첫째, 북한 항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고장 발생이 잦고, 정전 사고 등 제반 시설의 취약성에 있다. 둘째, 제반 물류 인프라의 취약성으로 인해 항비, 하역비, 컨테이너 분실 및 회수비용 등 운항 원가의 상승 요인이 많다. 셋째 적은 물동량으로 인하여 소석률(평균 30% 내외)이 저조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2. 남북경협사업 영역 확대의 제한성

북한은 경제침체 메커니즘에 따른 물자 결핍현상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장기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사업영역 확대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내적인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은 식량난, 전력부족 등 에너지난, 원부자재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 심각한 결핍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화난으로 구매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체계의 불안정과 유통물량의 부족 등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다. 즉,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전력난과 다양한 부품산업의 부재 등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이 되고 있다. 단순 교역부문에 있어서도 사업적 매매거래는 반입과 반출 비중이 9대1인데 반입의 85.5%가 농림수산물인 점을 보더라도 교역 상품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구매력 부족과 내수시장이 협소한 것은 북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진출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한편, 상품 반출의 위축은 물론 북한과의 공동 투자협력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의 취약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관련, 미국정부는 제2차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북한산 제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제한 바세나르 협정으로 북한과의 교역에 제한이 많다. 이는 남한의 노동집약 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북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상당한 저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남기지연이라는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북한을 원산지로 한 대미수출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사업의 경우 남한 내수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서도 이해될 수 있다.

3. 정책지원 제도의 미비

(1) 남북경협 지원체계의 미흡

남한이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체제 수호적 대남 교류협력'에 주력하고 있는 인상이다. 북한은 민경련 등을 내세워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에 한해 다소 신축적으로 응하면서도 남한 당국간 대화는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중앙 부처인 통일부에서 전담하다 보니 체계적인 조정·통제 및 지원기능이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정경분리원칙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기본적 경협시스템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재의 남북경협 환경 하에서는 북한 당국과 민간기업간의 경협성격을 갖고 있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금융지원 제도의 미비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대북투자 리스크에 따른 손실우려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신용보증 및 보험기관들은 업무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금융 관행상 대북 투자설비의 경우는 담보취득이 곤란하여 별도의 추가 담보가 불가피하나 대부분의 대북진출 중소기업은 담보제공 여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서 신용대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특히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별자금인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보

면 2000년과 2001년도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두차례 개정, 지원조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남북경협자금지원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고²³⁾ 둘째, 복잡한 절차 및 신용대출 요건 강화 등 탄력적인 운용이 미흡하며, 셋째, 위탁관리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 한정되어 전문성 측면이나 여러 주거래은행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그 제약 요인이 많다.

따라서 열악한 남북경협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전향적인 금융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제4절 북한진출기업 추진사례 분석

1. 투자협력사업 사례(S사)

(1) 기업개요

남한	생산제품	CRT 모니터, LCD 모니터, LCD TV 등				
	매출액	63,245백만원	종업원	159명	설립년도	1996년

북한	진출시기	1998년 4월	설비투자 투자금액	PCB, 모니터 : 1,000 천달러 발포수지 : 520천달러
	생산제품	컴퓨터모니터용 PCB, 모니터 완제품, 발포 수지, 포장재	연 임가공비	237천달러 (PCB 및 모니터)
	사업지역	평양	현지종업원	약 100명(2개공장)

23) 남북협력 기금 중 경제협력자금 지원실적은 총 694,2억원으로써 총 지원액(16,300.4억)의 4.3%이며, 경제협력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약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 평양에 소재한 공장에서 모니터 부품(PCB) 및 모니터 완제품을 위탁하공 형태로 생산하여 남한 반입 및 일부 북한 현지 판매를 하고 있으며, 동제품 포장 및 현지 TV생산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포장용 발포수지 생산공장을 임가공이 아닌 협력사업(합작투자) 형태로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2) 진출동기

S사는 제조 모니터의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출하였다. 1998년 컴퓨터 모니터용 PCB 조립공정 설비 및 기술의 평양 이전을 기점으로 시작한 대북사업은 현재 PCB 조립에서 17인치 모니터 완제품 조립 임가공 사업으로 확장중이고 2001년부터 시작한 모니터 완제품 사업은 북한 내수가 주 목적이며, 아직은 소량이지만 북한 내에 공급중이다. 모니터 완제품의 경우 현 여건상 높은 물류비 등으로 남한 반입·판매는 타산이 맞지 않다. 점진적으로 북한 내수 확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S사는 모니터 사업 외에 남북경협이 공통적인 문제점인 물류비 절감 및 북한 내수를 위한 발포수지 포장재(스티로폼) 사업을 투자협력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 S사의 모니터 및 삼성, LG TV의 북한현지 생산제품 포장재와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 상자 등을 공급중이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고, 현지 진출한 남한기업의 경우, 그동안 포장재도 남한에서 공급하여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3) 북한진출의 장·단점

S사는 북한 진출을 통해 낮은 임가공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북한으로의 기술이전 또한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모니터 및 발포수지는 북측에 생산업체가 거의 없는 반면, 당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어

서 북한 내수진출이 용이하고, 대금결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 등에 따른 투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설비 및 모든 원부자재 제공에 따라 자금부담의 증대, 북한 현지에서 활용 및 협력 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의 부재, 높은 물류비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성공요인 분석

S사의 성공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S사는 북측과 많은 접촉 및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북측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에 진출하였으며 유희설비 활용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하였고 우수한 현지 인력 및 우리 기술자에 의한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기적인 목표에 의한 오너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라고 본다.

(5) 북한사업 관련 향후계획 및 전망

PCB 임가공은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며, 자체 사용물량 외에도 각종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것을 남한 내 타사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니터 완제품은 현 여건상 남한으로의 반입은 어려우므로 북측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로의 수출도 도모하고 있다. 처음부터 북한내수를 위해 투자한 발포수지는 현재 포장용 제품만 생산하여 북한 내 우리 진출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북측의 요청에 따라 건축용 평판도 설비를 추가하여 생산 및 현지 내수를 할 계획이다. 동 제품도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북한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북측의 대금결제 능력 및 남북간 결제 시스템 해결이 관건이다.

IV.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제1절 정부의 역할

1.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협기반 조성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남북경협 사업은 제도적 보장 장치의 미비로 인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앞서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003년 8월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4개 투자보장, 이중과세, 상사 분쟁 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 발표통지문을 교환하였다. 이는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지 2년 반 만에 빛을 발하는 것으로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외에도 산업표준, 규격, 형식 승인,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규정, 수송,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실로 수많은 사안들이 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의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남북경협 사업의 승인 절차, 주민 접촉 및 방북 절차, 특수자료 취급 등에서 규제 완화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본질적으로는 남북경협 사업을 '국내사업' 혹은 '국외사업'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치밀하게 검토하여 법규 준용에 있어 일정한 준칙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보장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매우

불안하게 추진되어 왔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에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기복을 겪으면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럴 때마다 남북경협을 추진해왔던 국내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협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① 큰 틀에서 경제 문제는 정치·안보 문제와 병행, 추진하고 ② 민간 차원의 경협에 있어서는 정경분리를 철저히 적용하며 ③ 정치적 문제가 경협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²⁴⁾으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남북경협에서 추진한 '정경 분리' 원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협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정 기능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한다. 그러나 현실의 남북경협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남북경협에 주어진 목표들 가운데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도 존재한다. 즉, 정부는 남북경협이 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장애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자원개발 등과 같이 개별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힘들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직접 추진

24) 조동호, "남북경협 부문 : 「신정경분리」 원칙을 통한 활성화", 통일경제, 통권 제84호, 2003.03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에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 정보는 민간 기업들에 최대한 전파되고 원활히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추진 방안

1. 사업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그 동안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남북간 직접 결제는 이행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협 관련 기업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도 많이 소요돼왔다. 8월 20일 남북한간 투자 관련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서 남한은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은 조선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청산결제은행이 일반결제업무도 담당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으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기업들이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 양원화, 또는 제한적으로 다원화하는 방안과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와 대월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이의 세분화 및 명문화가 요구된다.

한편 남북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금융지원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행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금융지원은 경협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행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협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30대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제한 조항보다는 이를 완화하되 자금 한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 지원을 더욱 기업중심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이 경우, 북한 지역의 공장부지와 건물, 설비 등에 대한 투자분이 현재로서는 담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지원도 더욱 필요하다. 또한 북한측 파트너가 대금지불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험의 필요성도 크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보증 및 보험 지원 역시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데,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업무를 위탁하고 정부는 평균적인 대위변제율을 초과하는 부분, 평균적인 보험요율을 하회하거나 손실 보상을 상회하는 부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상대적으로 보아 금융 지원이 사전적인 지원이라면, 조세 지원은 사후적인 지원에 해당된다. 현 상황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수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조세 지원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은 대상 기업의 사업 실적에 일정하게 연계되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더욱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중소기업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 지원의 방안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일정하게 준용하여 강구해 볼 수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 및 매출액에서 남북경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에 있는 기업을 '(가칭)남북경협 전문기업'²⁵⁾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남북경협 전문기업'에 자산을 양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이나 소득공제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해당 지출의 일정 비율을 세

25)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전략」, 2000.12

액 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과세를 면제한다.

넷째,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가 아닌 내국민 대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민족 내부 합의서로의 국제적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향후 남북교역이 확대될 경우 WTO나 제3국의 국제통상규범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제고를 위한 판로·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판로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기업이 현물로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판로를 중개하거나 알선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판로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역시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일정하게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교역 제품 가운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판매지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과 관련하여서는 중개, 알선 및 마케팅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류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도 남북경협사업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비 부담 문제는 앞으로 육상수송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상운송과 관련한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항만하역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물류비 부담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경영·기술교류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우선 남북한간의 '산·학·관등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모색함으로써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다. 다시 말해, 업종별 또는 사업별 대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품전시회 및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발표회 등을 통해 기술정보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남북 중소기업 경영·기술교류 지원센터'²⁶⁾ 설치 운영에 의한 기술교류·지원을 체계화하는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현지 기술상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한편, 북한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동 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 첫째, 기술협력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선 알선, 둘째, 대북진출 기업의 현지공장 또는 북한 기업소에 대한 전문 기술자 파견지도, 셋째, 북한의 고용인력의 훈련 및 양성 지원을 위한 연수 및 지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V.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세계가 무한경쟁의 다자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실리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고착화를 경계하고 남북한의 상생을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은 민간기업과 정부당국에 대한 이중적인 접촉을 취한 북한의 전략과 서해교전, 북핵문제 등 군사적인 돌발상황, 정몽헌 회장의 사망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3년 8월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관계에 본격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26) 조동호,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북한경제리뷰」, 2001년 3월호

중소기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그동안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산업 모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윈윈(Win-Win)전략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경협에서 대기업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 및 잠재력을 검토해보고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경협은 남북교역과 남북협력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는 간접 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북경협은 국제경쟁력 결정요소의 남북한간 보완, 통일비용의 절약,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교역현황을 살펴보면, 교역합계금액이 2002년 말 현재 6억4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1억5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경협은 물자교역분야에서 199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직 업종이나 품목 및 참여기업 등에 있어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협력사업분야는 접촉에 비해 그 사업의 성사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남북경협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투자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점과 북한의 남북경협 흡수능력이 낮다는 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미비와 북한경제의 낙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남북경협에서도 뿌리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치적·군사적 대립의 상황 속에서도 남북경협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향후에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핵심주체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이 있는 비중은 금액면에서 65.5%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경제체제의 상이성,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

템의 부재, 대남경협인식의 문제성, 수송체계의 미흡에 따른 물류비 과다 등 구조적인 제약성, 둘째, 북한의 경제침체 메커니즘에 따른 물자결핍현상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남북경협사업영역 확대의 제한성, 셋째, 남북경협지원 체계의 미흡과 금융지원제도의 미비로 인한 정책지원제도의 미비이다. 위와 같은 동향과악과 문제점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실제 북한진출기업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의 비교우위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의 역할로 첫째,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협기반 조성, 둘째, 「신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보장, 셋째,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정 기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사업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둘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셋째, 수익성 제고를 위한 판로·물류비 지원, 넷째, 경영·기술교류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서론에서 견지한 바와 같이 남북경협에서 대기업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 및 잠재력을 검토해보고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료를 획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남북한간의 비교우위요소를 검증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비교우위요소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일동,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KDI 북한경제 리뷰」, 1999. 4
- 김규륜,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서울통일연구원, 1999
- 김남두·이은우, 「남북경협의 성과」 2003
- 김명식,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통일경제 2001.7
- 김용철, “남북경제협력의 국내환경변동”, 통일연구논집, 2002. 10
- 김주영, 「한국의 대중국 투자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2. 8
- 김성훈, 「남북한 경제통합론-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2001
- 동명환,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환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2
- 문창수, 「중소기업의 대북 경협성향 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12
- 박성근,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 배삼재,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 배종열, 「남북경제교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0
- 신보현,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 윤희숙,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 조동호, “남북경협 부문 : 「신정경분리」 원칙을 통한 활성화”, 통일경제, 2003. 03
- 조동호,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북한경제리뷰」, 2001
-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6
- 조명철,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용균, 「한반도 통일비용 추계의 의미와 한계」, 외교통상부, 1997.9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절차 및 추진사례」 2003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전략과 활성화 방안」 1998.10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전략」, 2000.12
- 최수영, 「남북경협 모델 설정」, 서울통일연구원, 2000
- 최신림,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전략”,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1. 2
- 통일부, 「통일백서」,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2001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2002

행정자치부, 「북한의 기본현황」, 2001, 3

홍순직,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2003

ifes.kyungnam.ac.kr (극동문제연구소)

www.uniedu.go.kr (통일교육원)

www.unikorea.go.kr (통일부)

www.kinu.or.kr (통일연구원)

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 우 수 >

통일의 배경으로서의 국제협력 레짐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 관심집단 통일교육방안



고 려 대 학 교
영문학과 4학년 이 원 경

《 목 차 》

【요 약 문】

【본 문】

- I. 들어가며
- II. 통일을 위한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정의와 중요성
- III.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동질성과 통일인식
- IV. 한국문화 관심집단을 위한 통일교육
- V. 나오며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문]

통일의 배경으로서의 국제협력 레짐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 관심집단 통일교육방안

물리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 이념적으로 탈냉전 시대라는 변화는 국가 간의 교류와 인구이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국경의 개념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는 이념전쟁 기간동안 억제됐었던 민족이나 종교갈등이 폭발함과 동시에, 지구화로 인한 보편화 현상들이 함께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서 한반도는 최후의 냉전지대로 세계화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앞서지 못한 채 남북갈등은 물론 남남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안하고 비효율적인 대치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력들과 더불어 기존의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에 경도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법 또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집단은 한반도 통일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이들 사이에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정착된다면 통일을 전후해 남북간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포들로 대표되어 왔던 한국문화 관심집단은 남북간 교류협력에서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 남북문제에 관해 수십 년간의 대립상황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보다 한발 떨어져 객관적인 관점에서 동포애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의 현재 국적이나 언어사용, 혹은 혈연관계를 문제시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나를 따지며 배타시 하기보다는 이들이 모국과 다중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역할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이들의 민족의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문화 관심집단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매개체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냉전시대의 경직된 사고에도 물들지 않았고, 풍요로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사고에 집중하여 건전하고 흥미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이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해외 각지에 거주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적응력과 저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국 및 그들의 거주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겠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정부는 변변한 해외 동포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외국 국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은 550만명에서 5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이다. 이들 해외 한인과의 공동체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 차원뿐만 아니라 해외 한민족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그들의 현 거주국에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문화 관심집단이 거주국 국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각 국가에게 우리 정책의 의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목표는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국의 문화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포들이 각 사회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 거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수립 이후에도 외교적인 수사와 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주권침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본 문】

I. 들어가며

한국전쟁의 휴전 조약일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올해의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로 접어들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6자회담으로 좁혀졌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개국은 지역안정 유지에 공감하면서도 21세기 동북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남북의 긴장상태를 이용하면서 한반도에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한반도는 주변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안정화와 남북한 신뢰회복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강과의 획기적인 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기에는 많은 방법적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국적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한국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집단은 한반도 통일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한반도에서는 이산(離散)의 아픈 역사가 시작됐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생존을 위해, 혹은 이념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포들이 혈연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가장 길고 많은 인구의 이산역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졌고, 생존을 위해 전세계로 흩어진 그들의 인권문제가 다이스포라(Diaspora)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의 이민은 한반도 주변 4개 강대국에 집중되어 왔고,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강력한 교포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교포사회가 남북한 협력 및 통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설득력 있는 이론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5백여만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지만 각국별로 교포사회의 형성과정이 다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통일문제가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교포문제와 남북한 협력 및 한반도 통일문제는 하나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거주국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긍정적인 여론을 창출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냉전시대의 경직된 사고에도 물들지 않았고, 풍요로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사고에 집중하여 건전하고 흥미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이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한국문화 관심집단을 정의하고, 그들의 특징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연구성과들과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외 한국문화 관심집단을 범주화했으며, 두 번째로 두개의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모색해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안을 구상해본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해외교포사회를 연구한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공보처 등의 기존 조사연구와 학자들에 의하여 쓰인 논문을 분석했으며, 다시 이를 바탕으로 설문 및 인터뷰에 의한 경험적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측정 도구로 '두개의 한국 및 통일에 대한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인식'이란 주제로 6문항의 시안을 작성했다. 조사 연구는 한국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 산둥성, 러시아 생뻬쩨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모스크바, 일본 나고야, 미국 미네소타주, 캐나다 밴쿠버 등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 조사 지역에서 표집된 면담 인원 100명은 주로 10대와 20대로, 조사 연구는 2003년 6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직접 대면 및 e-mail을 이용한 설문과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조사를 도와준 면접조사

원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 사범대학 한국어과 강사 박세영, 나고야 대학 교환학생 김연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한국학 박사과정 Dafna Zur 등 3명이다. 소수의 인원으로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광대한 숫자의 한국문화 관심그룹을 대변하기란 어렵겠지만, 조사이후 상당기간 시일이 지난 공보처 등의 기존조사를 보완하는 의미로 실시했다.

II. 통일달성을 위한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정의와 중요성

1.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정의

탈냉전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경의 개념은 약화되었지만 민족의 개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지구 정반대편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자 특정 민족이 공간을 초월해 결집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한민족은 550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이다. 이들 해외 한인과의 공동체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 거주국에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민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론'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이다.¹⁾ 필자는 여기서 도구론적 관점을 지지하는데, 이는 민족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현한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성격 때문이다. 즉, 도구론은 주관주의적 민족이론과 연결되며, 이것은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든다고 믿는다.²⁾

1) Smith, A.D., "The Politics of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ism," Tim Ingold(e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 London, 1994

이 글에서 강조하는 ‘한국문화 관심집단’은 민족정체성, 즉 한민족의 성원이 되고자 하는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서는 범주이다. 일단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혈연이나 지연을 공유한 자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한민족 및 그 후세대 혹은 한민족공동체의 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즉 타민족으로 한민족의 배우자가 된 사람, 혼혈자녀, 입양아 등을 한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정태적이고 원초론적인 민족개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종래에는 한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논의는 주로 민족의 혈통, 역사, 문화의 ‘공유’ 및 ‘단일성’ 등 객관화된 특질을 근거로 한민족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그러나 이러한 배타성은 한국계 혈통을 가졌으나 거주국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한국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한국문화 재창조의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두 가지 악해(惡解)를 동시에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과 개인의 인권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한국과의 연관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교포들에게 혈연을 내세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진정으로 한국문화 및 통일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적극 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은 매우 미흡해서, 재외동포정책조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계 재외동포의 수는 화교와 유태인, 이태리, 인도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한국문화 공동체들의 유대관계는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화교와 유태인의 결속력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 현실이다. 2천 5백만의 화교는 이미 동남아에 ‘제2의 중국’을 만들었고, 미국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외

2)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3) 김일평, 「민족공동체 발전과 해외동포」, 『광복 50주년 기념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 번영의 한민족 시대 전망』, 통일원, 1995

국민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모두 1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깊이가 없고 지원분야도 문화와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규제위주이다. 한국정부는 현지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를 무리하게 꺼안으려 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⁴⁾ 때문에 정책도 극히 제한적으로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외동포라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재조직하고 활용하려면 좀더 적극적이고 열린 시야를 가지고 정보화 시대의 이점을 살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2. 현황

2001년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재외한인은 총 565만여 명으로 규모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다. 또한 이는 남북한 총인구의 8%에 해당하는 규모로 본국 인구 대비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⁵⁾ 오랜 단일민족의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민족은 최근세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해외에 거주하며, 그것도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된 민족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해외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한국이 이들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는 부수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었다. 특히 재미·재일 동포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에 비해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더욱 배타적이다.

4) 방수옥, 「남북한 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동북아연구』, 1997

5) 윤인진, 「해외동포의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통일로』 서울, 1999, p.39

<표 1> 재외동포 현황 총계(2001년 7월 현재)

지 역	1995	1997	1999	2001	백분율	전년비 증감률
아시아	2,723,920	2,801,383	2,811,300	2,670,723	47.24	-5.00
일 본	696,811	702,967	660,214	640,234	11.32	-3.03
중 국	1,940,398	1,985,503	2,043,578	1,887,558	33.39	-7.63
기 타	86,711	112,913	107,508	142,931	2.53	32.95
북 미	1,874,716	2,110,557	2,168,587	2,264,063	40.04	4.40
미 국	1,801,684	2,000,431	2,057,546	2,123,167	37.55	3.19
캐나다	73,032	110,126	111,041	140,896	2.49	26.89
중남미	90,034	98,852	102,806	111,462	1.97	8.42
유 럽	527,231	522,585	551,324	595,073	10.53	7.94
독립국가 연 합	461,145	450,104	486,857	521,694	9.23	7.16
기 타	66,086	72,481	64,467	73,379	1.30	13.82
중 동	9,356	7,442	6,326	7,208	0.13	13.94
아프리카	3,316	3,410	4,215	5,280	0.09	25.27
총 계	5,228,573	5,544,229	5,644,558	5,653,809	100	0.16

1) 독립국가연합(CIS)

한인동포들은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한 우즈베키스탄에 20만명, 알마아타를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에도 10만명이 넘게 살고 있다. 1, 2세는 주로 집단농장에 살고 있지만, 2, 3세는 1970년 이후 도시지역을 선호해 급격히 이농하고 있다.6) 이들에게 한국어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어서, 60세 미만의 한인들은 거의 우리말을 못하고 있으며, 한인학교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혼상제를 비롯한 통과의례나 세시풍속이 지켜지고 있고, 교육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CIS의 한인

6)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서울, 1998

들은 구소련 붕괴 이후 여러 개의 민족국가가 독립한 후 민족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민족 언어의 사용과 더불어 시련을 겪고 있다. 일부는 극동의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민족자치주 건설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이 문제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연해주 지역 한인들은 불안한 정치·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의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 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민족어의 구사나 민족문화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

2) 중국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최고의 교육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20여년의 이주과정 속에서도 민족어와 문화전통을 보존했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긍지, 농경생활 위주의 집거생활을 하면서 민족 학교를 세워 민족문화 보존에 힘쓴다는 사실, 그리고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한 중국당국의 정책의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들이 대거 도시로 진출하게 되면서, 인구의 분산, 조선족 집단거주지역 축소로 민족교육의 황폐화 등이 나타나 민족공동체의 존속 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⁸⁾

남북한이 무력대치를 하고 있고 상호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 교포들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여 남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조선족들의 남북한 상호방문은 자연스러운 정보유통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알려주고 있으며, 남한에 북한의 내부사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조선족들이 매개가 되어 제한적이거나 남북한간 상호이해가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7) 박동준,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교육방안」, 『한민족공영체』, 8호, 2000

8) 박동준, 앞의 논문

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유일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⁹⁾ 재중교포들이 중국내 긍정적인 친한(親韓) 여론을 불러 일으킨다면 통일을 앞당기는 국제레짐 구축이 매우 용이해질 것이다.

3) 일본

일본에는 1991년까지 약 70만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그 후 급격히 늘어난 귀화나 일본인과의 결혼 등으로 일본국적의 한인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국적의 한인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강력한 동화정책을 펴기 때문에 한인들은 많은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고, 직업선택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남북의 이념대결로 전체 한인사회의 분열된 단체 활동은 이들에게 또 다른 분단을 겪게 했으며, 일상생활과 교육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다. 민족학교는 남한계보다 북조선계가 월등히 많았으나 지금은 북조선계도 점차 위축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재일동포 취학자 100명 중 90명은 일본학교에, 나머지 10명은 민단계 민족학교와 조총련계 민족학교에 취학하고 있다. 일본계 학교에서는 우리 민족에 등을 돌리게 하는 동화교육이, 조총련계 민족학교에서는 친북교육이, 민단계 민족학교에서는 남한을 선전하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¹⁰⁾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 3세들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조국의 개념이 바뀌고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국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국적과 민족의 이분법적 구분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다른 재외한인에 비교해서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띤다.¹¹⁾

9) 방수옥, 「남북한 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동북아연구』, 1997

10) 이정훈·윤인진,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한인연구』, 제7호, 서울, 1998

11)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전기

4) 북미-미국 · 캐나다

재미한인사회의 경우 이민이 본격화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소규모 자영업 을 하던 1세 중심에서, 점차 1.5세와 2세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들 젊은 세대는 1세대에 비해 언어와 교육면에서 이민 사회에의 적응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민 1세와의 관계를 통해 민족의 전통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주류사회로의 진출과 더불어 모국과의 가교 역할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1.5세나 2세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주류세력에 대해서 주변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종차별 및 자아정체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¹²⁾ 재미한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이라는 이중정체성이다.¹³⁾ 이러한 인식은 소수민족에 대해 관용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수 이민 2세들은 남북한간 정치 및 경제적으로 남한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5대 5의 시각으로 대등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오로지 부모의 고향일 뿐, ‘조국’이 아니라는 미국적 시민의식과 미국인으로서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이 현실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하나의 중진국’과 또 다른 ‘하나의 후진국’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민 2세는 남북한 관계의 ‘당사자적 정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마치 베트남을 보는 눈으로 북한을 본다고 하겠다. 특히 이민 2세는 경우에 따라서 후진국인 북한을 새로운 ‘개방대상

사회학대회, 2003

12) 윤인진,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 『교포정책자료』, 제56집, 1997

13)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전 기사학회대회, 2003

국'으로 보며 남한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 관심국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⁴⁾

Ⅲ.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동질성과 통일인식

1.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일반적 의식구조

19세기말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해외이주사는 벌써 한 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구소련·일본·미주 등으로 이주한 한민족은 정착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점차 이질화되었다. 이들이 이주한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 사회분위기 및 주류 문화의 특성, 개별 이민자들의 이민동기 및 역사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러 국가의 이민자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 이질화된 해외한민족을 아우르는 공동체건설을 모색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또 이들이 공동체의 성원으로 소속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민세대가 흘러가고 이주국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된 관심사는 그 나라에 정착해 자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다. 언어가 이질화되고, 민족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시점에서 한민족 혹은 문화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삶과 관련해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모국이나 민족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이들의 이민자로서의 삶과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어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모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이민 후속세대에 이르러서도 지속되고 있으나 민족에 대한 관심은 단지 산발적이거나 정서적인 교류에 그쳐왔지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14) 김유남, 「미북관계전망과 재미교포사회의 역할」, 『새물결』 1995 p.30-39

한반도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서로 공존하고 갈등하는 상황인데, 해외 각지에서 다양화된 해외 한민족을 문화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질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단순히 한반도 위주의 시각으로 해외 한민족을 묶어내려 한다면,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조차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전통문화적 요소로 해외 한민족이 민족문화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와 해외 한민족 사이의 괴리감만 더 극대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 관심집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포들만으로 논의를 한정해도, 이들이 각 국가로 이주한 시기 및 이주요인,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이들 해외 한민족을 보편적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고국에 대한 관심도와 민족정체성이다. 이들이 처한 상황 및 조건에 따라 고국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국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묶는 하나의 '상징적 귀착지'의 역할을 한다.¹⁵⁾ 또한 이들의 이주경험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고국과 동포에 대한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¹⁶⁾

즉, 한인들이 정착한 나라, 개별 이민사의 세대는 다르지만 고국이나 민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광복50주년 한민족공동체 의식조사』 17)에서 보여지듯이 해외 한민족들은 고국의 사건이나 고국의 일에 상당한 관심을 알 수 있다.

15) Gupta, A., Ferguson, J.,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Vol. 17, 1992

16) Veer, P. van der, "Introduction: The Diasporic Imagination," *Nation and Migration: The Politics of Space in the South Asian Diaspor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17) 공보처에서 실시한 조사로,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한국 성인남녀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파악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한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외동포의 샘플로는 해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의 만 20세 이상의 동포가 각국별로 400명씩 조사되었다. 공보처, 1995

<표 2> 고국에 대한 관심도

문: 00님은 대한민국(남한)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등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사건, 사고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결 과	미국(N=400)%	일본(N=400)%	독립국가연합(N=400)%
매우 관심이 많다	52.0	50.2	24.5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	32.0	40.1	57.1
별로 관심이 없다	8.3	7.4	13.2
전혀 관심이 없다	6.5	0.2	4.7
모름/무응답	1.2	2.0	0.5
계	100.0	100.0	100.0

자료: 공보처, 위의 책, p.204

<표 3> 심리적 동일시-한민족 느낌이 드는 정도

문: 00님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한민족(고려인/한인)이라는 생각을 어느정도 자주 하십니까?

결 과	한국(N=1000)%	미국(N=400)%	일본(N=400)%	독립국가연합(N=400)%
매우 자주 한다	17.6	73.6	35.8	40.9
가끔 한다	57.9	21.4	45.8	42.1
거의 하지 않는다	21.8	3.2	12.2	7.5
전혀 하지 않는다	2.7	0.8	6.2	1.5
모름/무응답	0.0	1.0	0.0	1.5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보처, 위의 책

반면, 혈연의식은 한국 성인이 높은 비율(88.1%)로 나타나는 반면에 미국(58.8%)이나 일본(58.6%) 동포에게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동포들의 경우 한민족이라는 동일시 정도가 95.0%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민족개념이 혈연공동체와 일치하지 않음을 단편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4> 혈연 의식

문: 00님은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북 분단이 지속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남북 주민 모두 우리 형제자매이다.

결 과	한국(N=1000)%	미국(N=400)%	일본(N=400)%	독립국가연합(N=400)%
매우 자주 한다	27.3	39.6	23.3	49.2
가끔 한다	60.8	19.2	35.3	39.8
거의 하지 않는다	10.4	14.4	28.2	5.2
전혀 하지 않는다	1.0	23.7	8.0	3.7
모름/무응답	0.6	3.0	5.2	2.0
계	100.0	100.0	100.0	100.0

따라서 위에서 강조했듯이 단순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민족의식 등 추상적 이념만을 가지고는 실질적 공동체를 형성하기는 힘들다. 너무 강력한 연대감보다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것의 구체적인 기능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부르짖는 것은 정치적 구호로 오인될 수도 있다. 해외 각지에 퍼져있는 한민족의 각기 다른 이민사와 현재 거주국에서의 특수한 존재 등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와의 교류에서 어떤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공동체 형성을 더 앞당길 것이다.

한편 교포사회의 통일관 및 대북인식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공개된 결과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 제한된 지역 내의 교포들을 상대로 대북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재미 한국계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교포사회가 형성된 대도시 현지대학의 연구과제로 부분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김유남 교수가 미국내 교포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이뤄진 조사를 종합한 바탕 위에 몇가지 흥미있는 가설을 첨가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 제시되는 가설들은 물론 검증과정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망연한 상상력에 의존했다기 보다는 여론주도층(Opinion Leaders)라고 할 수 있는 재미 학자와 한인사회의 리더급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편의상 여기서 3쌍(6개)의 가설기준, 즉 이민 1세와 이민 2세, 교포지식층과 일반교포층, 그리고 북한출신 교민과 남한출신 교민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몇 가지 가설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상당수의 이민 1세에 해당하는 재미교포들은 남한을 '조국'이라는 전제 하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한이 공존하는 엄연한 두 개의 정부라는데 이의가 없으나 아직도 남한에 보다 큰 비중을 두며 이를테면 남북한에 대한 선호도를 최소한 6대 4의 비율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상당수 이민 2세들은 정치 및 경제적 우세가 남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5대 5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민 1세들도 미국적 실용주의와 개방사회에 익숙해짐으로 해서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을 대등시 하는 경향을 유지한다고 본다.

2. 젊은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통일의식조사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한국문화, 나아가 한국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2~3년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류(韓流)현상이 나타나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규모와 내실 양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흔히 이들은 한국의 대중적이고 피상적인 문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필자의 경험-미국의 10대들에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여주고 토론-을 비추어 볼 때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으나 충분한 기회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10~20대로 이루어진 1백명의 표본집단을 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필자의 직접경험과 연관되어 있고, 응답자가 소수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층면접법을 병행했다. 우선 CIS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 우즈베키스탄에 잠시 체류했고 2003년 8월에는 모스크바와 썬베제르부르크를 방문하게 되어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학업을 함께 하거나 자원봉사를 했던 10대들을 대상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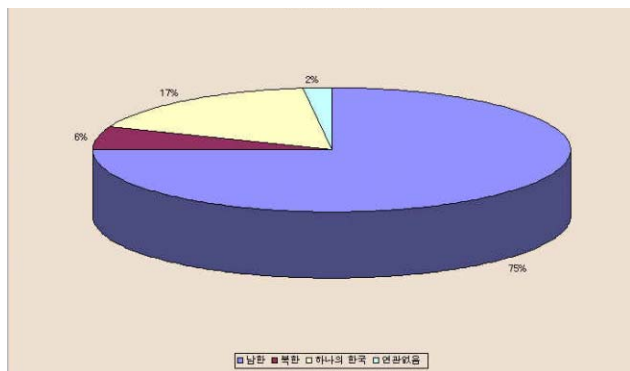
<표 5>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성별	남	47명 (47%)
	여	53명 (53%)
연령	10대	36명 (36%)
	20대	58명 (58%)
	기타	6명 (6%)
국적국	러시아	15명 (15%)
	중국	20명 (20%)
	일본	20명 (20%)
	미국	25명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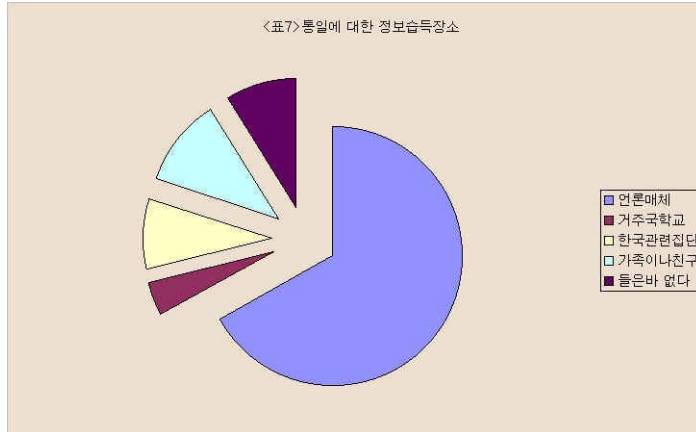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국적국	캐나다	10명 (10%)
	영국	3명 (3%)
	프랑스	1명 (1%)
	스웨덴	1명 (1%)
	네덜란드	1명 (1%)
	태국	1명 (1%)
	말레이시아	1명 (1%)
	싱가포르	1명 (1%)
	이스라엘	1명 (1%)
	조사지역 및 방법	<러시아> 생 삐 제르부르크 국립대학 동방학부 한국어과
모스크바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7명 (7%) 3명 (3%)
<중국> 산둥성 옌타이 사범대학 한국어과		20명 (20%)
<일본> 나고야 대학		12명 (12%)
히라키자-일본 아마추어 극단		3명 (3%)
일한시민네트워크		5명 (5%)
<미국> Concordia Language Village		15명 (15%)
Ohio State University		10명 (10%)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및 밴쿠버 지역		7명 (7%) 3명 (3%)
University of Toronto 및 토론토, 키치너 지역		10명 (10%)
<기타국가> e-mail 및 HPAIR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혈연관계	부계, 모계 모두 한국계	29 (29%)
	한쪽만 한국계	21 (21%)
	입양	11 (11%)
	혈연적 연관 없음	37 (37%)
	무응답	2 (2%)
직업	중학생	4 (4%)
	고등학생	10 (10%)
	대학생	52 (52%)
	대학원생	19 (19%)
	어학연수생	6 (6%)
	사무직	2 (2%)
	무직	1 (1%)
	기타	6 (6%)

특히 미국지역 중 미네소타에 위치한 Concordia Language Village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어 교육캠프로 입양아를 비롯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한국문화 관심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조사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한 일본의 '히라키자'는 일본 현대사의 과오들을 반성하는 주제극을 올리는 아마추어 극단이며 '일한 시민네트워크' 역시 한국역사와 정치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타겟 집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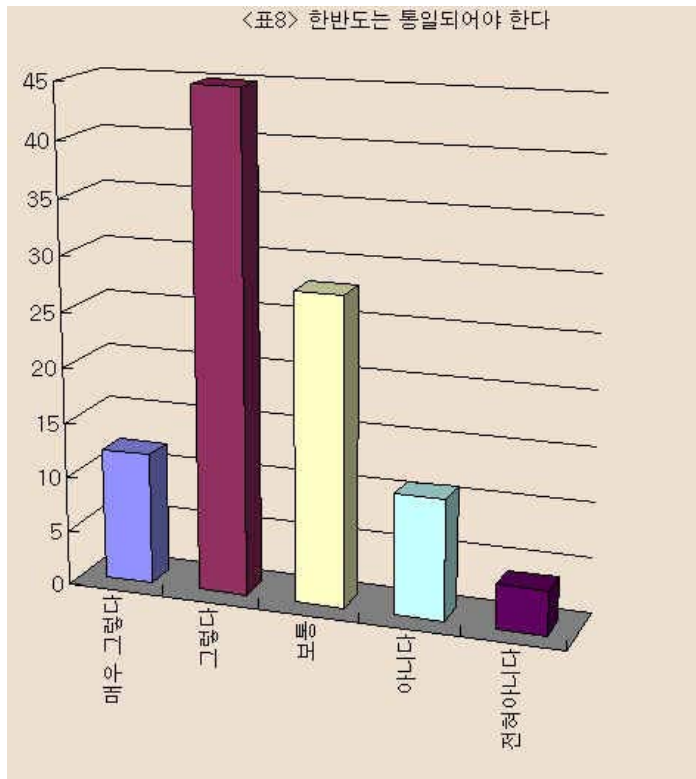


남한과 북한 중 어느쪽과 더 친밀한 연관성을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75%)가 남한이라 답했다. 특히 아직까지 공산권 국가인 중국에서도 남한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중국은 지역차, 개인차가 크지만, 조사자였던 박세영씨는 지금까지 그가 접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남한(한국)을 알았고, 그 이전에는 조선(북조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으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이웃의 형제국인 조선(북한)을 도왔다-라고 칭하고 정식 역사에서 가르쳐왔기에, 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관점은 북한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의미하였다.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 고령자일수록, 혹은 당원일수록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된 설문대상자였던 대학생들이나 도시 중산층들은 최근의 한국제품(삼성, LG)과 한류의 영향으로 남한에 훨씬 많은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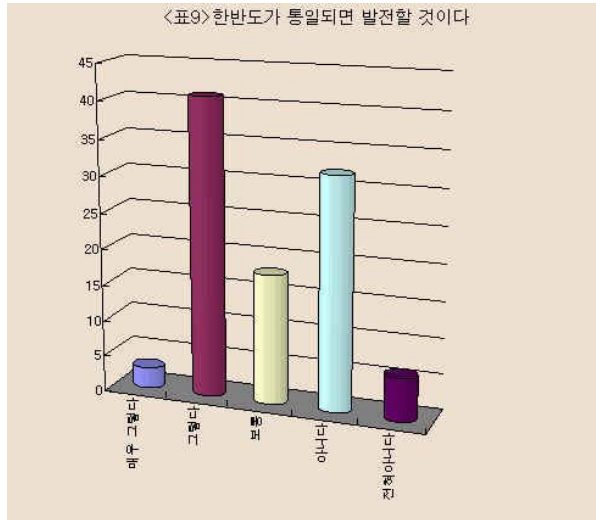
한편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91%)가 들어보았다고 답했고, 압도적 다수가 언론매체(67%)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지역 응답자들에 따르면 근 1~2년 동안 일본 언론들

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북한문제에 쏟고 있다고 답했다. 북핵문제나 남북자문제가 일본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점도 있겠지만, 현지학교나 한국인 집단, 부모나 친구 등이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교육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지역의 찬성률이 높아 눈길을 끌었는데, 면담조사결과 이것은 중국의 이념교육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영씨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양안문제를 꺼낸다. 즉, ‘한국과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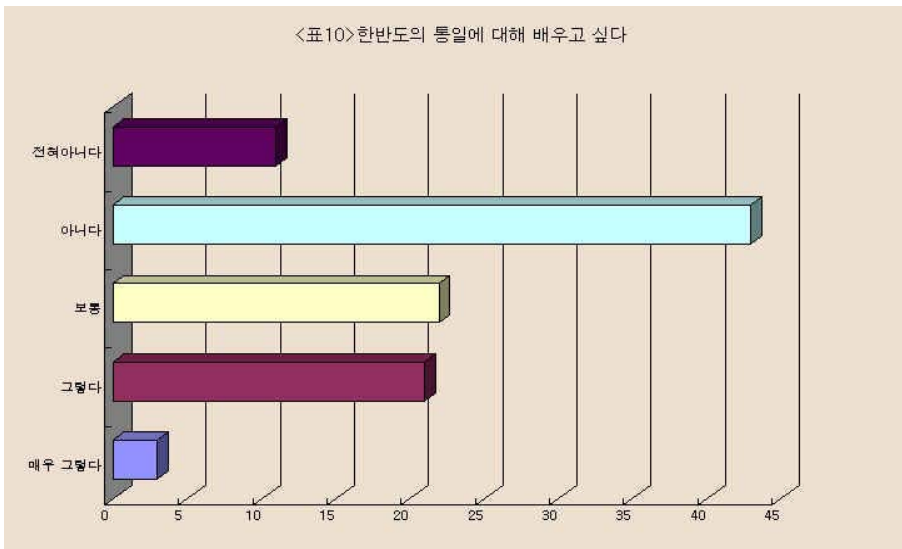
은 통일되어야 하지? 마치 중국과 대만처럼' 식으로 묻는 것이다"라 밝혔다. 이런 논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중국 대중들이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에 길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유럽지역 응답자들이나 비한국계 응답자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통일이 가져올 혼란과 고비용”을 내세우며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비교적 산업화의 진전이 느린 중국과 러시아 지역 응답자들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류도 늘어나고 (특히 러시아 지역 응답자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자원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역사나 통일에 대해 배우고 싶은 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수(5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전반에 관심이 없는 최근 젊은이들의 추세라 파악할 수 있다. 저연령으로 내려갈수록 한반도의 역사나 전통 문화보다는 한국 유학생들의 패션이나 한국 연예인·드라마·대중가요 등에 주

된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국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한국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분단이 낳은 병역의무의 부담이나 한국내의 갈등 상황 등을 녹여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IV. 해외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통일교육

과거에는 장소나 시간의 공유가 공동체형성의 전제조건이 되었지만, 현대에는 장소를 초월하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과 빈번한 국경간의 이주로 장소의 공유 혹은 지리적 국경이 공동체형성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시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 도처에 흩어진 한민족의 교류와 민족공동체 건설을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민족간의 교류나 접촉의 증가가 단순히 한민족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해외한민족과의 교류, 접촉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정책과정에서 이질화된 문화, 언어, 생활방식과 사고관 등 변화된 부분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때 좀더 안정적인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현황

1) 정부의 해외동포정책 및 문제점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건국 초기에는 해외동포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과의 경쟁 때문에 해외동포의 친북화, 반정부화를 저지하기 위해 해외동포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동포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출발했고, 해외동포가 거주국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적응을 하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부의 해외동포정책은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빨리 고쳐야 할 점은 정부가 해외동포를 남북대결, 정권유지, 인력과 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해외동포를 친남단체와 친북단체로 구별해 친남단체는 재정지원, 모국 방문, 평통위원직 등으로 친정부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친북단체나 반정부단체는 감시, 통제, 탄압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로 인해 해외동포사회는 거주국에서의 참정권, 고용차별 등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에 역량을 집결해 공동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⁸⁾

18) 조혜영, 「해외한민족 문화공동체 건설 모색을 위한 시론」, 『정신문화연구』, 2001, 제24권 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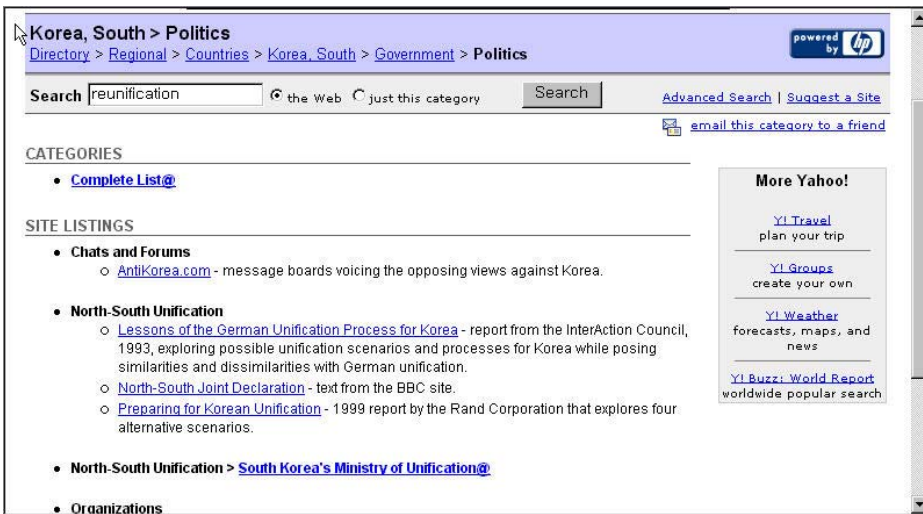
2) 민간단체의 한국문화 홍보 및 통일교육

한국의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야후,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을 검색한 결과 ‘통일’, ‘통일교육’을 검색했을 때 대략 50여개의 결과가 도출된다. 이들 대부분이 개인홈페이지로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어 운영하는 소규모의 자료실이었는데,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료의 질도 교과서나 기사를 요약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아쉬웠다.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대학부설 연구소들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 이 사이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링크를 걸어놓은 것은 좋은 시도이다.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진 집단끼리 자료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연대를 맺는다면 중복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 보다 내실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영어사용자가 사용하는 검색엔진 야후 (<http://www.yahoo.com>)에서 ‘reunification’으로 검색할 경우, 한국어 ‘통일’ 폴더로 자동 연결되는데, 새로 연결된 폴더 내에는 어떠한 영어 정보도 주어지지 않아 자료검색이 어

럽다.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도 영문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부 영문 사이트도 그날의 뉴스를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 정부주도 혹은 정부지원 프로젝트를 구성해 통일문제를 한국문화와 역사에 녹여가며 설명해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검색엔진에서 이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기타국의 예19)

유대인은 미국에 580만명, 이스라엘 본국에 480만명, 유럽에 150만명, 구소련에 200만 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민성(Ministry of Immigration)과 외무성의 세계유대인국(World Jewish Affairs Division)을 통해 해외 유대인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친가, 외가, 조부모 중 어느 한쪽이 유대인이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

19) 박승록,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경제권 구축」, 『한민족 공영체』, 8호, 2000

계 이주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이 이주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 유대인들은 세계유대인총회(WJC), 세계시오니스트(WZO), 유대인협회(JA)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본국에 대한 경제지원이 활발한데 Unitid Israel Appeal, United Jewish Appeal 등 200여 개의 모금조직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을 하고 있다.

세계 13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숫자는 약 3,000만명에 이른다. 대만의 2,100만명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거대한 경제력으로 동남아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화교들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화교조직은 9,500여 개가 되는데, 아시아에 6,500개, 미주에 약 2,500개가 있다. 현재 대중화 경제권은 대만의 제조기술, 싱가포르의 마케팅 및 서비스, 중국의 노동력, 북미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전 세계 화교자본과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한 경제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화교들은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등 전 세계의 중국계 기업간 기구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운영해 화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화교들 사이의 경제권 형성 실태를 보면, 1978년 중국의 개방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화교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봉쇄를 탈피하기 위해 전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또 화교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도 조세감면 등 독자적인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198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약 700억 달러의 화교자본이 유입되어 전체 외자유입의 2/3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화교는 중국에 10만개 이상의 합작회사를 설립해 경영기술과 자본을 이전했다.

3.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 - 웹공동체 구축을 중심으로

해외 한민족이 한국 문화를 인식하는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미한인 2세의 경우 이들이 사는 지역, 한인에게 노출되는 정도, 한국방문 경험, 가족생활의 방식, 부모의 자녀교육관 등에 따라 한국적인 것을 인식하는 정도는 다양하며,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문화도 동일하지 않다. 일부는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친척 등이 이민 당시에 가지고 온 관습이나 태도 등에서 한국적인 것을 추론한다. 한편, 한국적인 것은 세대간의 전통문화의 계승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동시대의 문화적·인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고국의 문화적 요소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민사회에 들어간다. 패션, 음악, 물질문화 등은 유학생이나 최근의 이민자들을 통해 입수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화나 가요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재미한인 2세들은 ‘한국적’ 문화 요소들을 접하게 된다. 재미한인학생들은 미국의 가수 못지않게 한국의 신세대 가수들을 좋아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한국 대중가요를 즐겨 듣고 있다. 나아가 한국 가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된다. 이처럼 뚜렷한 민족의식 없이 한국적인 문화요소들을 즐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내용은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나아가 개별 가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국 민족문화적인 요소의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한국적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그러한 다양성을 통해 한민족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일이다.

연해주 고려인은 한국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그들에게 “귀하는 한국 정부가 연해주 고려인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

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물었다. 조사 결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영주권 및 이중국적 허용’(26.0%), ‘한·러 경제협력 확대’(20.7%), ‘고려인 교육·문화센터 지원’(15.1%), ‘한국방문 기회확대’(11.2%),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의 확대’(10.5%), ‘고려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8.1%), ‘자매결연’(6.7%), ‘기타’(1.4%) 등의 순이다.

변인별로 살펴볼 때, 최우선 지원분야가 약간 다른 경우도 있었다. ‘10대’(22.6%)와 ‘20대’(18.4%)는 ‘고려인 교육, 문화센터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소도시’ 거주 고려인은 ‘한국방문 기회확대’(28.6%)를 최우선 지원분야로 응답했다. 따라서 연해주 고려인들에게 한국 영주권과 이중국적 허용도 중요한 문제이나 현지 주민이 당장 바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문화 사업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교육과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외동포 초청행사 확대’(31.6%)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외 ‘한국의 라디오나 텔레비전’(25.3%), ‘국내기업의 현지설립으로 인한 접촉기회 확대’(19.3%), ‘한국 신문, 잡지, 서적 등 현지 보급 확대’(11.6%), ‘기타’(6.7%), ‘인터넷 활동’(5.6%)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1) 민족 관련 사회교육기관의 설치 및 지원

특정 문화를 익히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어교육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주말학교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글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통문화 교류센터로서의 교육문화원도 설치·지원하도록 한다. 최근 들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으며,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는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문화 관심집단 구성원들은 이 기관에서 전통 문화를 전수받으며 민족의 긍지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2) 모국연수 수학기회의 확충

이민후속세대를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국과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 관심집단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국수학 프로그램이 있다.

모국수학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 프로그램과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설치할 수 있다. 이미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국내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 프로그램은 단순히 언어나 국사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들이 모국수학을 계기로 장기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함께 모국수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한국 도우미 학생들과의 장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해 한국을 떠난 이후에는 인터넷상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장기 프로그램은 범한민족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민족교육과 민족 사회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사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연수협력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모든 학생들에게 한국방문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경제적·시간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교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각부문에서 개방·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제공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국가와 각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해 참여의사와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내 연수전문가 파견, 방학기간을 이용한 출장연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 교재와 각종 자료의 정기적 교류

해외 각국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본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지 한국문화 교육기관들은 여전히 최신식의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료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과학서적과 잡지, 민족 관계자료, 어린이 동화와 잡지, 위인전 등의 소설, 학습참고서, 지능개발 프로그램, 아동 놀이자료 등은 물론이고 최신 음악 CD나 영화 DVD등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웹공동체 구축

비용과 파급효과를 따져볼 때, 통일 및 문화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웹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모국을 이해하고 거주국의 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통신교육망을 구축하고 각종 관련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한국문화 관심집단의 민족 연대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황에 직접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한국인과 직접 교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규 교수는 한반도 밖의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를 한국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하려면 의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도적 전략으로 제안되는 몇 가지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국제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문화적 유대를 구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터넷망 구축을 들고 있다. 한민족 홈페이지를 통해 누가 어디에서 요구하든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조직과 단체가 망라되고 이들의 구성과 활동사항을 언제나 알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는 영어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늦게 시작하는 만큼 내실 있는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 세계에서 한반도와 국제

정세관련 자료를 얻고자 하는 청소년층이 모두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 것 중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강화이다. 2001년 총선과 2002년 대선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대 초반층의 투표권 인식과 선거율 증진을 위해 인기가수 장나라 양이 부른 로고송과 출연홍보물을 미니 CD로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좀더 친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화방식의 홈페이지 운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인터넷 통일 모니터요원을 인터넷 통일교육의 교육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통일부도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등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들과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경비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이트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갤러리에 '한민족의 삶'이란 코너가 있다. 이 코너는 각 나라 한민족과 관련된 사항을 영상과 함께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한민족으로서 동질감과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유대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예를 본받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 자료 코너는 통일부에서 만든 것 뿐만 아니라 KBS, MBC, EBS 등에서 만든 것을 재편집하거나 축소 요약본으로 재구성하여 게재 또는 이들 방송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목록의 제목만 게재한 이후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방송국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학통일연구 코너의 자료실을 강화하고, 대학통일관련 강의나 강의교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과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실제 대학강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는 대학교수의 대표적인 통일관련 강의가 있을 경우 본 코너에 강의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²⁰⁾

V. 나오며

민족이나 인종적으로 다양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다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이해의 부족은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인이 해외동포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모국인 한국에 와서 오히려 한국인들의 배타적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다. 한국문화 관심그룹을 포괄적인 의미의 한민족공동체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적 동질성이나 혈통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존의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개념은 민족문화와의 유대가 강한 1세나 2세에게는 적합할지 모르나,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고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동화된 이민 3세, 4세에는 적합하지 않다.²¹⁾ 따라서 혈통, 언어, 문화요소의 공유 등 동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공동체 건설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민자가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고국과의 유대를 끊은 사람들로 개념화되었으나, 근래에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을 해도 지속적으로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개념화되고 있다. 더욱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들 이민자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외교 및 무역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고국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²²⁾ 따라서 이민자집단(Diaspora)은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회와 그들의 고국에 대해 이중적 관계 혹은 이중의 충성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²³⁾ 이민자들은 고국과 그들의 현재 주재국을 연

20) 김성윤, 「웹을 통한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2002, p.5-28

21) 윤인진,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공동체, 민족번영 새모델」, 『통일한국』, 2000

22) Portes, A., Rumbaut, R.G.,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23) Lavie, S., Swedenburg, T., "Introduction", *Displacement, Diaspora, and Geographies of Ident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14

결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은 다중정체성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질 때, 재외 동포는 한국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국과 여러 형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민족의 향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정부는 변변한 재외 동포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교포의 세계시민화'를 추구하는 한편 본국과 거주국간 교류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기본목표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교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외국 국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쓸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쓰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에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문화 관심집단이 거주국 국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각 국가에게 우리 정책의 의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목표는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국의 문화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포들이 각 사회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 거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수립 이후에도 외교적인 수사와 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주권침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가 화교를 대하는 정책의 범위에서 우리정부도 대조선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가 재외동포법의 시행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 『광복50주년 한민족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1995
-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
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서울, 1998
- 김성운, 「웹을 통한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2002, p.5-28
- 김유남, 「미북관계전망과 재미교포사회의 역할」, 『새물결』 1995 p.30-39
- 김일평, 「민족공동체 발전과 해외동포」, 『광복 50주년 기념 세계 한민족 통
일문제 토론회, 통일 번영의 한민족 시대 전망』, 통일원, 1995
- 박동준,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교육방안」, 『한민족공영체』, 8호, 2000
- 박승록,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경제권 구축」, 『한민족 공영체』, 8호, 2000
- 방수옥, 「남북한 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동북아연구』, 1997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1999
- 윤인진,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 『교포정책자료』,
제56집, 1997
- _____, 「해외동포의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통일로』 서울, 1999
- _____,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공동체, 민족번영 새모델」, 『통일한국』, 2000
- _____,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2003
- 이정훈·윤인진,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한인연구』, 제7호, 서울, 1998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남북한 화해 협
력 시대 러시아 연해주 한인 공동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
일교육위원회, 2002

조혜영, 「해외한민족 문화공동체 건설 모색을 위한 시론」, 『정신문화연구』, 제24권, 2001

한겨레신문 한겨레네트워크 동포문제 전문가 좌담

Gupta, A., Ferguson, J.,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Vol. 17, 1992

Lavie, S., Swedenburg, T., "Introduction", Displacement, Diaspora, and Geographies of Ident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14

Portes, A., Rumbaut, R.G.,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Smith, A.D., "The Politics of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ism," Tim Ingold(e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 London, 1994

Veer, P. van der, "Introduction: The Diasporic Imagination," Nation and Migration: The Politics of Space in the South Asian Diaspor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부 록】

설문지 (한글)

※ 다음 물음에 대해 하나의 답변을 고르세요.

1. 나는

- ① 남한
- ② 북한
- ③ 하나의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느낀다.
- ④ 아무 곳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2. 나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하여 들은 적

- ① 있다. (2-1로)
- ② 없다.

2-1. 어떤 경로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까?

- ① 언론매체를 통해
- ② 내가 거주하는 국가의 학교에서
- ③ 한글학교나 교회 등 한국 관련 집단에서
- ④ 친구나 가족을 통해
- ⑤ 기타 ()

3. 한국이 언제, 왜 분단됐는지 알고 있다.

- ① 예 언제? ()
 왜? ()
- ② 아니오

4. 나는 한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한국이 통일되면 더욱 발전할 것 같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싶거나 교육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설문지 (영문)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It is meaningful to know about young people's idea who are interested in Korea and its culture. To let me know each others better,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s.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for **the article about Korean reunification**. The work based on your responses will be used only for the articl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ny help,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Contact Wonkyung Rhee: 82-16-397-3050, circlek2@netian.com

1. Have you heard about Korea and its culture? If you did, do you feel involved in

- ① South Korea
- ② North Korea
- ③ Just Korea (do not want to divide two different states)
- ④ do not feel involved Korea

2. Have you heard about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 ① Yes (if you pick this, please go to the question 2-1)
- ② No

2-1. If yes, where did you get that idea?

- ① from mass media
- ② from the local school
- ③ from Korean communities (Hangul school, church, etc)
- ④ from other family members or friends
- ⑤ etc (_____)

3. Do you know when and why Korea divided?

① Yes (if you pick this, please answer

When _____ and

Why _____)

② No

4. Do you think Korea must be reunited?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5. Do you think Korea will develop if reunited?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6. Do you want to know some more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Information about yourself

1. Gender ① male ② female

2. Age (_____)

3. What is your nationality? (_____)

4. Have you ever lived with any Korean family member?

① Yes, my parents have Korean heritage

② Yes, one of my parents has Korean heritage

③ No, even if I have Korean heritage, I have never lived with them.

④ No

< 장 려 >

남북한 관광교류가 대학생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 주 대 학 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 김수현

관광경영학과 2학년 장미화

《 목 차 》

【요 약 문】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조사 설계와 분석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문】

남북한 관광교류가 대학생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단된 이후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염원이었으나, 그동안 남북 사이에는 교류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 이후 금강산 관광교류가 성사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남북통일은 남북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민족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소원할 때 가능하다.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남북한 관광교류를 통한 통일외식의 연구는 5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누적된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북관광교류가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실증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앞서 제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통일외식의 구성요소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남북한 관광교류가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조사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 등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조사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은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은 방학 중 수도권과 충청권의 5개 대학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참여유무에 따라 2개의 모집단을 설정하고, 성별, 군복무여부, 나이, 학교 내·외의 통일관련 교육여부 등의 표본을 변수로 하여 표본을 다시 소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소집단간 설문문항에 대한 유의수준을 분석하였다. 각 소집단간의 유의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나이에 따른 분석은 유의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분석결과를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의 여부와 학교 외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의 여부의 분석결과 유의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분석결과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 금강산관광이 통일의식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집단간의 유의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첫째,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통일관련교육의 여부나 군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광교류는 대학생 통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는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관계없이 다른 경우의 소집단들보다 미미하지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의 주체로서 군사조직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어 군복무 중에서 자주국방의 주체로서 안보의식과 함께 균형 잡힌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통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고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몇몇 변수에서 미미하지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관광이라는 경험을 통하여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식할 수 있는 부분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자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공간이 전국이 아닌 수도권지역과 충청권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고,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동일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조사하여 의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좀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연구의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본 문】

I. 서론

1.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 동안 통일은 한반도의 민족적 과제로서 남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 한반도가 과거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렇다 할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되어 금강산 관광교류가 성사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남과 북을 오가며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남북한간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통일성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민족적 열망이 극대화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성취를 위해서 마땅히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남북한교류협력은 경협외의 한계를 벗어나 5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누적된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광교류를 통한 통일의식의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관광교류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기본적인 연구의 개요를 제시하였고, 2장은 실증적 연구에 앞서 통일과 통일의식의 개념 및 남북관광교류의 의의와 현황을 고찰하고 남북한 통일외교와 독일 통일에 관한 선행연구를 함으로써 이론적인 연구를 하였다. 3장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조사의 설계와 설문지 구성, 자료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으며, 4장에서는 조사한 설문자료의 실증 분석을 하여, 5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지역, 금강산관광 루트를 주 연구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6월말부터 8월말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자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공간이 전국이 아닌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고,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동일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조사하여 의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좀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연구의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통일과 통일외교의 이론적 배경

1) 통일의 개념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그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광의에서의 통일은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 제도, 질서 등

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인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평화의 기반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에서의 통일은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 남북한은 모두 통일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남북한 사람들이 바라는 통일의 형태는 달라졌다. 초기에는 남북한 사람들이 국토만 나뉘어져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삶의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국토통일'을 목표로 했으나,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남북한은 두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국가통일'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통일의 개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김경웅은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¹⁾ 김재희는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국토와 제도, 민족이 모두 참다운 하나로 거듭날 때 그 목적과 내용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²⁾ 또한 이재훈은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³⁾ 마지막으로 통일부에서는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한다.⁴⁾ 물론 여기서의 통일의 의미는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다른 역사를 만들어 온 남북한이 다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하나의 국체를 갖는 의의뿐만이 아니라, 동질성을 회복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만든다는

-
- 1) 김경웅, 남북한 사회 문화 통합의 전략적 접근, 『북한 정치와 대북 정책』, 한국정치학회추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9, p.2-3.
 - 2) 김재희, 청소년의 통일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5.
 - 3) 이재훈, 고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p.8.
 - 4) 통일부,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p.13.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의 기반을 갖는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 문화 안에서 남북의 주민들이 ‘한민족, 한국민’임을 느낄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남북한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법의 차이에 있다. 먼저 남한의 경우는 기능주의적 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능주의란 주로 국가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제시된 서구의 국제 정치관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하나로 유럽 지역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주권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갈등·대치 상태를 해소하여, 여러 나라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⁵⁾

이러한 기능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두 나라를 통합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선통합 후통일’의 원리다. 물론 통합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접 통일한 예멘의 경우는 통일 이후 내전을 겪었고, 구소련의 경우는 러시아에 의해 강압적으로 합병된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 붕괴가 한참일 때 다시 분열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통일에 앞서 ‘통합’의 단계를 거쳐야 안정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구조주의적 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조주의적 통합론이란 두나라의 통합에 앞서 당사국간의 정치 구조·제도가 하나의 단일체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통합되면 교류·협력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이념적·정치군사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때문에 국가 구성원간의 충분한 합의보다는 정치력에 의해 결정되는 ‘위로부터의 접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연합개념보다 연방개념을 지지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사회주의의 한반도 전체 실현이라는 북한 체제의 특성때문이다.⁶⁾ 이렇게 통일을 이루자는 목표는 하나지만 세

5) 정진위, 북한-남북한 관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p.143.

부적으로 알아보면 방법이나 개념들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가 더욱 힘든 것이다.

2) 통일 의식의 개념

통일 의식이란 개념은 다른 국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의 개념과 의식의 개념을 연관시켜 도출해 볼 수 있다.

의식이라는 개념은 먼저 철학에서는 인식론적 내지 현상학적 개념으로서 인지 작용 자체나 그 내용을 지칭하는 의미였고 심리학에서는 심리현상의 일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의식이란 개인의 내적인 세계, 즉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를 종합해 보면 통일 의식의 개념은 우리 민족 각 구성원들이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실태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성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의식은 통일 당위성에 관한 의식, 통일 당면 문제에 관한 의식, 통일 대비에 관한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통일 당위성

통일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최근까지도 정부나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대부분으로 민간적 차원에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적대적인 정부가 분단을 권력 공고화 혹은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여 통일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는 통일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6) 정진위, 전게서, p.151-152.

7) 이재훈, 전계논문, p.9.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정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통일 신라 이후 1300여 년동안 유지되어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⁸⁾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이미 단일 민족들 또한 세계 각지에 퍼져 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곳곳에 퍼져 살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둘째,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더 이상 지속 시켜서는 안된다. 남북 분단의 고통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산 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남북 주민 모두가 이산 가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루지 않더라도 이산 가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셋째, 무한 경쟁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분단 비용을 생산 및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넷째, 반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분단 체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분단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역사적 사건도 원인제공자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자가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분단이 되었건 분단 체제의 극복은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새롭게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것보다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갈수록 남한이나 북한 모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따로 생존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하

8) 이현근, 통일, 민족주의 그리고 '제3의 길', 신지서원, 2001, p.25.

나의 나라, 민족으로서 힘을 모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동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데에도 한반도의 통일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우리 민족, 국가의 생존에 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개인적 이득보다는 내 자식, 내 후손들을 위한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통일 당면 문제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 통일을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기 따로 살아온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많은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첫째, 국가명이나 국기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⁹⁾ 현재 두 국가는 다른 국가명과 다른 국기를 갖고 있는 가운데 간혹 국제 경기에서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을 단일기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한의 말은 본래 하나였으므로 현재도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오랜 기간 단절된 가운데 달라진 뜻과 말이 많고, 표준어를 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교육 제도의 문제이다. 통일이 되면 많은 제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제도의 문제다. 남북한은 역사를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너무 다르고, 특히 일제식민지 부분은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넷째, 법률 제도의 문제이다.¹⁰⁾ 제도적 문제 중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법률제도다. 가장 먼저 국가 보안법은 철폐될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9) 강만길,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지영사, 2000, p.205.

10) 강만길, 상계서, 2000, p.206.

장기적으로는 법률을 통합할 지라도 당장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북한에 상이한 지역 법률과 연방 법률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도 있다.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로 변화되면서 적용하는 문제가 그것이다.¹¹⁾ 이 문제는 잘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몸에 밴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각자 겪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국민 모두가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통일 대비 의식

통일 대비 의식이란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상이한 이념, 체제, 제도 등에서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그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통일의 달성과 그 이후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식, 의지, 태도, 행위에 의한 확고한 실천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¹²⁾

새해가 되거나 새천년이 밝거나, 사람들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계획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특별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도덕성 확립이다.¹³⁾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경제에 도덕성이 무너진지는 오래되었다. 정치, 교육, 경제의 분야가 서로 뒤엉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통일은 우선 우리 내부의 정치부터 바로잡고 난 다음의 일이다.

둘째, 북쪽을 적으로 보서는 안된다.¹⁴⁾ 한쪽에서는 통일을 바라며 교류, 협

11) 강만길, 전계서, p.207.

12) 김재희, 상계서, p.8.

13) 손대오, 통일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 미래문화사, 2002, p.264.

력에 힘쓰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다. 6.25 전쟁의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계속해서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서로가 말로는 한 민족, 한형제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이 필요하다.¹⁵⁾ 지금까지 우리들은 반공 교육만 받아왔다. 북쪽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임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러한 분단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이 아니라 통일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일제강점 시대의 민족해방운동 전선에서부터 발전해 온 평화적 통일 민족국가수립론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켜 우리의 역사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넷째, 남과 북의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¹⁶⁾ 자칫 대비의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당면 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의 역사의식은 그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면 통일이 되기 전에 그 편차를 어느 정도 줄이 수 있다. 우리가 통일되면 하나의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하나이다.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역사도 또한 우리의 역사임을 생각할 때 단일 교과서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동질성 회복이다.¹⁷⁾ 국제화, 세계화되는 가운데 폐쇄된 북한보다는 남한을 중심으로 사회·경제·문화면의 세계화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쪽만의 문제가 아님을 생각하여 전체 민족적인 차원에서 방법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남쪽만의 세계화를 추진할수록 북한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14) 강만길, 상계서, p.188.

15) 강만길, 상계서, p.191.

16) 강만길, 상계서, p.194.

17) 강만길, 전계서, p.197.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제대로 준비하여 안정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2. 남북관광교류의 이론적 배경

1) 남북관광교류의 의의

국가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민간 부분의 교류와 상호이해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교류증대는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정치·외교적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분의 교류확대는 남북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이것은 국제평화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다.¹⁸⁾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서 상 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함으로써 남북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분 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과정 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이해 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공동의 특성을 회 복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 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경협외의 한계를 벗어나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문 화적 통합의 기초가 되어 하나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⁹⁾

관광교류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한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것은 관광의 정의 및 관광의 이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정의로 관광을 정의하는 것에 는 무리가 있지만, 관광의 정의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관광은 평화로 가

18) 박창수, 컨벤션산업론, 대왕사, 2003, p.135.

19)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1999, p.1-6.

는 여권(Tourism is a passport to peace)”이다.²⁰⁾ 또한 관광의 이념²¹⁾은 개인에게는 관광을 통한 개인의 욕구실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형평실현, 국가에 있어서는 평화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특히 관광을 통한 인간의 교류는 인종, 피부색깔, 종교, 사회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의하여 가로막혀 있는 사람사이의 심리적·문화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은 우리 세계가 지닌 풍요한 인간적, 문화적, 생태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상호 신뢰와 존경을 유도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관광교류는 크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유대감을 발견하고 세계 평화로의 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며, 남북한 간에는 상호 신뢰와 존경을 유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평화적인 남북관계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이룩하고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 국제평화실현의 한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분단이후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²²⁾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남북관광교류의 현황

남북한의 관광교류는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까지는 관광을 위한 실무차원의 접촉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접촉은 민간분야간의 자

20) 이장춘, 관광과 통일 -한반도 미래관리론-, 대왕사, 1991, p.23.

21) 여기서 말하는 관광의 이념은 관광을 통하여 개인·사회·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규범, 바람직한 가치, 지침이나 원리를 의미한다. 이광원, 관광학원론, 기문사, 2000, p.52.

22) 통일부, 2002통일백서, 통일부, 2002. p.101.

울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제의와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었으며,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남북한간의 관광협력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1982년 2월로 남한정부가 북한측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자유관광지역으로 조성하자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후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전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북한의 대성은행과 '금강산 공동개발계획'에 대한 잠정합의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1990년 10월 당시 교통부는 '남북관광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금강산 및 비무장지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1991년 3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 남북한 대표가 함께 참가한바 있으며, 1991년 7월 남북 고위급 회담시 민간기업차원에서 외국관광객과 해외동포의 남북한 동시방문을 위한 '관광상품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자 금강산 개발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유망사업 분야로 부상하였다. 이에 때를 맞추어 교통부가 1991년 12월 14일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 선의 철도 및 해로, 항로 연결공사계획을 발표했다.²³⁾ 1992년 2월 남한의 민간여행사들이 남북한간 관광상품의 공동개발과 외국인의 북한 송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북한은 평양에 본사를 둔 재미교포 합작회사인 '금강산 국제관광회사'를 통해 92년 5월 1일을 기해 남한주민에 대한 백두산과 금강산 지역관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통부는 1992년 4월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에 따라 단체관광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7년 말까지 관광교류·협력에 관한 조치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때까지는 순수 관광목적상 남북한주민의 왕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997년 이후 언론방송계가 방북하여 관광자원의 성격을 띤 북한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답사하기 시작했다²⁴⁾.

1998년 2월 제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의 세부 추진사항(설

23) 최용식, 남북관광교류협력과 국민통일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35-37.

24) 조한범, 전게서, p.40-42.

악산-금강산 연계 관광개발)으로 명시된 이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소 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되어 마침내 북한의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유람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선에 의한 관광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북측과 금강산 지역의 종합개발(관광, 시설투자 및 건설사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1998년 10월 29일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였다²⁵⁾. 1998년 11월 18일 첫 유람선이 출항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광이 시작되었다. 1998년 11월 금강호를 첫 출항시킴으로써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999년과 2000년에 봉래·풍악·설봉호가 추가투입되어, 2000년에는 월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1999년 6월 21일 관광객 억류사건이 발생하여 8월 4일까지 약 45일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관광객이 월 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설봉호 1척만 운항하게 되었다. 현대그룹의 어려움 등과 함께 금강산 관광이 침체에 빠지면서 현대는 2000년 6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매월 1,200만불씩 지급하던 관광대가를 관광활성화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로관광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관광활성화 조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사업자간에 관광활성화 조치 이행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02년 1월 23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온 측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이를 남북화해협력 증진, 분단고통 완화, 통일교육효과 제고 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통일부고시)」

25) 통일부, 2000통일백서, 통일부, 2000, p.94

을 제정하여 학생·교사·이산가족·국가유공자·장애인·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지원조치가 실시된 이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6.4%가 증가한 총 84,727명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관광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부와 사업자가 북측의 관광활성화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2002년 11월에는 북측이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03년 1월 27일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동·서해 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답사가 이루어졌고, 이어 시범적인 육로관광이 14일부터 16일까지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가하여 실시됨으로써 육로관광의 물꼬를 텄다. 앞으로 특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육로를 이용한 금강-설악권 연계관광이 실시되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⁶⁾.

26) 통일부, 2003통일백서, 통일부, 2003. p.184.

<표 1> 금강산 관광객 현황 (1998년 11월~2003년 7월)

(단위:명)

년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8	계											2,956	7,587	10,543
99	계	9,978	11,856	14,339	11,429	16,321	11,847		13,972	15,498	16,923	12,817	12,480	147,460
00	계	12,930	15,609	20,502	17,373	15,917	19,355	15,550	17,846	19,517	28,110	17,817	11,494	212,020
01	계	6,472	7,349	10,433	5,859	5,458	3,992	2,588	4,212	2,662	4,090	3,565	2,153	58,833
02	계	1,463	1,379	3,002	4,812	6,579	7,659	11,201	12,101	4,908	13,075	11,023	10,212	87,414
03	육로		2,102											
	해로	1,957	1,621	3,116	2,807		913	5,451						
	계	1,957	3,723	3,116	2,807		913	5,451						
총계														534,237

자료 : (주)현대아산

3. 사례연구

1) 통일 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통일 의식에 관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대상은 사회의 각 계층을 망라하여 다양하지만 그 빈도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제일 많았고,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거의 없어 아직까지 극히 초보적이고 미약한 단계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동서 냉전의 체제가 와해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통일 의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문과 통일 의식의

상관성을 고려한 연구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를 들면,

이재훈²⁷⁾의 연구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들이 현재 갖고있는 통일외식에 주목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변인, 가정변인, 매스미디어 변인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의 통일외식을 살펴보았다.

강구용²⁸⁾의 연구는 초등학교 통일 교육과 교사의 통일 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인식의 혼동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통일관', '통일 교육', '통일 후 학교 교육 체계'로 설정하고 있다.

김재희²⁹⁾의 연구는 통일 외식의 구성 요소를 선정하고, 청소년의 통일 외식 실태가 지역별, 성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통일 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교육 못지않게 청소년의 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스미디어와 통일 외식의 상관성을 고려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양미화³⁰⁾의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스미

27) 이재훈, 전계논문.

28) 강구용, 통일 대비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 교육 외식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9) 김재희, 전계논문.

30) 양미화, 매스미디어가 청소년 통일 외식에 미치는 영향-서울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디어가 사회의 전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의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실향여부, 성별, 매스미디어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광교류 중 가장 대중적인 금강산 관광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의 사례를 들면,

최용식³¹⁾의 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인식, 태도와 평가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와 성과, 향후 전망과 문제점 등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평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 동안 추진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 국민의 북한 의식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과 정치적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독일통일에 관한 선행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독일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정치적 명분을 쌓고, 대외적으로는 1973년 UN에 동시가입, 국제적인 통일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평화공존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³²⁾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시대별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서독 정부 수립 후 동독에 관해 적대적 대결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동독을 힘으로 고립시켰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서독의 정권은 서독이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31) 최용식, 전계논문.

32) 오철한,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9.

전 독일을 대표한다는 외교정책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나아가 할슈타인원칙에 따라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의 독일통일과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서독의 동방정책은 1969년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발표한 이후의 시기에 시행되었다. 이 시기가 두 번째 시기로, 첫째의 시기가 동서독이 어느 한 체제에 다른 체제의 흡수, 합병을 강요하던 단독 대표권을 주장하던 시기였다면, 둘째의 시기는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치적·국가적 통일을 유보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독일 내의 두 개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1민족 2국가론'을 새로운 통일정책으로 내세워, 민족적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통일을 먼 장래의 가능성으로 보던 시기이다. 이러한 브란트의 획기적인 동방정책은 그 결실을 맺게 되어 1970년 3월 19일에는 동·서독 수상간에 최초의 양독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접촉을 거쳐 1971년 12월 17일 양독일의 최초의 국가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독 일반통행협정'이 정식 조인되었고, 이어 1972년 12월 21일에는 드디어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 조약은 그동안의 서독측의 '1민족 2국가' 주장과 동독측의 '2민족 2국가' 주장간의 팽팽한 대립에서 그 중간적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기본조약 이후 유엔동시가입의 실현,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경제·기술협력 사업에 관한 협의 및 함부르크와 베를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로운 차원의 상호협력의 전기를 마련해감으로써 교류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독의 동방정책은 국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정책을 통해서 유럽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양독 관계에 있어서도 민족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³³⁾.

궁극적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은 양독간의 인적교류 외에도 경제교류, 체육교류, 체신교류, 문화교류 등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내

33) 오철한, 전제논문, p.10-16.

고 동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1990년의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냈다. 동서독의 1990년 통합은 이와 같은 양측의 협력증대와 사회구축 없이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동독에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고 해도, 두 분단 당사자 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이 막혀 불신과 긴장의 벽이 그대로 짓누르고 있었다면, 서로는 것처럼 1989년 서슴없이 다가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사례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할 때, 통일되기 전의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유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두 경우 모두 2차대전 후 연합군측의 분할 점령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되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고, 둘째, 다같이 전후 동맹체제에 편입되어 동서대결의 장이 되었으나 분단 후 40여년이 지난 80년대 후반까지도 모두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셋째, 주변의 강국들은 동서독 또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즉, 독일의 주변국들은 독일이 다시 강력한 통일국가로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안정이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통일된 한국이 서로 상대방의 영향권 안으로 소속되지 않도록 현상이 유지되기를 원했다. 넷째, 양지역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냉전논리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유사성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

그리고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원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응징조치로, 그리고 하나의 독일이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의 결과로서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독일민족 자신에게 있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전적으로 열강들의 세력다툼의 희생물이었다. 둘째,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독일에서는 분단에도 불구하고 교류 및 협력이 상존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보인데 반해서 남북한은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교류 및 협력은 커녕 상호반목과 불신만을 심화시켜왔다. 셋째, 양지역을 둘러싼 냉전적 상황에서도 차이가 난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냉전 상황은 동·서 양진영내의 다자간 동맹 체제를 통한 블록대결의 양상을 보였던 반면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냉전 상황은 철저히 양자간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 차원의 상이성도 존재하며, 나아가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 위상 등의 제조건 면에서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별성도 분명히 있다.³⁴⁾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불신이 오늘날의 극한적인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에의 접근을 시도할 때 가장 급선무는 신뢰회복이다. 여기에서 우리보다 앞서 통일에의 뜨거운 열망을 갖고 동서독이 달성시킨 성과는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북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으며, 서독의 통일에 대한 접근태도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왔다³⁵⁾. 그 이유는 첫째, 불신이 우리같이 뿌리깊지 않은 동서독조차도 민간부분부터 접촉하는 기능주의 접근으로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는데, 하물며 신뢰회복이 급선무인 남북한에서야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최소한 갈등을 평화적 통일방법으로 해소하여 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는 우회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동서독 방식의 평화적, 민주적 접근은 통일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해 볼 때 그 당위성이 있다.

셋째, 민간부분으로부터의 접근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신장은 놀랍게도 체제가 다른 양독간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해 민족적 동질성

34) 오철한, 전계논문, p.62.

35) 오철한, 상계논문, p.63.

을 소생시켰다. 그래서 통일 후에도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화충격은 비교적 적었다. 그런데 5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이질화의 길을 걸어온 한민족이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통한 이질화 극복의 중간 작업도 없이 통일을 한다면, 그 문화충격에서 오는 적대감·불신 등의 감정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이러한 접근을 통한 교류의 신장은 미·소의 대립으로 1981년 양독에 중거리 핵무기 설치를 앞두고, 양독 지도자가 만나서 독일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와 같은 민족자결에 입각한 유대감을 불러올 수 있었다. 즉, 분단의 장벽을 슬기롭게 뛰어넘으려는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현명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³⁶⁾

따라서 민간부분으로부터의 동서독간의 교류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여 왔던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류와 협력의 증대는 상호 신뢰 회복과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를 적절히 활용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조사 설계와 분석방법

1. 조사의 설계

본 연구는 남북관광교류가 대학생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제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통일의식의 구성요소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남북한 관광교류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조사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 등을

36) 오철한, 전계논문, p.63-64.

모집단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조사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은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도움을 받아 400부를 배포하여 24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것과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13부를 제외한 총 227부를 최종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은 방학 중 수도권과 충청권의 5개 대학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400부를 배포하여 227부를 회수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제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통일외식의 구성요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일외식의 구성요소는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의식, 통일에 있어서의 당면문제와 통일에 관한 대비외식, 남북관광 교류정책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비자주·비자결에 의한 분단이기 때문,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 사회·문화적 번영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될 수 있기 때문,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통일에 있어서의 당면문제와 통일에 관한 대비외식의 관련문항으로 국제관계를 개선하여야 함, 남북한 신뢰 회복하여야 함, 통일 방법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경제적 비용을 준비하여야 함, 사회·문화적 비용을 준비하여야 함,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여야 함,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남북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통일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함으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남북관광교류정책의 인식에 대한 관련문항으로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할 것임,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 북한의 개방과 체제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임,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할 것임으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성별, 군복무의 유무, 학교 내·외의 통일교육의 유무 등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집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측정점수에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 5점은 '매우 그렇다'에 배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문항의 구성

구 분	문항수	내 용
I. 통일의 당위성	5	① 비자주·비자결에 의한 분단이기 때문
		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
		③ 사회·문화적 번영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
		④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될 수 있기 때문
		⑤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II. 당면문제와 대비의식	10	① 국제관계를 개선하여야 함
		② 남북한 신뢰 회복하여야 함
		③ 통일 방법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④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⑤ 경제적 비용을 준비하여야 함
		⑥ 사회·문화적 비용을 준비하여야 함
		⑦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여야 함
		⑧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⑨ 남북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⑩ 통일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함

구 분	문항수	내 용
Ⅲ. 남북관광 교류정책	7	①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할 것임
		②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
		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④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⑤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임
		⑥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임
		⑦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할 것임
Ⅳ. 일반적인 사항	5	① 성별
		② 군복무 유무
		③ 나이
		④ 학교 내 통일교육의 유무
		⑤ 학교 외 통일교육 참여의 유무

3. 자료의 분석방법

위 유효표본으로 지정된 설문지의 통계처리는 데이터코딩(data coding)을 거쳐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표본평균을 통한 집단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집단간의 통일의식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분석(mean), 표준편차(std)등을 활용하였으며, 다변량 통계분석으로는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자료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응답자 454명 중 남성이 191명으로 42.1%, 여성이 263명으로 57.9%로 나타났다.

군복무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남성 191명 중 군필자가 104명으로 22.9%, 미필자가 87명으로 19.2%로 나타났다.

학교 내 통일관련 교육의 유무에서는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사람이 161명으로 35.5%를 차지하고, 학교 외 통일관련 교육의 유무에서는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사람이 119명으로 26.2%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에서 성별, 나이에 따른 분석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분석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계	
		빈도(명)	퍼센트(%)	빈 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성 별	남 성	104	45.8	87	38.3	191	42.1
	여 성	123	54.2	140	61.7	263	57.9
군복무 여부	군필자	51	22.5	53	23.3	104	22.9
	미필자	53	23.3	34	15.0	87	19.2

구 분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계	
항 목	내 용	빈도(명)	퍼센트(%)	빈 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나 이	19	11	4.8	1	.4	12	2.6
	20	62	27.3	28	12.3	90	19.8
	21	46	20.3	51	22.5	97	21.4
	22	30	13.2	57	25.1	87	19.2
	23	15	6.6	31	13.7	46	10.1
	24	14	6.2	29	12.8	43	9.5
	25	29	12.8	17	7.5	46	10.1
	26	10	4.4	8	3.5	18	4.0
	27	4	1.8	4	1.8	8	1.8
	28	3	1.3	.	.	3	.7
	29	2	.9	1	.4	3	.7
30	1	.4	.	.	1	.2	
학교 내 통일교육 여부	예	87	38.3	74	32.6	161	35.5
	아니오	140	61.7	153	67.4	293	64.5
학교 외 통일교육 프로그램 참가여부	예	92	40.5	27	11.9	119	26.2
	아니오	135	59.5	200	88.1	335	73.8
합계		227	100.0	227	100.0	454	100.0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집단별 평균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 <표 5>와 같다.

**<표 4>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生の 집단통계량**

내 용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편차
① 비자주·비자결에 의한 분단	4.58	3.98	0.60
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	4.01	3.60	0.41
③ 사회·문화적 번영의 기반	4.29	3.76	0.53
④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	4.30	3.93	0.37
⑤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4.37	4.04	0.33
① 국제관계의 개선	4.47	4.19	0.28
② 남북한 신뢰 회복	4.61	4.29	0.32
③ 통일 방법의 합의	4.60	4.30	0.30
④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4.33	4.30	0.03
⑤ 경제적 비용의 준비	4.29	4.18	0.11
⑥ 사회·문화적 비용의 준비	4.26	4.10	0.16
⑦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 극복	4.40	4.30	0.10
⑧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의 마련	4.50	4.37	0.13
⑨ 남북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의 마련	4.53	4.37	0.16
⑩ 자주 국방력 갖추	4.39	4.31	0.08
①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	4.33	3.70	0.63
②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4.15	3.72	0.43
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3.70	3.69	0.01
④ 북한의 경제난 해소	3.63	3.07	0.56
⑤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	4.18	3.59	0.59
⑥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	3.73	3.40	0.33
⑦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	4.06	3.70	0.36
N	227	227	

주 : 편차는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표 4> 에서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의 통일의식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의 통일의식보다 모든 문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의 독립표본 검정**

분석결과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	12.803	.000	4.590	446.209	.000	.41	9.02E-02	.24	.59
II-① 국제관계의 개선	8.241	.004	4.510	446.788	.000	.29	6.35E-02	.16	.41
II-⑥ 사회문화적 비 용의 준비	6.382	.012	2.145	447.847	.032	.16	7.39E-02	1.33E-02	.30
II-⑩ 자주 국방력 갖추	7.107	.008	1.072	430.148	.284	7.93E-02	7.40E-02	-6.61E-0 2	.22
III-③ 북한의 개방 과 체제변화를 촉진	17.476	.000	.195	416.602	.846	1.76E-02	9.05E-02	-.16	.20
III-⑤ 남북한 긴장 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	4.147	.042	7.564	450.469	.000	.59	7.75E-02	.43	.74

<표 5> 에서 금강산관광의 참여 유무에 따라 두 집단은 통일의 당위성에 관해서는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통일에 있어서 당면문제와 대비의식에 관해서는 국제관계를 개선해야하고, 사회·문화적 비용을 준비해야하며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남북관광 교류정책은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군필자와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군필자에 대한 집단통계량**

내 용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모집단	군필자	편차	모집단	군필자	편차
① 비자주·비자결에 의한 분단	4.58	4.69	-0.11	3.98	4.00	-0.02
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	4.01	4.24	-0.23	3.60	3.64	-0.04
③ 사회·문화적 번영의 기반	4.29	4.39	-0.10	3.76	3.89	-0.13
④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	4.30	4.47	-0.17	3.93	3.91	0.02
⑤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4.37	4.41	-0.04	4.04	4.09	-0.05
① 국제관계의 개선	4.47	4.47	0	4.19	4.21	-0.02
② 남북한 신뢰 회복	4.61	4.65	-0.04	4.29	4.40	-0.11
③ 통일 방법의 합의	4.60	4.59	0.01	4.30	4.28	0.02
④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4.33	4.14	0.19	4.30	4.28	0.02
⑤ 경제적 비용의 준비	4.29	4.29	0	4.18	4.32	-0.14
⑥ 사회·문화적 비용의 준비	4.26	4.43	-0.17	4.10	4.23	-0.13
⑦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 극복	4.40	4.33	0.07	4.30	4.25	0.05
⑧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의 마련	4.50	4.47	0.03	4.37	4.49	-0.12
⑨ 남북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의 마련	4.53	4.49	0.04	4.37	4.42	-0.05
⑩ 자주 국방력 갖추	4.39	4.47	-0.08	4.31	4.28	0.03
①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	4.33	4.49	-0.16	3.70	3.85	-0.15
②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4.15	4.20	-0.05	3.72	3.74	-0.02
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3.70	3.88	-0.17	3.69	3.57	0.12
④ 북한의 경제난 해소	3.63	3.73	-0.10	3.07	2.94	0.13
⑤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	4.18	4.20	-0.02	3.59	3.45	0.14
⑥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	3.73	3.96	-0.23	3.40	3.13	0.27
⑦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	4.06	4.20	-0.14	3.70	3.53	0.17
N	227	51		227	53	

주 : 편차는 (모집단) - (군필자)

<표 6>의 군필자 중에서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은 통일에 있어서의 당면문제와 대비의식에 관해 남북한간 통일방법의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변수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변수에서 모집단보다 미미하지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군필자와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군필자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 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	7.432	.008	3.083	96.597	.003	.59	.19	.21	.98
III-⑤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	5.183	.025	3.859	98.928	.000	.74	.19	.36	1.13

그리고 <표 7> 에서 군필자 중에서 금강산관광의 참여 유무에 따라 나뉜 두 집단은 통일의 당위성에 관해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수에서 두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추진 중인 남북관광 교류정책은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학生の 독립표본 검정

분석결과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 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① 비자주 비자결에 의한 분단	11.448	.001	4.130	49.842	.000	1.01	.24	.52	1.50
I-④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	6.842	.011	4.925	55.477	.000	1.03	.21	.61	1.45
II-① 국제관계의 개선	8.201	.005	2.234	82.260	.028	.32	.14	3.54E-02	.61
II-④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4.632	.034	-1.38 3	81.079	.170	-.27	.20	-.67	.12
II-⑦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 극복	6.943	.010	-.487	78.713	.627	-7.84E-02	.16	-.40	.24
III-⑥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	4.782	.032	1.629	61.642	.108	.37	.23	-8.47E-02	.83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으로 구분된 두 집단의 통일에 있어서 당면문제와 대비의식에 관한 사항인 국제관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야한다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금강산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집단통계량

내 용 구 분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모집단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편차	모집단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편차
① 비자주·비자결에 의한 분단	4.58	4.58	0	3.98	4.13	-0.15
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	4.01	4.04	-0.03	3.60	3.75	-0.15
③ 사회·문화적 번영의 기반	4.29	4.32	-0.03	3.76	3.91	-0.15
④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	4.30	4.32	-0.02	3.93	4.18	-0.25
⑤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4.37	4.36	0.01	4.04	4.27	-0.23
① 국제관계의 개선	4.47	4.47	0	4.19	4.44	-0.25
② 남북한 신뢰 회복	4.61	4.64	-0.03	4.29	4.34	-0.05
③ 통일 방법의 합의	4.60	4.58	0.02	4.30	4.35	-0.05
④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4.33	4.32	0.01	4.30	4.33	-0.03
⑤ 경제적 비용의 준비	4.29	4.36	-0.07	4.18	4.15	0.03
⑥ 사회·문화적 비용의 준비	4.26	4.31	-0.05	4.10	4.04	0.06
⑦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 극복	4.40	4.39	0.01	4.30	4.45	-0.15
⑧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의 마련	4.50	4.55	-0.05	4.37	4.36	-0.01
⑨ 남북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의 마련	4.53	4.58	-0.05	4.37	4.44	-0.07
⑩ 자주 국방력 갖추	4.39	4.44	-0.05	4.31	4.40	-0.09
①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	4.33	4.38	-0.05	3.70	3.72	-0.02
②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4.15	4.18	-0.03	3.72	3.82	-0.10
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3.70	3.66	0.04	3.69	3.72	-0.03
④ 북한의 경제난 해소	3.63	3.66	-0.03	3.07	3.09	-0.02

내 용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모집단	통일관련 교육을 받음	편차	모집단	통일관련 교육을 받음	편차
⑤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	4.18	4.20	-0.02	3.59	3.72	-0.13
⑥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	3.73	3.73	0	3.40	3.49	-0.09
⑦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	4.06	4.12	-0.06	3.70	3.82	-0.12
N	227	137		227	85	

주 : 편차는 (모집단)-(통일관련교육을 받은 소집단)

<표 9>에서 살펴보면, 통일교육을 받은 대학생 중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집단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의 통일의식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금강산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生の 독립표본 검정

분석결과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I-② 남북한 신뢰 회복	10.336	.002	3.169	153.383	.002	.29	9.27E-02	.11	.48
II-⑥ 사회 문화적 비용의 준비	7.166	.008	2.711	197.976	.007	.27	.10	7.39E-02	.47
II-⑦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차이 극복	4.484	.035	-5.546	209.117	.586	-5.29E-02	9.69E-02	-.24	.14
III-② 민족 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12.995	.000	3.361	212.839	.001	.36	.11	.15	.57
III-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4.924	.028	-.436	204.575	.663	-6.07E-02	.14	-.34	.21

<표 10>의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 중에서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은 남북한 관광교류정책이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변수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통일에 있어서의 당면문제와 대비외식에 관해서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변수와 사회·문화적 비용을 준비해야 하고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변수에서 두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의 집단통계량

내 용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모집단	통일관련 교육을 받지 않음	편차	모집단	통일관련 교육을 받지 않음	편차
① 비자주·비자결에 의한 분단	4.58	4.58	0	3.98	3.88	0.10
② 경제적 변영의 기반	4.01	3.97	0.04	3.60	3.50	0.10
③ 사회문화적 변영의 기반	4.29	4.23	0.06	3.76	3.67	0.09
④ 정치·외교적 위상의 강화	4.30	4.27	0.03	3.93	3.79	0.14
⑤ 국제 사회의 평화와 변영에 기여	4.37	4.40	-0.03	4.04	3.90	0.14
① 국제관계의 개선	4.47	4.48	-0.01	4.19	4.03	0.16
② 남북한 신뢰 회복	4.61	4.58	0.03	4.29	4.26	0.03
③ 통일 방법의 합의	4.60	4.63	-0.03	4.30	4.27	0.03
④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4.33	4.33	0	4.30	4.28	0.02
⑤ 경제적 비용의 준비	4.29	4.19	0.10	4.18	4.19	-0.01
⑥ 사회·문화적 비용의 준비	4.26	4.19	0.07	4.10	4.14	-0.04
⑦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 극복	4.40	4.41	-0.01	4.30	4.21	0.09

내 용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모집단	통일관련 교육을 받지 않음	편차	모집단	통일관련 교육을 받지 않음	편차
⑧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의 마련	4.50	4.41	0.09	4.37	4.38	-0.01
⑨ 남북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의 마련	4.53	4.47	0.06	4.37	4.33	0.04
⑩ 자주 국방력 갖추	4.39	4.32	0.07	4.31	4.26	0.05
①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	4.33	4.27	0.06	3.70	3.70	0
②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4.15	4.10	0.05	3.72	3.65	0.07
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3.70	3.78	-0.08	3.69	3.67	0.02
④ 북한의 경제난 해소	3.63	3.60	0.03	3.07	3.04	0.03
⑤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	4.18	4.14	0.04	3.59	3.51	0.08
⑥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	3.73	3.73	0	3.40	3.33	0.07
⑦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	4.06	3.97	0.09	3.70	3.61	0.09
N	227	90		227	141	

주 : 편차는 (모집단) - (통일관련교육을 받지않은 소집단)

<표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 중에서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고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개선해야 함, 남북한 통일 방법의 합의를 해야 함,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함,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미미하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生の 독립표본 검정

분석결과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② 경제적 변 영의 기반	6.547	.011	3.740	203.796	.000	.47	.13	.22	.72
II-① 국제 관계 의 개선	14.625	.000	4.730	163.351	.000	.45	9.50E-02	.26	.64
II-⑩ 자주 국방 력 갖추	7.107	.008	1.072	430.148	.284	7.93E-02	7.40E-02	-6.61E-02	.22
III-③ 북한의 개 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6.598	.011	.883	146.976	.379	.11	.13	-.14	.36
III-⑤ 남북한 긴 장완화 및 평화 유지에 기여	7.588	.006	5.831	208.813	.000	.63	.11	.42	.85
III-⑦ 국가 신인 도 증대에 기여	7.043	.009	3.216	204.559	.002	.36	.11	.14	.58

<표 12>의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 중 금강산관광의 참여 유무에 따라 나뉜 두 집단은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할 것이며,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남북관광교류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生の 독립표본 검정

분석결과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② 경제적 번영의 기반	5.390	.021	4.790	275.298	.000	.55	.11	.32	.77
II-① 국제관계의 개선	18.196	.000	5.586	271.436	.000	.44	7.86E-02	.28	.59
III-③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25.594	.000	-.084	233.678	.933	-9.73E-03	.12	-.24	.22

<표 13> 의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으로 구분된 두 집단은 통일의 당위성에서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일에 있어서의 당면문제와 대비의식에 관해서는 국제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변수에서, 남북관광 교류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금강산관광에 참여하고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집단통계량**

분석결과 설문문항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② 경제적 번영 의 기반	4.250	.041	1.460	166.159	.146	.21	.15	-7.53E-02	.50
II-⑥ 사회·문화적 비용의 준비	5.781	.017	1.302	167.096	.195	.15	.12	-7.93E-02	.39
II-⑨ 남북한 균형 적인 발전 방안의 마련	4.469	.036	.321	163.621	.748	3.14E-02	.76E-02	-.16	.22
II-⑩ 자주 국방력 갖춤	5.824	.017	-.650	164.996	.517	-7.78E-02	.12	-.31	.16

<표 14> 의 금강산관광에 참여하고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과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으로 구분된 두 집단은 통일의 당위성에서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에 있어서의 당면문제와 대비의식에 관해서는 사회·문화적 비용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변수에서와 남북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변수에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변수에서 두 집단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북관광 교류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 집단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토의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통

일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군필자 중에서는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통일의식이 미미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통일관련교육을 받은 대학생 중에서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통일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넷째,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도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통일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고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개선해야 함, 남북한 통일 방법의 합의를 해야 함,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함,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변수에서는 통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남북한 통일은 인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평화의 기반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남북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해야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적극적인 통일노력에의 발로인 통일당위성에 관한 의식, 통일 당면문제에 관한 의식, 통일대비에 관한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통일의식의 고찰 및 남북경협에 한계에서 벗어나 남북한 사회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분야의 통합의 기초가 되는 민간교류부분의 남북관광교류의 이론적인 고찰과 통일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 한반도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에 동서독은 극심한 물가상승, 동독 노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대량실업사태, 다른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겪는 충격, 좌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통일 이전부터 교류와 통일 후 동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지역 주민들 간에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³⁷⁾

독일 통일이후의 문제점의 원인에는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독일 통일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비슷한 국가간의 통일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제구조와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및 교육·의료 및 주거시설 등이 완벽한 서독과 사회주의권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측면에서 비록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서독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동독과의 급속한 통합을 통하여 달성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독이 동독을 흡수, 병합함으로써 사실상 독일통일은 실현되었으나 이를 전후한 통일비용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 비용도 궁극적으로 알 수가 없다.³⁸⁾ 위와 같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관광교류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등으로 하여 2개의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별, 군복무여부, 나이, 학교 내·외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여부 등의 표본을 변수로 하여 표본을 다시 소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소집단간 설문문항에 대한 유의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강산관광이 통일의식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집단간의 유의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37) 배정주, 독일통일의 후유증 분석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구 -사회심리적 통합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9.

38) 박성조·양성철,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p.188.

첫째,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통일관련교육의 여부나 군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광교류는 대학생 통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규모 관광은 금강산관광에 이은 남북한 민간교류로써 앞으로 통일의식 및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 관광교류활성화는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의 참여유무에 관계없이 다른 경우의 소집단들보다 미미하지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의 주체로서 군사조직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어 군복무 중에서 자주국방의 주체로서 안보의식과 함께 균형 잡힌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통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관련교육을 받지 않고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이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대학생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몇몇 변수에서 미미하지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관광이라는 경험을 통하여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식할 수 있는 부분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구용, “통일 대비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 교육 의식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강만길,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지영사, 2000.
- 김경웅, 남북한 사회 문화 통합의 전략적 접근, 『북한 정치와 대북 정책』, 한국정치학회추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9.
- 김재희, 청소년의 통일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배정주, 독일통일의 후유증 분석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구 -사회심리적 통합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성조 · 양성철,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 박창수, 컨벤션산업론, 대왕사, 2003.
- 손대오, 통일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 미래문화사, 2002.
- 양미화, 매스미디어가 청소년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서울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오철한,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광원, 관광학원론, 기문사, 2000.
- 이장춘, 관광과 통일 -한반도 미래관리론-, 대왕사, 1991.
- 이재훈, 고등학생의 통일외식에 관한 연구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현근, 통일, 민족주의 그리고 ‘제3의 길’, 신지서원, 2001.
- 정진위, 북한 남북한 관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1999.
- 최용식, 남북관광교류협력과 국민통일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통일부, 2000통일백서, 통일부, 2000.
- 통일부,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2000.
- 통일부, 2002통일백서, 통일부, 2002.
- 통일부, 2003통일백서, 통일부, 2003.

【부 록】

남북한 관광교류가 대학생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남북한 관광교류가 대학생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남북통일 이후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 여러분의 통일과 남북관광교류정책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한 내용은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연구자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김수현 · 장미화

지도교수 : 국립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
관광경영학박사 박창수

I. 다음은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①우리 민족의 자주·자결에 의한 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통일은 우리 민족의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③통일은 우리 민족의 사회·문화적 번영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④통일된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정치·외교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통일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통일에 있어서 당면문제와 대비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①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통일 방법에 대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통일에 따르는 사회·문화적 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⑦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이질화 된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통일 후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통일 후 남북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통일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관광교류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①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②장기적으로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③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촉진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④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⑦남북관광교류정책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남자일 경우) 귀하는 군복무를 마쳤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세)
4. 학교 내에서 통일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학교 외의 다른 단체의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장 려 >

금강산 관광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중심으로 -



경 기 대 학 교
관광학과 4학년 최 용 혁

《 목 차 》

- 【요 약 문】
-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 고찰
 - III. 연구모형 및 조사의 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요 약 문】

금강산 관광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중심으로 -

얼마 전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대북사업을 총괄해 오던 현대 아산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이 사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분단 반세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적 화해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보수계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하는 등 금강산 사업은 대북 포용정책 차원에서 어떻게든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채산성이 없으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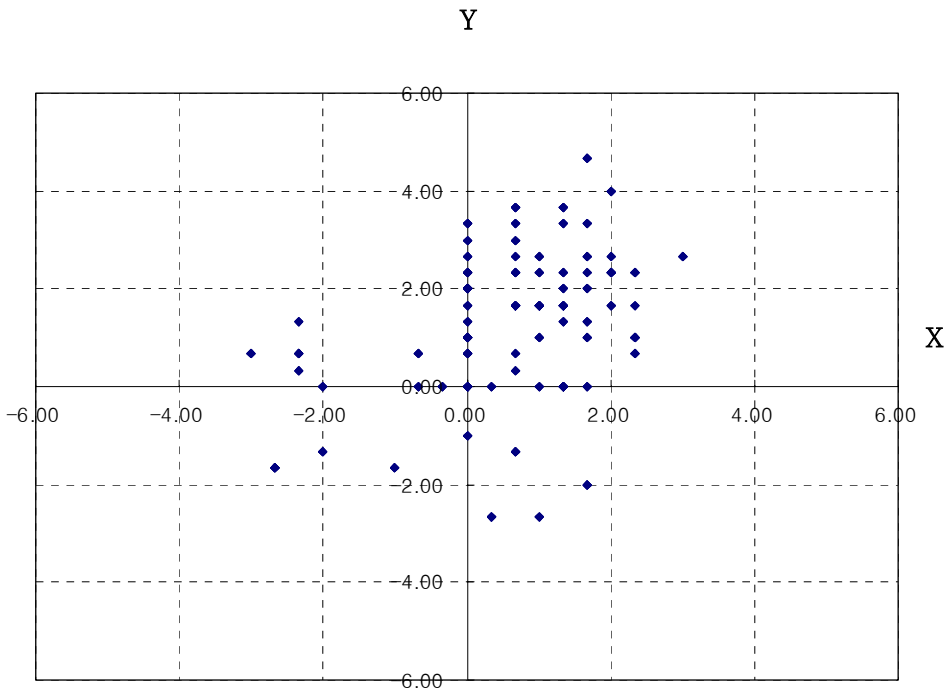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외의 상징적 의미이며 이로 인해서 비롯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교류의 규모와 양의 확대는 언젠가 북한 내부의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룩될 것이라는 희망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과연 금강산관광이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런 영향이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진행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금강산관광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점진적 통일모형과 Heider(1946)의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금강산관광이라는 실험변수에 의하여 관광객의 태도변화가 금강산보다는 북한에 대하여 더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금강산관광에 의한 통일의식 형성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각각의 태도변화정도를 산포도로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9%가 금강산에 대하여 금강산관광 이전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74.1%가 북한에 대하여 금강산관광 이전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P = f(X, Y)$

P : 금강산관광을 기점으로 북한 및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 정도

X : 북한에 대한 사후태도 측정치 - 사전태도 측정치

Y : 금강산에 대한 사후태도 측정치 - 사전태도 측정치

〈그림〉 북한 및 금강산의 사전·사후 태도측정 평균차이 산포도

이는 Heider의 균형이론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며, 금강산관광 허용이 관광객의 태도를 금강산관광 이전에 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금강산관광 이후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집단은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남북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은 점진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통일주체의 남북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태도 형성 단계에서,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년 11월 18일 한국 분단 50여 년만에 남한의 주민들에게 개방된 최초의 북한 관광지인 금강산은 1950년 남과 북이 38선을 경계로 나누어진 이후 전혀 왕래가 없었던 남북한 사람들에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승지로 누구나 꼭 한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명산이다.

금강산관광은 한국의 기업인 현대 측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는데, 1998년 1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씨앗이 잉태되었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은 1999년 6월 주부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사건 발생으로 한 때 위기를 맞았으나 45일 만에 재개되기도 하였으며, 2003년 8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대북사업을 총괄해 오던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사망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는 위기로까지 번질 뻔했던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세계적인 탈냉전과 사회주의권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외부세계와 고립된 채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북한의 태도도 서서히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의 확대는 결국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¹⁾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적대적인 대남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통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통일을 향한 보다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독일의 통일 직전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동·서독 국민들간의 여행과 왕래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남북통일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1) 이장춘(1997), 『관광과 통일』, 대왕사, p.49

없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금강산관광이 통일의 준비과정으로서 남북화해 협력에 이바지 한다’는 보도를 종종 신기도 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금강산관광도 하는데 통일도 곧 되겠지’하는 담론들도 오고간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의 발로로 보여지며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금강산관광이 남북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런 영향이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산관광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고찰과 실험설계를 통한 실증연구로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 시나리오 중 현실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로서 금강산 관광의 긍정적 역할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았다.

다음은 실험설계를 통한 실증연구로서, 금강산관광의 세 주체로 설정한 금강산, 관광객, 북한의 관계를 Heider(1946)의 균형이론(Balance theory)에 적용하였다. 즉 북한의 금강산관광 허용을 관광객이 금강산이나 북한에 대한 인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함수관계로 해석하고,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나타난 추이를 통해 관광객의 대북한 인식변화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II. 이론 고찰

1. 금강산 관광과 점진적 통일

1) 금강산 관광과 3자간 관계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93년 북한의 NPT 탈퇴 등으로 남북관계 및 북한을 둘러싼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당시 문민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색되면서 그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98년 새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강력한 사업의지 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분단 반세기만에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다. 최근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통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통일을 향한 보다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표 I-1〉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내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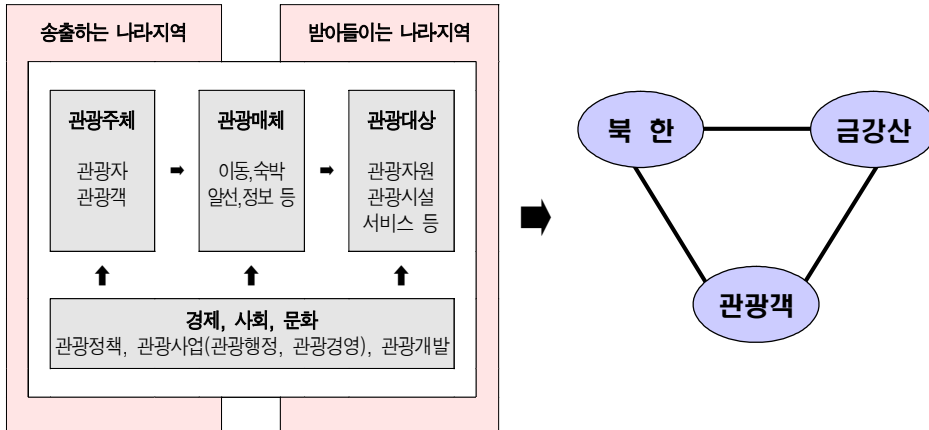
시 기	내 용	비 고	
1989.1.31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남북 경협 사업으로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 선정, 의정서 체결	
1998	2.9	실무대표단 북경 면담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협의
	4.18	실무대표단 평양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 문제 협의
	6.16	정주영 명예회장 관문점 통과 방북	·소 500마리 1차지원,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등 경협 사업 논의
	6.27	현대 남북경협사업단 발족	·단장에 김윤규 현대건설 부사장 임명
	7.5	실무대표단 북경 면담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2) KOTRA,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북한 뉴스레터 2000년 3월호.

시 기	내 용	비 고
1998	8.6 금강산 관광사업의 협력사업자 지정	·통일부(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으로 확대. 99.1.15)
	9.7 금강산 관광사업의 협력사업 승인	·통일부(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으로 확대. 99.1.15)
	10.27 정주영 명예회장 관문점 통제 재방북	·소 501마리 지원,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약속
	10.29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합의서 체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면담
	11.18 금강호 상업 출항 개시	
1999	2.5 (주)현대아산 설립	·남북경협 전담사 (대표이사 사장: 김윤규)
	2.28 온정각 및 금강산문화회관 준공	
	5.14 제 3의 관광선 풍악호 취항	·매일 운항 체제 구비
	6.2 관광객 억류 사건 발생	·6.24 석방
	9.1 출항 8개월만에 10만명 돌파	·출항 158항차 (봉래호)
	9.28 정주영 명예회장 관문점 통제 재방북	·최초의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 김정일 위원장과 2차면담(10.1)
	10.23 외국인 금강산 관광 개시	·주한 외국인 대상 시범 관광
	11.19 금강산 온천장 개장	·대중욕탕 및 개별욕탕
	12.31 동석동 신규코스 추가 운영	·총 4개코스

한편, <그림 II-2> 와 같이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주체는 '관광객', '금강산', '북한'의 3자간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香川眞(1996)이 연구한 「현대관광의 구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즉 송출하는 나라의 관광주체를 '관광객', 받아들이는 나라의 관광대상을 '금강산'으로 설정하고 각 대상들의 복합현상으로서 이들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제·사회·문화요인들의 제공자로서 '북한'을 설정하였다.

〈그림 II-2〉 금강산관광의 3자간 관계 모형³⁾



2) 통일 시나리오와 관광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이는 민족·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여 갈등해소, 평화, 전쟁방지, 통합 등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통일시나리오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의한 통일, 둘째는 남한에 의한 통일, 셋째는 연방(federation) 형태의 통일, 넷째는 국가 연합(confederation) 형태의 통일이다.⁴⁾

4가지의 통일형태 모두는 각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중 가장 성사 가능성이 큰 것은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가능성이 더욱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방식의 주 내용은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먼저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하며, 남북연합 속에서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궁

3) 香川眞(1996)의 〈표 I-1〉을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

4)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편(1997), 『통일·북한 핸드북』, p.13

극적으로는 통일민족국가로 나아가야 한다⁵⁾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서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내놓으며 남측의 연합제에 근접해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평화정착을 실현한 뒤에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통합력이 낮은 국가연합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남북이 공통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연합'조차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미래의 일이며, 당면한 과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서로 적대적인 정치, 군사, 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남북이 어떠한 결합을 약속한다 해도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설령 성사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결과 반목을 재생산하는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국가연합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그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 기존의 적대적 성격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이 긴요한 것이다.⁶⁾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경제적·문화적 교류와 함께 평화적인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냉소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그들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남한과 북한, 남한국민과 북한국민의 '접촉'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접촉은 관광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3) 금강산 관광을 통한 점진적 통일

이장춘 박사⁷⁾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에서 북한과의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차원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금강산관광의 확대는 6·15

5) 통일부(2002),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6) 통일부(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102

7) 한국관광정책학회장,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 전공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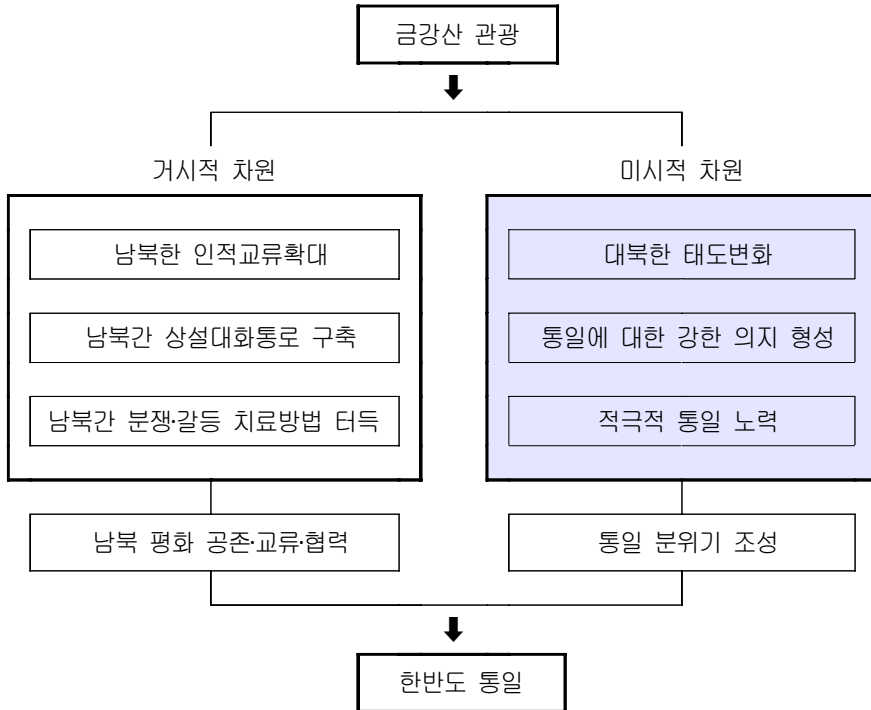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과정은 통일을 실행하는 주체인 남한 국민들의 태도·의지 등 통일의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림 II-3> 과 같이 금강산 관광을 통한 의식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즉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이 결합된 점진적 통일모형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8) 왜냐하면 관광은 다른 국가와 민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은 관광지 토착민들의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방문객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방문객들과 주민간의 사적인 관계는 관광지의 생활 양식과 주민들의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방문자들 역시 이질적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긍정적인 상태로의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상태란 방문자들이 관광지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잘 친화하고 보다 가까워지는 것이다. 방문자들과 주민들이 친숙해지면 다른 지역의 특성과 특징을 인식, 인정하고, 두 집단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경심을 증진시킨다(Robert W. McIntosh · Charles R. Goeldner(1995), 『관광학원론』. [TOURISM] . 신현주의 역, 세종연구원, p.217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Ⅱ-3〉 금강산관광에 의한 점진적 통일모형



2. 균형이론과 태도변화

1) 태도와 태도변화

금강산 관광은 북한, 금강산, 관광객이라는 3자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앞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이러한 3자간의 관계에 있어 태도와 태도변화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서 인지일관성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ies)이 있다.

모든 인지일관성이론의 전제는 인간이 균형, 조화 또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각 이론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모든

인지일관성이론들은 이러한 욕구의 불만족 상태, 즉 인지상의 불균형 상태의 존재가 심리적 긴장감(psychological tension) 또는 적어도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재배치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간의 태도변화에 대한 인지일관성이론들은 1946년 Fritz Heider가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발표함으로써 대두되기 시작하여, 1950년에 들어와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발표됨으로써 크게 각광을 받아서 1960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⁹⁾

Heider(1946)의 균형이론 발표이후에 그 뒤를 잇는 여러 가지 인지일관성이론들이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Newcomb(1953)의 대칭이론(Theory of Symmetry), Osgood과 Tannenbaum(1955)의 일치이론(Congruity Theory), 그리고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이론(Dissonance Theory)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산관광 3자간의 태도변화관계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균형이론을 토대로 금강산관광 3자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균형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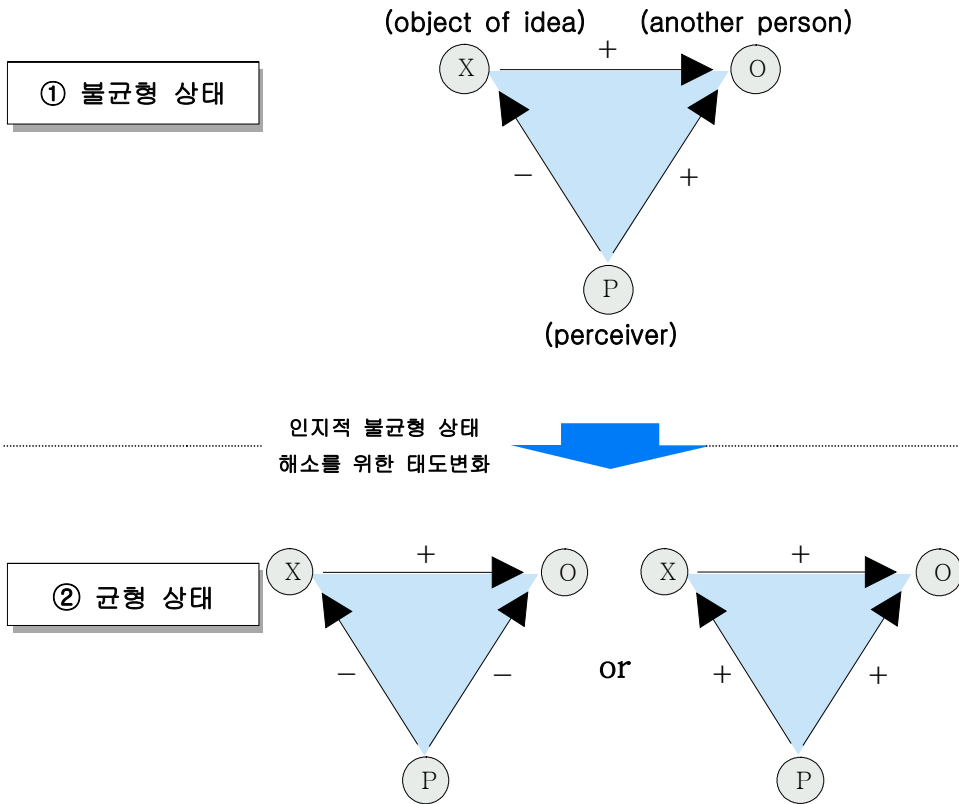
Heider(1946)의 균형이론은 개인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사물 또는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지각 혹은 비판하는데 있어서 균형이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어진 현상적 세계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 내지 사상을 지각하는 주체, 즉 지각자(perceiver)를 'P'라 하고, 이 때 지각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another person)을 'O'라고 하고,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Objects or idea)를

9) 차배근(1985), 『태도변용이론-설득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론』, 나남.

'X'라고 할 때, P가 느끼고 지각하고 있는 'P와 O', 'P와 X', 그리고 'O와 X'와의 3자간 관계에서 인간들은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피하고 그 대신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0)

<그림 II-4> 인지적 불균형 상태 해소를 위한 태도변화



<그림 II-4> 의 ②에서 보듯이, 만일 3개의 모든 개체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또는 오직 하나만이 긍정적이면 균형상태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면 ①과 같이 2개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하나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는 불균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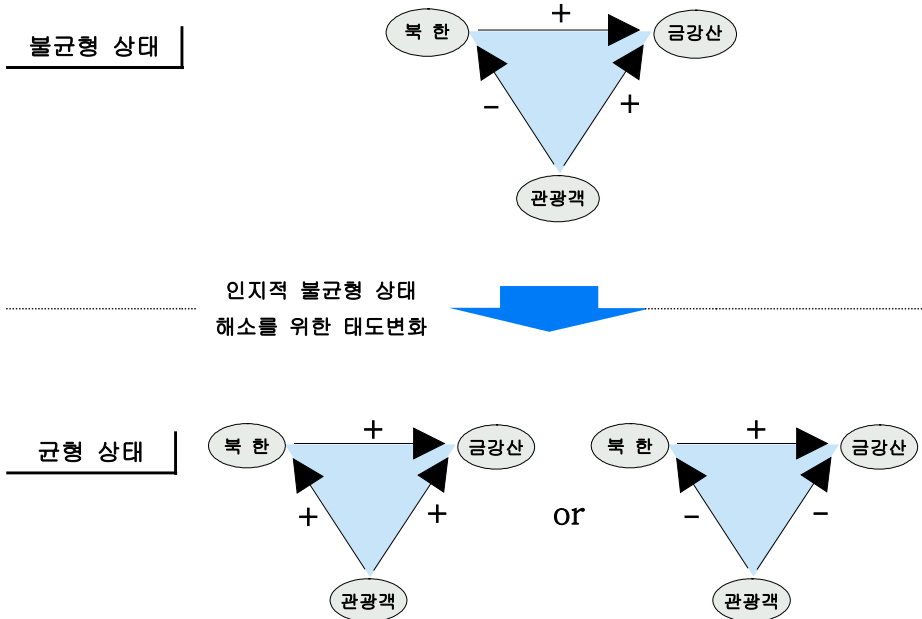
10) 차배근(1985), 『태도변용이론-설득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론』, 나남.

가 되어 인지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태도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금강산관광의 3자간 관계에 적용시켜보면 <그림 II-5> 와 같다. 즉 관광객이 좋은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금강산'이라는 관광지와 반대로 나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대상이 있고,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여 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은 인지상의 불균형 상태를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태도변화의 압력을 받아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북한과 금강산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거나, 금강산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북한과 금강산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림 II-5> 금강산관광의 3자간 관계 태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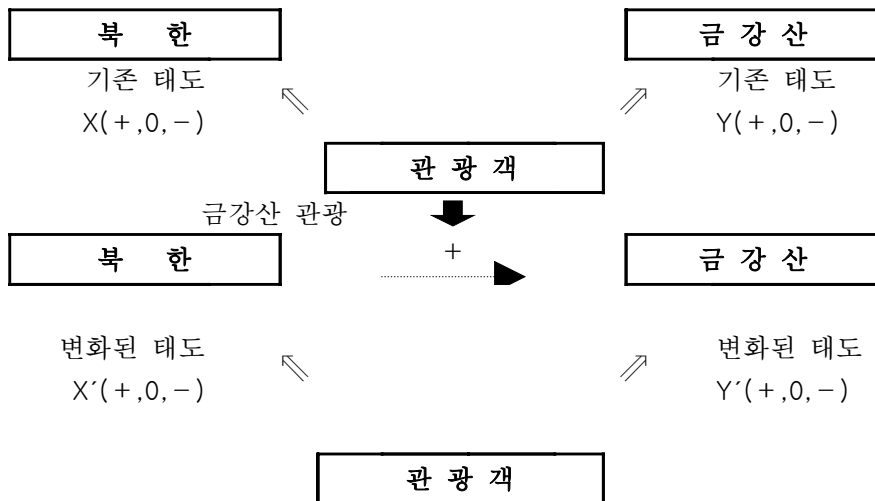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조사의 설계

1. 연구모형 설계

금강산 관광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과 효과연구를 위하여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고자 <그림 Ⅲ-1> 과 같이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균형이론과 금강산 관광의 3자간 구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를 이론검증을 통해 도출하고자 Heider의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며, 기존의 북한과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가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 사전·사후의 태도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림 Ⅲ-2> 와 같다.



통일외식 형성 가능성으로서의 관광객 태도변화 : $P = f(X', Y') - f(X, Y)$

<그림 Ⅲ-1> 연구모형

연구가설 I	금강산 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은 북한 혹은 금강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II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단은 남북통일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할 것이다.

〈그림 III-2〉 연구가설

2. 조사의 설계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금강산관광의 사전·사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사전'과 '사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북한 및 금강산에 대한 태도로서 정(+)과 부(-)의 관계와 잠재적 태도인 '0점'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로 구성하기 위하여 Osgood, Suci 와 Tannenbaum(1975)의 의미분별척도 중 평가적 차원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¹¹⁾ 응답자들의 태도측정에 대한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미가 비슷한 3개의 문항을 연속으로 배치하였다.¹²⁾

또한 통일의식 및 의지 등에 관련된 문항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수록하였다.

11) Osgood, C.E., Suci, G. J.와 Tannenbaum, P. H.(1975)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비판내지 내역적 의미는 대체로 3차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 3개의 차원이란 첫째, 평가적 차원으로 '좋다-나쁘다', '유쾌하다-불쾌하다' 등의 형용사이며 둘째, 역동적 차원으로 '강하다-약하다', '크다-작다' 등의 형용사 셋째, 행동적 차원으로 '능동적-수동적', '빠르다-느리다' 등의 형용사들로 대표될 수 있는 차원을 말한다. Osgood 등은 이를 의미분별척도라 하였다(차배근(1985), 『태도변용이론-설득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론』, 나남. p.124~125

12) 3개의 측정항목은 Holbrook 과 Batra(1987)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내 용	문항	척 도
금강산 관광 전	금강산에 대한 사전 태도 측정	1	·Osgood 등의 7점 의미분별척도 (-3에서 +3까지)
	북한에 대한 사전 태도 측정	2	
금강산 관광 후	금강산에 대한 사후 태도 측정	3	
	북한에 대한 사후 태도 측정	4	
통일의식	통일 염원에 대한 의견 측정	5	·명목척도
	통일 의지에 대한 의견 측정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측정	7-9	·명목척도

2) 표본추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조사를 위하여 최근 금강산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의 진행

본 조사는 금강산관광(해상관광)의 출발지인 속초항에서 실시하였으며, 일반 관광객이 주 대상인 관광상품과 대학생 단체가 주 대상인 관광상품의 일정에 맞추어 총 4번에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 Ⅲ-2〉 설문조사 일정

구분	출발일	도착일	대상
상품 I	2003. 8. 15	2003. 8. 17	일반인
	2003. 8. 16	2003. 8. 18	
상품 II	2003. 8. 18	2003. 8. 21	대학생
	2003. 8. 19	2003. 8. 22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하여 관광가이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사전에 연구내용과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여객선 출발전 관광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금강산관광 사전 태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응답을 하도록 한 후, 각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관광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 사후 태도를 측정하는 부분과 나머지 문항에 응답을 하도록 한 후 각 담당 관광가이드들이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거한 후, 최종 254부의 유효설문지를 확보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조사된 총 254부의 설문지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대응표본 t-test, 교차분석(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 과 같다.

20대와 30대 연령층은 향후 통일 등에 대한 사회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령대로 판단¹³⁾되어 조사실시 단계에서 그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

13) 제일기획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17~39세 젊은이들을 P세대라고 규정했다. P세대란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 속에서 열정(Passion)과 힘(Por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P세대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를 변화

이코자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 집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표 IV-1〉 실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 율(%)
성별	남	146	57.5
	여	108	42.5
	계	254	100.0
연령	10대	26	10.2
	20대	102	40.2
	30대	63	24.8
	40대	32	12.6
	50대 이상	31	12.2
	계	254	100.0
직업	자영업	23	9.1
	사무직	26	10.2
	생산기술직	37	14.6
	판매서비스직	45	17.7
	전문직	12	4.7
	학생	92	36.2
	무직	8	3.1
	기타	11	4.3
	계	254	100.0

시킬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사회 변화의 주역'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연구가설의 검증

1) 연구가설 I의 검증

(1) 사전·사후 태도측정의 평균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7점 의미분별척도의 크론바 알파계수는 모두 높게 나타나 북한 및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 태도변수의 측정항목이 내적 일관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하나의 변수로 보아 이들의 합산값이나 평균값으로 어떠한 분석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관광이라는 실험변수를 기준으로 금강산과 북한에 대한 사전·사후 태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분석결과 북한에 대한 관광객태도의 변화정도는 '금강산관광'이라는 실험변수 이전에 태도 측정치의 평균값이 (-)0.1614이었던 것에 비하여 실험변수 이후에 (+)1.0656의 평균값을 나타냄으로써, (+)1.2270만큼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태도 변화정도는 실험변수 이전에 (+)0.9252의 평균값이 실험 변수 이후에 (+)1.4475의 평균값을 나타냄으로써, (+)0.5223만큼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test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금강산관광'이라는 실험변수를 기점으로 북한 및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광객 태도변화의 차이가 북한에 대해서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1.2270), 이는 '금강산관광'이라는 실험변수를 기준으로 지각의 대상이 되는 관광지(균형이론상의 'O')에 대한 태도변화 보다는 북한(균형이론상의 'X')에 대한 태도변화가 더 쉽게 발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V-2〉 사전·사후 태도측정 대응표본 t-test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북한에 대한 태도측정 사후평균-사전평균	1.2270	1.5664	12.484	.000
금강산에 대한 태도측정 사후평균-사전평균	.5223	1.3034	6.387	.000

(2) 통일의식 형성 가능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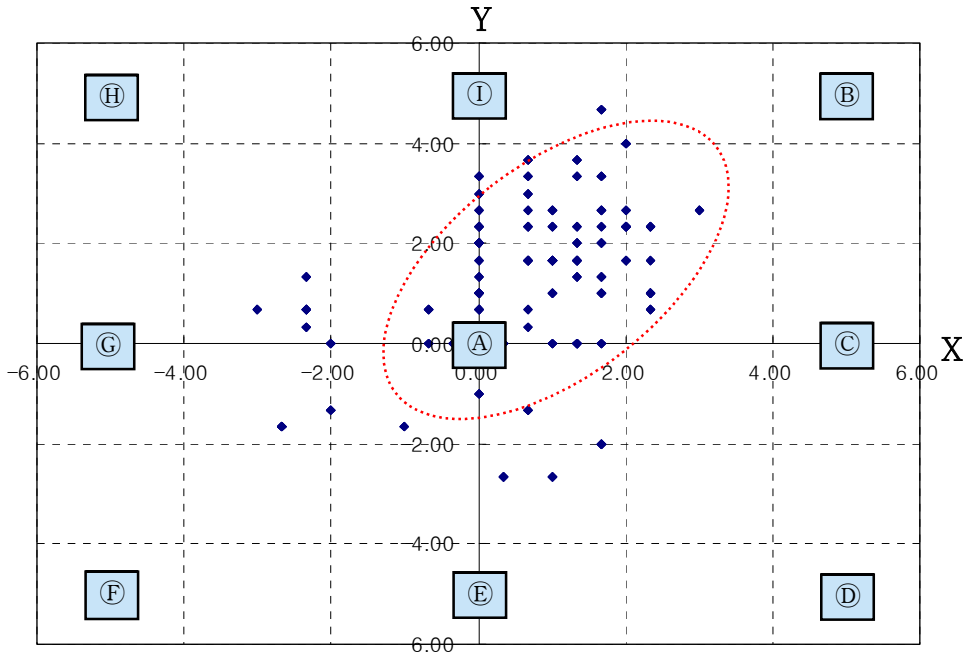
〈그림 IV-1〉은 ‘금강산관광’을 기점으로 북한 및 금강산에 대한 피 실험자 254명의 태도변화 정도를 표시한 산포도이다.

여기서 ㉠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영점을 표시(3.1%)하며, ㉡는 북한 및 금강산에 긍정적 태도변화가 발생하였음(46.9%)을, ㉢는 금강산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20.1%)을, ㉣는 북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금강산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7.1%)을, ㉤는 북한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금강산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3.5%)을, ㉥는 북한과 금강산 모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4.7%)을, ㉦는 금강산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1.6%)을, ㉧는 금강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5.9%)을, ㉨는 북한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금강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7.1%)을 의미한다.

〈표 IV-3〉 태도변화 영역별 구성 현황

구분	태도변화		빈도(명)	구성비(%)
	북한	금강산		
㉠	0	0	8	3.1
㉡	+	+	119	46.9
㉢	+	0	51	20.1
㉣	+	-	18	7.1
㉤	0	-	9	3.5
㉥	-	-	12	4.7
㉦	-	0	4	1.6
㉧	-	+	15	5.9
㉨	0	+	18	7.1
합 계			254	100.0

즉, 전체 응답자의 59.9%가(㉡, ㉧, ㉨의 경우) 금강산에 대하여 금강산관광 이전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74.1%(㉡, ㉢, ㉣의 경우)가 북한에 대하여 금강산관광 이전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P = f(X, Y)$

P : 금강산관광을 기점으로 북한 및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 정도

X : 북한에 대한 사후태도 측정치-사전태도 측정치

Y : 금강산에 대한 사후태도 측정치-사전태도 측정치

<그림 IV-1> 북한 및 금강산의 사전·사후 태도측정 평균차이 산포도

<그림 IV-1> 을 통해 금강산관광 이후 북한과 금강산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가 긴 타원형의 형태로 1사분면의 ②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밝힌바 있는 ‘나쁜 태도(-)’를 형성하고 있던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북한과 금강산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한다’는 균형이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금강산관광 허용이 관광객의 태도변화를 금강산관광 이전에 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의식 형성을 가능케하는 북한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2) 연구가설 II의 검증

(1) 검증의 전제

연구가설 I의 검증을 통하여 금강산관광을 경험한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가설 II를 검증하는 것은 이러한 집단의 통일의식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 ㉡, ㉢ 집단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된 ㉣, ㉤, ㉥ 집단의 성향을 함께 분석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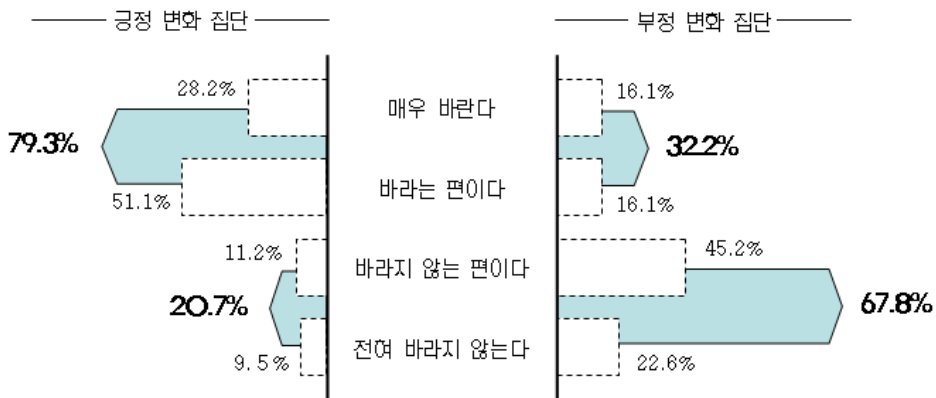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된 집단은 긍정적으로 변화된 집단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므로 각 항목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비율이 아닌, 각 집단 내에서 응답내용의 구성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표 IV-4〉 긍정변화집단 및 부정변화집단 구성 현황

구 분	태도변화 영역	빈도(명)	전체 구성비(%)
긍정변화집단	㉠, ㉡, ㉢	188	74.1%
부정변화집단	㉣, ㉤, ㉥	31	12.2%
계		219	86.3%

(2) 통일에 대한 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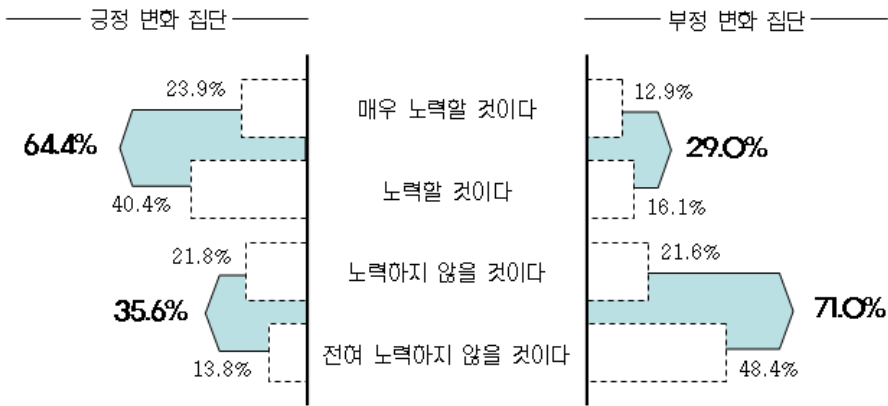
〈그림 IV-2〉와 같이 긍정변화집단은 ‘통일을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서 ‘매우 바란다’, ‘바라는 편이다’로 구성되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나타내는 부분에 79.3%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변화집단이 응답한 32.2%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서 긍정변화집단은 비교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긍정변화집단과 부정변화집단 간 통일염원에 대한 의견

(3) 통일에 대한 의지

‘만일 통일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계신다면 통일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서 긍정변화집단은 ‘매우 노력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로 구성되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부분에 64.4%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변화집단이 응답한 29.0%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서 통일에 대한 염원 부분의 응답내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긍정변화집단은 통일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향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3> 긍정변화집단과 부정변화집단 간 통일의지에 대한 의견

V. 결론 및 제언

얼마 전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대북사업을 총괄해 오던 현대 아산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평가와 함께 매달 수억원 가량의 만성 적자를 내는 수익성이 흐릿한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을 상징적 의미이며 그로 인해서 비롯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교류의 규모와 양의 확대는 언젠가 북한 내부의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룩될 것이라는 희망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그러면 과연 금강산관광이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런 영향이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진행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금강산관광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점진적 통일모형과 Heider(1946)의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금강산관광이라는 실험변수에 의하여 관광객의 태도변화가 금강산(0.5223) 보다는 북한(1.2270)에 대하여 더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금강산관광에 의한 통일의식 형성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각각의 태도변화정도를 산포도로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9%가 금강산에 대하여 금강산관광 이전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74.1%가 북한에 대하여 금강산관광 이전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eider의 균형이론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며, 북한의 금강산관광 허용이 관광객의 태도변화를 금강산관광 이전에 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의식 형성을 가능케 하는 북한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금강산관광 이후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집단은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남북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은 점진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필요한 통일주체의 남북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태도형성 단계에서,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은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이익추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가속화시켜 남북통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인·엄서호(2001), “기업 후원에 의한 국립공원 시설관리 효과의 평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2호 수록.
- 이장춘(1997), 『관광과 통일』, 대왕사.
- 강대인(2000), “관광지 스폰서쉽에 의한 소비자 태도변화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 논문.
- KOTRA(2000),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북한 뉴스레터 2000년 3월호.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편(1997), 『통일·북한 핸드북』
- 통일부(2002),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차배근(1985), 『태도변용이론-설득커뮤니케이션 기본이론』, 나남.
- Heider, F.(1946), "Attitudes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 Robert W. McIntosh·Charles R. Goeldner(1995), 『관광학원론』. [TOURISM] . 신현주외 역, 세종연구원.
- Osgood, C. E., & Tannenbaum, P. H.(1955), "The principle of congruity in the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Review.
- Holbrook, M. B & Batra, R.(1987),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 as Mediator of Consumer Re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4.
-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uniedu.go.kr>)
- 현대아산 홈페이지(<http://www.hyundai-asan.com>)
-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정보 홈페이지(<http://www.travel-northkorea.or.kr>)

【부 록】 - 설문지

금강산관광 및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4학년 학생으로서, '금강산 관광'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순수한 연구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답변 하나하나가 저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8월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 031-249-9515) 최 용 혁

◎ 아래 1번부터 2번까지는 금강산관광 출발 전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금강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아래의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0	1	2	3	
금강산이 싫다								좋다
	()	()	()	()	()	()	()	
금강산에 비호의적이다								호의적이다
	()	()	()	()	()	()	()	
금강산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	()	()	()	()	()	()	

2. 현재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아래의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0 1 2 3 북한이 싫다 ----- 좋다 () () () () () () ()
북한에 비호의적이다 ----- 호의적이다 () () () () () () ()
북한에 부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 () () () () ()

◎ 다음 문항부터는 금강산관광을 마친 후 귀가 전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강산관광 후 금강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아래의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0 1 2 3 금강산이 싫다 ----- 좋다 () () () () () () ()
금강산에 비호의적이다 ----- 호의적이다 () () () () () () ()
금강산에 부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 () () () () ()

4. 금강산관광 후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아래의 ()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0	1	2	3	
북한이 싫다								좋다
	()	()	()	()	()	()	()	
북한에 비호의적이다								호의적이다
	()	()	()	()	()	()	()	
북한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	()	()	()	()	()	()	

5. 통일을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바란다
- ② 바라는 편이다
- ③ 바라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바라지 않는다

6. 만일 통일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계신다면 통일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시겠습니까?

- ① 매우 노력할 것이다
- ② 노력할 것이다
- ③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7.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 ② 여

8.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이상

9.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전문직 ⑥ 학생 ⑦ 무직 ⑧ 기타()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장 려 >

UN체제를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

- 국제기구와 UN사무총장 역할 중심으로 -



선 문 대 학 교

국제유엔학과 4학년 박 지 선

《 목 차 》

【요 약 문】

【본 문】

I. 서 론

II. 한반도와 유엔의 역사적 관계를 통한 남·북한의 對 유엔 외교

III.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경제적 신뢰구축 방안(1)

IV.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을 통한 남·북한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2)

V. 결 론

【참고문헌】

【요 약 문】

UN체제를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

- 국제기구와 UN사무총장 역할 중심으로 -

본 논문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한반도문제의 해결을위해 새 시대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유엔체제를 통한 신뢰구축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엔은 현재 세계 190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범세계적 기구이며, 평화로운 세계 창출을 위한 기능적 조직체로서 콘센서스(Consensus)·배분적·협상기구로서의 기능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유엔은 단순히 한 회원국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남한 정부수립의 정통성 확립의 토대이며 한국전쟁 발발에서 휴전협정체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식량난과 빈곤문제 등의 한반도의 굵직한 사안들 속에서 유엔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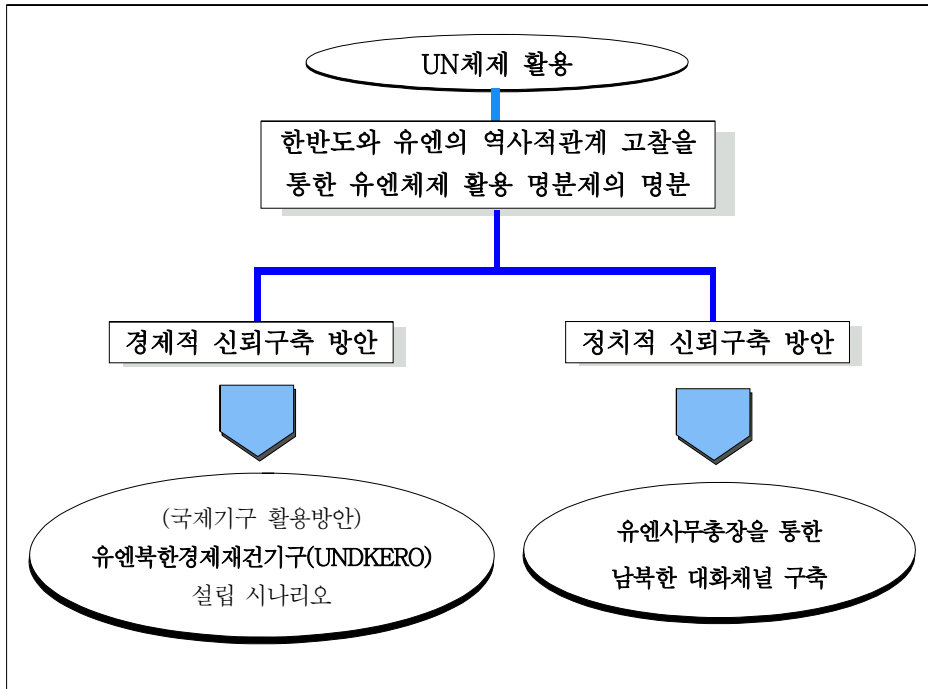
이에 본문Ⅱ에서는 이러한 유엔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통해 유엔체제의 활용의 명분을 찾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이 결정적으로 유엔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한국전쟁과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굵직한 사안들을 통해 남북한의 對유엔외교 정책을 비교해 본다.

본문Ⅲ, Ⅳ에서는 본문Ⅱ를 통한 유엔과의 역사적 관계의 명분을 통해 유엔체제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Ⅲ에서는 경제적인 신뢰구축 방안으로서 과거 한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KURK)를 모델로 한 가상적 유엔기구인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의 설립 시나리오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Ⅳ에서는 정치적인 신뢰구축 방안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임무를 분석하고 한반도 문제 개입 사례와 가능성을 모색하며 유엔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한 대화채널 방안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시대는 변했고, 분명 1950년의 통일외교와 2000년대의 통일외교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새 시대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단기간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지만 장기적이며 견고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국제보장체제, 즉 유엔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남북간의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대과업인 평화적 남북통일과 영구적 평화정착의 목표를 이루기를 바란다.



<논문 요약 그림> 새 시대에 맞는 접근 방법

【본 문】

I. 서론

21세기 한반도가 직면한 최우선의 과제는 한반도의 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새 시대에 맞는 통일방안의 모색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1) 국내적·국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민족의 대과업인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한반도는 냉전체제 속에서 지정학적인 위치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열강들의 패권을 실험하기 위한 국제적 실험대로서의 역할을 했다. 더욱이 국제전의 성격을 지닌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한반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라는 서로간의 국경을 만들어 이질적인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며 현재까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 시대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유엔체제를 통한 통일 외교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2) 유엔은 창립당시 50여 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190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범세계적인 기구이다. 회원국들은 정부를 통해서 활동하므로 유엔은 각 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3) 또한 유엔은 평화로운 세계의 창출을 위한 기능적 조직체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닌 범세계적인 다자간 협의체와도 긴

1) 본 논문은 공식 국가 명칭인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약칭으로 전자는 남한, 후자는 북한이라 칭한다.

2) 본 논문은 UN헌장을 위시한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다자기구로서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역할, 조직, 활동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UN체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3) 유엔헌장 1장 1조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 국제협력의 촉진, 각국 행동의 조화의 4가지 항목을 들어 유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면서 평화창출을 위한 콘센서스(Consensus)·배분적·협상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주력해 왔다.⁴⁾

한반도에 있어서 유엔은 단순히 한 회원국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남한정부 수립의 정통성 확립의 토대이며 한국전쟁 발발에서 휴전협정체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현재까지도 북한의 식량난과 빈곤문제 등의 한반도의 굶직한 사안들 속에서 유엔은 다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가령, 범세계적인 다자기구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발전시켜 북한의 고립적인 국내·외 정책들의 문제를 유엔체제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제 사회로 유도한 후 국제보장체제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엔체제의 가능성들을 토대로 반세기가 넘는 유엔과의 역사적인 관계의 고찰을 통해 유엔체제 활용의 명분을 찾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점진적인 통일외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엔체제 활용이라 함은 유엔의 현장에 입각한 유엔의 역할과 기능, 유엔 산하의 전문적, 비전문적 기구들에서부터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을 말한다.

II. 한반도와 유엔의 역사적 관계를 통한 남북한의 對유엔외교

1.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사적 관계

냉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유엔의 관계는 한 층 높이를 더해가며 견고해지는 하나의 UN탑(塔)과 같다고 할 수 있다. UN탑의 한 층이 다져지기 시작한 때는 미·소 양국이 패권을 다투는 냉전시대였고, 그것은 곧 한반도 분할의 산물로 이어져 1947년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⁵⁾ 남한 정부

4) 박치영, 『유엔정치와 한국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111~118

의 수립 시 유엔의 합법적인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유엔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한반도와 유엔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 등의 조치를 통해서이다.⁶⁾

5) 1947년 9월 17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 워렌 오스틴(Warren F. Austin) 상원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리에게 ‘한국의 독립문제’를 차기 유엔총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 6) UN을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는 ‘주요기관(principal organs)은
1.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총회(General Assembly),
 2.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한된 수의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락통치이사회),
 3. 회원국이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사무국 등 모두 6개이다.

UN헌장 7조 1항.

총회는 헌장의 범위 내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과 임무에 관련한 그 어떤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헌장 제 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문제 또는 사항에 대하여 UN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 모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UN헌장 제 1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23조 1항에 따라 5개의 상임이사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과 10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는 UN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며, 이 책임에 기인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행동한다, UN헌장 제24조 1장.

<표 1> 한국전쟁 관련 유엔조치 현황

안보리 조치		총회 조치	
시기	내용	시기	내용
1950. 6. 25 결의82호 (s-1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무력공격행위 평화 파괴요인으로 간주 ▶ 적대행위 중지와 북한군 38도선 철수 결의 	1950. 7. 27 결의3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정부의 합법정부 승인한 1948. 12. 12유엔총회 선언, 1950. 6. 25 및 6. 27 안보리결의에 의거 ▶ 자주, 민주, 주권국가 수립 달성까지 유엔군 주둔 권고
1950. 6. 27 결의83호 (s-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유엔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토록 결의 	1950. 11. 3 결의377(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가 상임이사국간의 불일치로 국제평화안전 유지라는 1차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총회가 평화 위반 또는 침략 행위시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을 위한 군사력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권고를 회원국에 하기 위해 동 사안을 즉시 심의함을 결의
1950. 7. 7 결의84호 (s-1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회원국에 대한 파병 및 기타 지원을 미국주도 하에 배치 ▶ 북한과의 군사작전시 각 국기의 사용과 더불어 유엔기 사용 ▶ 미국 통합사령군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 안보리에 제출. 	1950. 11. 6 결의498(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의 UN군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와 한국에서의 철수 촉구

안보리 조치		총회 조치	
시기	내용	시기	내용
1951. 1. 31 결의90호	◆ 북한의 남침문제 안보리 계류사안에서 삭제키로 결정	1953. 8. 28 결의711(VII)	◆ 정전협정 승인 ◆ 정전협정 60항(한반도에 서의 외국군 철수 및 한반 도 문제해결을 위한 고위급 정치회의 개최문제) 이행관 련 조치 결의

* 한반도 전쟁관련 결의안 자료 정리,
<http://www.un.org/documents> (검색일: 2003. 2. 3)

한국전쟁이 발생한 직후 유엔안보리는 한국사태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고, <표1>에서와 같이 유엔 안보리와 총회의 결의안들을 통해 한국전쟁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표1>의 유엔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유엔은 당시 50여 개국의 유엔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한국전쟁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 국제 이슈화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국내적인 남북갈등의 차원을 넘어 유엔이라는 범세계적 다자기구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제문제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전쟁에 관한 유엔 논의는 절대적으로 남한에 유리한 궤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엔 내에서의 남북의 우위를 논하기보다는 유엔이 국제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나름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냉전 구도에서 벗어난 현재에 와서 새로운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쳐 볼 수 있게 한다.

2. 남북의 對유엔외교를 통한 유엔과의 역사적 관계 고찰

한국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와 총회의 결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엔은 세계평화라는 유엔헌장의 목적을 지향한 모델로서 한반도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현안들은 더 이상 지엽적인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에 남과 북은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엔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의 對유엔 정책에 대한 접근은 그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엔으로의 한반도 문제 이관, 남한정부 수립, 한반도 문제 개입 등의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되는 1950년대 초반에 남북한의 對유엔외교는 유엔의 힘에 대한 의존적인 성향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초반기 對유엔외교의 목적은 유엔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비회원국으로부터의 탈피였다.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유일합법정부론을 주장하며 4차례의 걸쳐 정식으로 유엔가입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치적인 상황과 소련의 거부권으로 인해 유엔 단독 가입은 매번 좌절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우방국들에 의한 유엔가입 신청이 계속해서 제출되기도 하였다.⁷⁾ 반면 북한의 경우 유엔관계의 시발은 미국이 한반도의 국가건설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면서부터 부정적인 관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對유엔정책에 있어 북한은 단순히 유엔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유엔을 통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였다. 특히 1949년 2월 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전문을 통해 유엔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면서, 남한이 아닌 북한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국면에서 유엔과의 관계를 시작하였지만 유엔을 통해 서로의 정통성을 얻기 위한 각축을 벌였다.

1960년대는 남한의 경우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제3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국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아 對유엔 외교정책에 소홀해졌고, 북한 역시 1950년대의 외교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자주’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7) 남한의 對유엔 정책의 기조는 1955년 대한민국 국회가 미·영·프 3국과 유엔에 보낸 결의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 요지는 한반도 통일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북한이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미·영·프와 유엔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노중선, 『민족과 통일 1-자료편-』, 서울: 사계절, 1985, p336.

옮겨가면서 유엔에 대한 태도는 더욱 경색되어 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남과 북은 보다 적극적인 對유엔외교를 지향하고자 했다.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진영의 화해무드(데탕트)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의 6. 23 연설을 통해서 유엔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즉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남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기존의 방어적 차원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유엔외교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 가입을 통한 적극적이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비동맹 외교의 강화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제3세계 국가들이 유엔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1975년 제30차 총회에서는 북한을 대변하는 안건이 유엔사상 처음으로 통과되어 북한은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유엔을 활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남과 북의 대유엔 외교는 쇠퇴기를 맞이하며, 국내적인 문제에 더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1980년대 후반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북방외교를 활발히 추진한 결과 주변정세가 유엔 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⁹⁾

1990년 남북한의 대유엔 외교의 꽃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이다.¹⁰⁾ 남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국

8)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도 6. 23선을 통해 “유엔의 다수회원국들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언급함,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서울: 외무부, 1990, p.416

9)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발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원활히 하게 되었다.

10) 남한과 북한의 UN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인 1991년 8월 6일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회원국 가입조사위원회에서 5분 만에, 그리고 안보리에서는 불과 9만에 투표절차가 생략된 채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1년 9월 17일에 개막되는 총회에 회부되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남북한 동시가입이 확정되었다.

가들과의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통해 유엔 가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유엔가입을 위한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더불어 기존의 북한의 우방국들이 남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선통일 후가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뒤로하고 시대적 흐름에 수긍하는 對유엔외교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남과 북의 對유엔외교의 양상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의 선출과 더불어 냉전종식 이후 유엔에서의 남한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어 총회의장의 역할도 제고됨에 따라 유엔가입 10년 만에 유엔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 의장직을 수입했다. 또한 남한은 적극적인 중진국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유엔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과거 유엔의 수혜국으로서의 지위를 탈피하고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유엔의 활용보다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국제기구의 인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유지와 북핵문제, 인권 문제들이 국제사회에 거론되면서 유엔을 통한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표 2〉 남북한의 對유엔외교의 시대적 분석

시기	남한	북한
초반기	정부수립 정통성 확보를 위한 대결적 유엔외교	
1960년대	정치적 유엔외교의 정체기	
	제3공화국 국내 경제재건 치중	외교에서의 '자주' 노선 표방
1970년대	1973년 6. 23 선언을 통한 유엔동시가입 제의	적극적인 비동맹+유엔외교 (30차 총회 북한측 결의안 통과)
1980년대	제6공화국 북방외교를 통한 유엔가입 유리한 고지 마련	유엔외교 정체기
1990년대	1991. 9. 17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적극적 북방외교+유엔외교의 성과	시대적 흐름의 수궁
2000년대	유엔 내 한국역량 강화 적극적 중진국 외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활용

남과 북의 對유엔 외교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밀고 당기기의 대결적 구도를 보이면서 발전되어 특히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계기로 국제무대를 통한 점진적인 협력이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엔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엔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고, 앞에 언급되어진 한반도와 유엔의 역사적인 관계 고찰을 통해 유엔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유엔과 만들어 나갈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는 때로는 갈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국제적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유엔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은 지금부터 유엔이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엔체제 활용의 가능성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Ⅲ.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경제적 신뢰구축 방안 (1)

；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의 설립 시나리오

1.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 설립 배경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유엔체제 활용에는 여러 가지 관료가 제공될 수 있지만 특히 유엔체제하의 가장 실질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활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유엔은 국가를 초월하고 그 권한을 통제하는 초국가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세계정부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엔은 유엔 산하기구와 전문적·독립적·정부간 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을 만들어 국제활동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는 유엔체제하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단순히 회원국들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엔회원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각 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적극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과거 남북한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기술협력외교가 거둔 성과는 상당하다. 1954년 한국경제원조계획에 따라 한국정부와 유엔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Agency: UNKRA)간의 협정이 이루어져 약 5억 8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가입하여 국내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해 이들 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차관, 상업차관 및 민간 투자유치와 기술훈련생의 해외파견을 포함한 기술도입에 도움을 받았다. 1959년에서 1991년까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외자도입 총액은 약 69억2천3백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남한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두었고 수혜국 대우에서 벗

11) 국제기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수단, 포럼 등의 국제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에 대한 토론, 논의, 협상으로 안보리와 총회와의 정보제공 및 회의의 장 제공, 국제 사회의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홍순(편), 『국제기구론; 이론과 실제』, 서울: 동림사, pp7~9

어나 지금은 자금 공여국 및 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¹²⁾

북한의 국제기구 활동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 들어와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유엔에 대거 가입함으로써 말미암아 북한은 이 시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표 3> 남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대비표

구분	유엔산하 전문기구	유엔전문 기구	유엔독립 기구	정부간 기구	합계
한국	5	16	3	71	95
북한	4	11	0	15	30

* 자료: 외교통상부 (2000. 12. 30)

하지만 <표3>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남한에 비해 북한의 국제기구의 활동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북한의 국제기구 활동의 주 목적은 범세계적인 국제 활동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과거 남한이 그러했듯이 수혜국으로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남과 북의 對유엔 외교정책의 일환인 국제기구의 활용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남한과 북한은 국제기구 활동 속에서 공식, 비공식의 채널로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남북의 접촉을

12) 현재 남한의 국제기구에서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사국 및 위원국 진출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첨부1) 남한 국제기구 이사국 및 위원국 진출현황의 자료를 첨부함.

13) 북한은 유엔가입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면서 유엔식량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등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지원금을 받아 식량 및 아동과 관련한 건강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백영옥,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협력 방안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1), pp221~223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의 설립의 구체적 방안

남북한의 신뢰구축에 국제기구를 활용한다는 방안은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아이러니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적이다함은 유엔이라는 조직의 보편성과 임무의 광범위한 성격으로 인해 세부적인 한 국가의 문제를 주도로 해결할 만큼 유엔이 절대전능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과거 한반도와 유엔의 역사적 관계에서 살펴 보더라도 반세기가 넘도록 유엔과 한반도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유엔의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임무의 수행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만큼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¹⁴⁾

본 논문은 이러한 유엔과의 역사적인 관계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활용인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의 설립추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tied Nations DPRK's Economy Reconstruction Organization)의 설립 방안이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 운드케로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의 재건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문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국제보장체제 확립,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통일비용의 절감 등의 문제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간 국제기구이다.¹⁵⁾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는 1950년 12월 5차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한국의 부흥과 재건을 돕기 위해 설립했던

14) 유엔 창립 이래로 역사적인 관계를 같이하면서 남한의 정부수립, 한국전쟁,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북핵문제의 안보리 논의 등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15)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유엔한국통일부흥 위원회를 모델로 한 가상적인 유엔정부간기구이다.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s of Korea)를 모델로 구상한 시나리오이다.

앞에서 남한의 국제기구 활동에서 강조하였듯이 남한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한국정부간의 협정이 이루어진 이래로 상당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모두 무상원조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파급효과는 전후 복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경제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 이후 대부분의 생산 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국민 총생산을 초과하는 소비를 가능케함으로써 빈곤과 기아 해소에 기여를 하였고, 또한 자본 축적을 위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남한 공업화의 토대를 제공했다.¹⁶⁾

또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는 195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 경제재건과 평화회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유엔한국통일부흥회의의 경우 1968년까지 유엔총회에 한국의 정치·경제·군사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남북한 문제를 자동적으로 차기 총회의 의제에 포함시켜 매년 토의하게 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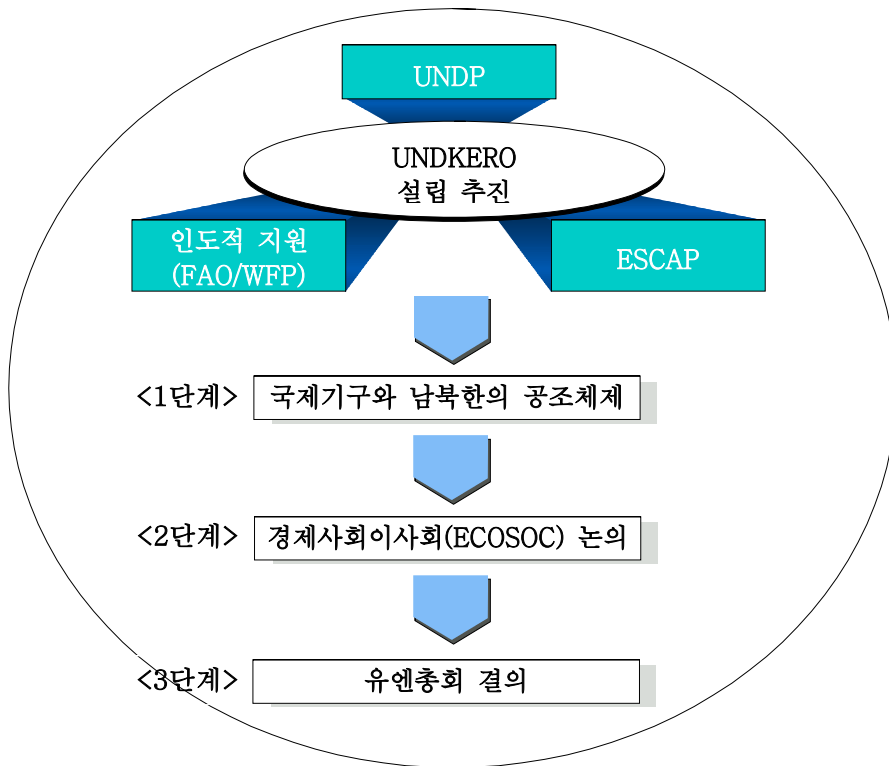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의 경우 한반도의 평화유지의 목적으로 유엔총회 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여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유엔한국재건단의 경우는 전후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기구로서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 그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16) 백영옥,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협력 방안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 2001, pp221~223

17) http://www.un.or.kr/un/html/un_about_rok.html(검색일:2003.5.1)

새롭게 제시하게 될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는 앞의 두 기구의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국제보장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한 신뢰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조직이다.

<그림 1>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설립 시나리오



(1) 1단계 : 국제기구와 남북한의 공조체제

남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조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는 단연코 경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적인 문제의 경우 국내적인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인권문제 역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이 지속가능한 환경과 같은 고차원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북한의 사정이 너무 빈곤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고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용은 경제적인 접근이 유용하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RO)를 설립하게 되면 낙후된 경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아와 빈곤으로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면서, 더 나아가 차후의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통일비용을 감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RO)를 설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견고한 국제 공조체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공조체제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개발계획(UNDP)¹⁸⁾, 경제사회이사회 지역 위원회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¹⁹⁾, WFP/FAO등이다.

UNDP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경우 1963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으로부터 약 7,845만불의 원조를 받아 지금까지 5차례의 국가사업(1972년-1996년) 및 1차례의 후속국가 사업(1997년-2000년)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차 후속국가 사업(2001년-2003년)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현

18) 유엔개발계획(UNDP)은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 통일하는 기구이다. 유엔헌장 정신에 입각한 개도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과 경제, 사회 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원조 공여 계획으로서 유엔의 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중앙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19)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산하 기구인 지역경제사회위원회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지향, 회원국 및 타지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통계 정보의 수집, 조사, 연구, 경제사회이사회와 관계 당국에 대한 권고 등을 주로 논의한다. 2000년 기준으로 정회원국 51개국, 준회원국 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재 한국은 1991년부터 UNDP 순공여국이 되었고, 2000년부터는 UNDP의 사업비의 지원이 중단되었다.²⁰⁾ 북한의 경우 1979년 11월 UNDP와 협정을 체결하고 1980년 12월 UNDP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UNDP는 1997년에서 1999년까지 對북한 국가협력사업으로 나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이모작농경지원사업, 환경오염방지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총사업규모는 약 1,127만불에 달한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UNDP와 남북의 공조체제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그 중에서 특히 남한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중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남한의 UNDP지원은 2000년을 기점으로 순수공여국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관한 남한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더욱이 현재 남한은 UNDP 예산의 책정 및 승인을 결정하는 집행이사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해 남한은 UNDP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SCAP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는 다섯 개의 지역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로 1947년 설립된 이래로 전 세계 인구의 60%가 포함되어 있는 거대 조직이다. 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임무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역내 무역 산업기술 협력, 환경 자원개발협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인프라 개발협력, 농촌 및 도시의 개발, 인구 여성 인력개발 등 사회개발문제 협력 등에 관한 상당한 활동 범위를 갖고 있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ESCAP의 활용이 용이한 이유는 ESCAP내에서의 남한의 역량이 타 국제기구들에 비해 강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내 서열 5위의 직책인 유엔 사무차장겸 ESCAP의 최고의 직위인 사무총장에 남한의 김학수

20) <http://riam.snu.ac.kr/notice/UNDP> (검색일: 2003. 4. 24)

사무총장이 역임하고 있다.²¹⁾ 김학수 사무총장은 빈곤퇴치, 세계화 과정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 새로운 사회문제 대처라는 3가지 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1987년부터 남한 정부는 ESCAP협력기금(KECF)을 설치하여 ESCAP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현금 지원만 총 656만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제3위의 공여국이다. 이러한 ESCAP내에 남한의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이 1992년 ESCAP에 가입하자 남한은 1992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 회의에서 아시아 횡단열차를 포함한 ALTID(Asia Transport Development)사업을 제의하면서 유럽철도망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북부노선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는 애초에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남부 노선만을 포함했지만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북부지역의 긴장완화와 중국, 북한 등의 북부지역의 경제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게 되었다.²²⁾

앞의 UNDP와 ESCAP에서는 남한의 역량을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외교적인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경우 현재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의 역량보다는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북한과 신뢰구축을 할 수 있다.

2002년도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계획²³⁾을 살펴보면 국제기구들은 2002년도 북한의 위기 상황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5,814만 달러

21) 김학수 유엔사무차관 겸 ESCAP사무총장은 600명의 각국 브레인을 거느리며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수 사무총장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05년 6월까지 임기가 연장 되었다.

<http://weekly.chosun.com/news/html/200203/200203120024.html>

(검색일: 2003. 4. 20)

22) 백영옥, 위의 논문, pp224~229

23) 유엔인도지원조정사무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는 2002년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 11월 26일자로 발표한 보고서이다, <http://www.reliefweb.int> (검색일: 2003. 4. 26)

규모의 모금액을 요청했다. 이 금액은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적 지원계획(Consolidated Humanitarian Action Plan: CHAP)에 따르면, 국제기구들은 단기적인 지원은 물론 식량, 보건, 식수, 위생, 교육 서비스 지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장기적인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계획 하에 국제기구들은 북한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립을 위한 재건 개발과정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⁴⁾

<표 3> 국제기구의 2002년 분야별 대북지원 요청액

요청분야 / 국제기구	요청금액(US\$)
식량지원	232,7171,047
인도지원 관련 행정업무	962,064
교육	530,250
보건	19,156,750
식수 및 위생	4,770,000
* 국제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UN Development Programme,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World Food Programme, World Health Programme, Children's Aid Direct, Cooperazione Foodgrains Bank, Concern Worldwide, Deutsche Welthungerhilfe/Cerman Agro Action, Handicap International Belgium,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합 계: 258,136,111\$	

* 자료: <http://www.reliefweb.int>

24) 이러한 지원 방향은 유엔기구, 인도적 지원 기부자, 비정부 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계획을 감독하는 인도적개발작업그룹(Humanitarian Development Working Group: HDWG)의 2001년도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소개된 국제기구들의 인도적인 대북지원 요청액과 북한 재건에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단순히 북한의 빈곤 탈출이라는 1차적인 목표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인도적 지원계획(CHAP)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사회에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엔북한경제재건단(UNDKERO)이 설립될 경우 기존의 인도적인 지원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되고 조직화되어 국제기구들의 지원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구체화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루트(UNDP, ESCAP, 인도적 지원)를 종합해 볼 때, UNDP와 ESCAP의 경우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유엔북한경제재건단(UNDKERO)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국제사회에 그 타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남한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에 그 활동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현재 유엔 산하의 북한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 계획이 실행되고 상당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줄로써 유엔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UNDP, ESCAP, 인도적 지원 등의 국제기구들과 국제 공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2단계: 경제사회이사회 논의(ECOSOC)

사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는 그 설립에 있어 거창하거나 복잡한 조직이 아니다. 유엔 체제하에서 결의를 통해 기구를 창설하여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구를 설립하게 될 경우 크게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의 재건, 극심한 식량난 문제로 인한 기아문제, 남북한 경제협력의 국제보장체제 확립,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통일비용의 절감 등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는 북한에게 다량의 고기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장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유엔 산하에 소규모로 만들어 질 때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은 남한을 신뢰하고 남한은 북한을 신뢰하는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들의 활동을 지휘, 조정하며 경제·사회·문화·교육·위생적 상황에 관한 연구보고, 발의 및 권고를 하고 있는 유엔의 대표적인 전문기구이다.²⁵⁾ 1단계에서 언급한 국제 공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루트인 UNDP, ESCAP,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WFP 등의 국제기구는 모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들이며 정기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UNDP, ESCAP, WFP 등의 국제기구들이 정기 보고서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의 설립 추진에 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된다면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헌장에 따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정보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제기구들의 공조체제 속에서 경제사회이사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3) 3단계: 경제사회이사회의 총회 승인

경제사회이사회 통해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초안을 마련하게 되고, 그 사항에 관해 유엔이 제정된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유엔은 유엔헌장 제55조²⁶⁾에 규정된

25) 유엔헌장 9장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의 목적, 구성 권한과 임무 등이 소개되어 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관계 국가들간의 교섭을 발의하게 되고,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가 설립하게 되면 유엔체제하에서 보장을 받으며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된다.

위의 시나리오에 의해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가 설립된다면 북한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북한의 경제난과 재건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기구의 장점은 바로 체제 불안정이나 공식적 지원 루트를 찾지 못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꺼리는 국제기구나 NGO, 민간단체들로부터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반도에서 활용되어진 유엔한국재건기구에서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볼 때, 일시적인 재건을 위한 임시 기구가 되더라도 북한 사회의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재건에 있어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구 설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남북한의 신뢰는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적인 분야에서만큼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는 남북경협의 국내적인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외부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루트를 통한 신뢰구축은 차후 한반도 통일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가 설립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북한은 최빈국(A그룹)에서 벗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IBRD)과 같은 경제기구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재원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의 설립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접근을 통한 남북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자 한다.

26) 유엔헌장 9장 55조에서는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보건 및 국제문제의 해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IV.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을 통한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방안 (2)

다음으로는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의 정치적인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을 인격적으로 대표하며 유엔의 심장인 사무국과 그 산하기구의 인사·예산·정책 결정권을 한 손에 쥔 유엔 최고의 행정 정책 책임자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평화의 중재자이며, 세계의 신망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직위가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하겠다.²⁷⁾ 유엔헌장 제99조²⁸⁾는 유엔사무총장의 지위와 권한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고 있다. 유엔이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총 7명의 유엔사무총장이 임명되었는데²⁹⁾ 이들은 재임 중 국제사회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단순히 명망있는 개인 인사가 아닌 유엔체제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을 설정해 두고 다양한 외교적인 역할과 방법으로 국제 분쟁이나 세계 각국이 당면한 복잡한 현안들에 있어 협상과 중재를 통해 그 해결을 융통성 있게 해주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은 그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협상과 중재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고³⁰⁾, 그 지위는 더욱 확고해져 회원국들에게 많은 신임

27) 조덕호, “탈냉전시대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126

28) 유엔헌장 제15장 제9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9) 유엔사무총장은 1대 노르웨이 외무장관 출신의 Trygve Lie(1946~1953), 2대 스웨덴 외무 장관 출신의 Dag Hammarskjold(1953~1961), 3대 버어마 외교관 출신의 U Thant(1961~1971), 4대 오스트리아 유엔 상주 대표인 Kurt Waldheim(1972~1981), 5대 페루 외교관 출신인 Javier Perez de Cuellar(1982~1991), 6대 이집트 외교장관 출신인 Boutros Boutros-Ghali (1992~1996) 마지막으로 현재 가나출신의 Kofi Annan(1993~현재) 사무총장이 있다.

30) 유엔사무총장의 기능이 확장되는 이유로는 ①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리더십, ② 유엔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3세계가 등장하면서 지지기반 확보, ③ 유엔정치는

을 받고 있다.

1. 유엔사무총장의 한반도 중재 가능성 모색

바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엔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미한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유엔사무총장을 활용한다면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남북한 신뢰구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권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유엔 헌장 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성을 토대로 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을 대표한 최고의 직책으로서 한 개인이기 때문에 쉽게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 유엔사무총장은 세계 유일의 보편적 다자기구의 장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모든 행정업무·예산 편성·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헌장 99조의 정치적 활동 근거를 토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역할 속에서 유엔사무총장은 임기 동안에 유엔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정책변동이 잦은 한 국가의 정책 수반과는 달리 나름의 독자적인 외교를 펴 나감으로써 목적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 때문에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국내 정세와 주변국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한반도 문제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유엔과 유엔사무총장의 신임도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사무총장을 활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 주요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의제를 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접촉, 협의하거나 관심을 축

대결정치보다 합의와 화합정치에 역점, ④ 총회의 기능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박치영, 위의 책, pp.94~96

구하면서 그 속에서 유엔사무총장의 국제적인 신뢰도는 축적 되어간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한 국가이익이 아니라 세계의 이익을 도모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세계 외교관의 위치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4강에 좌지우지되었던 한반도 문제에 자주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 제6대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시사한 바 있다.³¹⁾ 이런 사무총장의 활동을 토대로 유엔과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그 속에서 자주적인 통일 외교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2. 역대 유엔사무총장들의 한반도문제 논의 사례

보다 구체적으로 역대 유엔사무총장들의 한반도와 관련한 업적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위한 한반도 중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쟁 당시 제1대 유엔사무총장이었던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한국전쟁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헌장 제99조를 원용하여 그 권한을 바탕으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침략행위는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의 파괴'로 밝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관한 확실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개입의 의사를 어필하기도 했다. 또한 트리그브 리 사무총장은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향하기도 했다.³²⁾

31) 제6대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메시지 전달은 물론 정상 회담도 주선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 남북한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식요청이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갈리 유엔사무총장 인터뷰’, 조선일보 1995. 9. 1

32) 1951년 6월 16일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전의 휴전을 보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6월 24일에는 유엔 소련대사인 ‘말리크’가 휴전을 정식 제의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그로미코’ 소련 부 외상이 휴전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3대 유엔사무총장이었던 우탄드는 분단국의 유엔 가입과 관련하여 분단국의 유엔가입을 분단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연관지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에 서서 지지하였다.³³⁾

제4대 유엔사무총장인 쿠르트 발트하임은 1979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요청하고 또 그렇게 협의한다면 자신이 직접 남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즉 유엔사무총장이 지니는 협상 및 중재를 스스로 떠맡고 나섬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유엔의 테두리로 끌어 들였고 남북한 각각의 초청에 의해서 1979년 4월 말과 5월 초에 북한과 남한을 각각 방문하였다.³⁴⁾

제6대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남북한의 교류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반도 중재자의 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남북한의 메시지 전달은 물론 정상회담도 주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유엔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그는 '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간 지속적인 대화 및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한간 신뢰구축 과정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역대 사무총장들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관심과 그들의 의사 개입 혹은 중재 노력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것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해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http://www.mnd.go.kr/mnd/sub_home/html(검색일:2002.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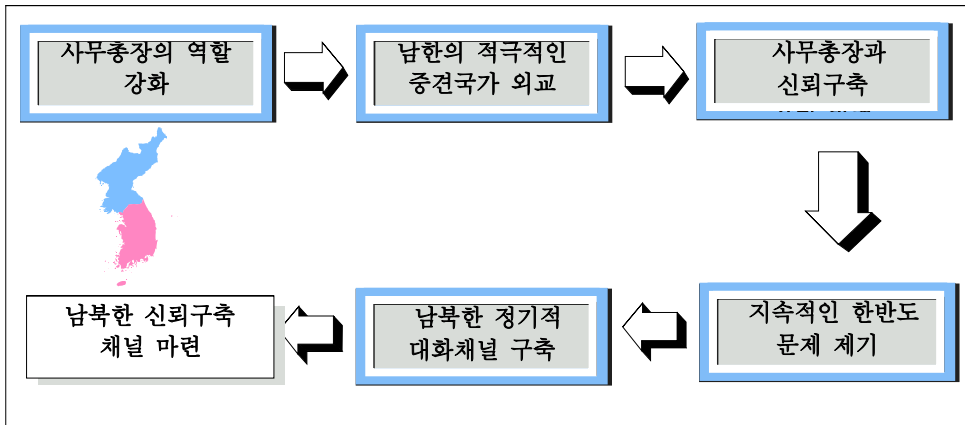
33) 우탄드 사무총장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1971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그의 연례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덕호, 위의 논문, p36

34) 조덕호, 위의 논문, p38

3. 남북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유엔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 방안

유엔사무총장의 한반도 중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 주체인 당사자들과 중재자인 사무총장간의 두터운 신뢰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에서 분쟁해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다.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중재 방안으로 남북한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 마련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림3>을 통해 유엔사무총장의 한반도 중재 역할을 위한 신뢰구축 활용방안을 살펴보자.

<그림 3> 유엔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 방안



위의 <그림3>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성격이 아닌 유엔을 통한 남북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엔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그 활용 방안에 있어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적인 방안이다.

(1) 1단계: 사무총장의 역할강화

유엔사무총장과 남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무총장의 유엔개혁을 통한 그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

적인 중재를 주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하며, 사무총장의 역할이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유엔개혁에 대한 논의는 탈냉전시대의 유엔 활동에 있어서의 수요와 그에 대한 임무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제연합의 성격을 만들기 위한 회원국들의 바람과 유엔사무총장에 노력에 기인하여 계속해서 언급되었다. 유엔개혁에 있어 특히 중재와 관련하여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의 유엔개혁방안³⁵⁾ 국제분쟁의 있어서 그 범주와 차원의 있어서 사무총장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하였다. 그 스스로 각종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다양한 자질을 가진 '대표'들을 임명하여 사무총장의 특별한 권한을 관례화시키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강대국들 사이의 공조가 증가하고 이로 말미암아 안보리가 활성화되어 그들이 직접 분쟁에 관여하여 사무총장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1997년 3월 포괄적인 UN개혁 프로그램(이중경로 Two-Track)³⁶⁾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52차 총회결의문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갈리 사무총장에 비해 중재에 관해 덜 적극적이고 유엔활성화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다.

1단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유엔의 개혁을 통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강화라는 점과 1단계는 유엔사무총장과 남한의 신뢰구축의 기초단계로서 사무총장의 유엔의 개혁 노력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외교가 필요하며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중재 역할 강화와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5) 1992년 취임한 갈리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 하에서 평화유지활동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사무총장의 정치적 기능이 증가한 데 기하여 1992년 6월 『평화를 위한 의제 Agenda for peace』라고 명명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개혁 의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졌다.

36) 1997년 3월에 발표된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개혁 방안으로 제1경로는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의 독자적 권한 내에서 행해지는 UN 사무국의 구조와 기능의 개편과 재배치 및 예산이고, 제2경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회원 국가들의 협의나 주도에 의한 개혁을 말한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 개혁안에서 크고 작은 약 70가지의 개혁 대상 목록을 제시하였다.

(2) 2단계: 남한의 적극적인 중견국가 외교

두번째 단계에서 남한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개혁으로 중견국가가 가진 최고의 이점들을 살려 특히 유엔사무총장의 유엔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서서히 유엔사무총장과 남한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남한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군축·환경·인권·마약 등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다자적 접근노력이 더욱 긴요해지면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목표 하에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더욱이 유엔개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16개 중견국가 그룹이 모여 1995년 결성한 '유엔 강화 16개국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의 개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사무총장 및 총회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유엔 개혁에 일조하고 있고³⁷⁾, 또한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진출 및 2001년~2003년 임기의 ECOSOC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한편 주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유엔 활동 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 그룹(JUSCANZ)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 노력을 강화하였다.

(3) 3단계: 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 장치 마련

1단계와 2단계의 신뢰구축 방안이 이론적이었다면 3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신뢰구축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유엔사무총장과의 실질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한 정부 내 외교통상부에 유엔사무총장과 남북한의 신뢰구축 채널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정책기구를 만들어 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별정책기구가 국제연합을 하나의 포괄적인 세계정부로 인식하고 특히 유엔사무총장을 위시한 특사를 파견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어들이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그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이나 전문

37) 외교통상부, 『1998년도 외교백서』, 대한민국의외교통상부 1999, p330

가를 특사로 파견하여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유도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국제 사회에 부각시키고 남북한 신뢰구축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로 이러한 신뢰구축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연구와 실질적인 활동의 성과를 통해서 세부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4) 4단계: 지속적인 한반도 문제 제기

4단계에서는 1-2-3단계에서 다져진 남한 외교의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사무총장과의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채널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에는 유엔에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한 평화유지와 통일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문제 보고서’(Korean Peninsula Problem National Report)를 남한과 북한이 정기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이다.³⁸⁾ ‘한반도 문제 보고서’(Korean Peninsula problem National Report)에는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 여부를 기록한다. 특히 이 보고서 관련 사항은 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유엔사무총장이 총회에 직접 제출하며 유엔 총회의 공식적인 결의안을 통해서 상정되어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화시켜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4단계에서는 특히 사무총장의 중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통일외교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남한의 대 유엔외교 입지가 돈독해 질 것이며, 사무총장 역시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로 인하여 개인의 입지가 향상되고, 명목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추구하는 UN헌장의 이념에 부합하게 되며 더 나아가 타 분쟁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38) 유엔에 제출하는 National Report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 그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실천을 결의안에서 정한 기일 내에 유엔에 제출하는 회원국들의 보고서이다.

(5) 5단계: 남북한의 정기적인 대화채널 마련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제출되어지는 한반도 문제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사무총장의 주선으로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현안에는 “쉬운 이슈”와 “어려운 이슈”로 나뉜다. 쉬운 이슈는 경제교류와 같이 호혜성을 가지는 분야로 쌍방의 필요로 인해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만 정치적 신뢰구축과 같은 어려운 이슈는 양측의 체제 및 정권 그리고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형태인 통일과 평화협정 같은 경우 실제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남북한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하게 될 경우 이 방안은 어려운 이슈가 되어 많은 노력과 테크닉이 필요하게 된다. 사실상 쉬운 이슈라고 명명하는 경제적인 협력은 국가의 형태가 아닌 민간 차원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와 같은 어려운 이슈들은 많은 이해관계로 인하여 당사자들인 남한과 북한의 독립적인 해결이 어렵고 제3의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유엔사무총장은 4단계에서 제출되어지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협의를 통하여 중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6) 6단계: 남북한 신뢰구축 채널 마련

1단계를 출발해서 6단계로 진행되는 위의 시나리오는 유엔사무총장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안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평화협정이나 전쟁의 종결에는 못 미치지만 평화라는 것이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부작용이 없듯이 위의 단계들을 성실히 이해하고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 방안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사무총장과의 두터운 신뢰가 필요하다. 더불어 서로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과 남한 정부의 적극

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 결론 ;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對유엔 외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시대는 변했다. 분명 1950년대의 통일외교와 2000년대의 통일외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국이 되어버린 한반도의 허리 통증이 고질적인 질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적인 시도가 분명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새 시대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단기간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장기적이며 견고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국제보장체제 즉 유엔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유엔과 한반도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같이 하면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때로는 남북의 적대적 갈등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화와 협력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제 남·북한과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게 그 도약의 목표가 세계평화라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목표는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평화 속에 중추가 되는 한반도 평화정착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커다란 버팀목인 유엔을 활용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안에는 본문에서 제시한 유엔북한경제재건기구(UNDKERO)와 같은 국제기구의 경제적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을 활용한 정치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이론적인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신뢰구축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해결에 있어 국내적인 차원이든 국제적인 차원이든 간에 그

해결 방안들의 선상에는 서로간의 신뢰가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구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유엔, 국제기구와 한반도, 유엔사무총장과 한반도, 그리고 남한과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의 신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작되는 한반도와 유엔의 관계는 수동적이 아닌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상호 행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반자적인 관계의 시발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신뢰구축에 있어 국내적인 문제에서부터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엔체제를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은 중·장기적인 목표와 방안 그리고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가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과 영구적 평화정착의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 벼랑에선 외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 백산서당, 2002.
- 김대순, 『국제법전』, 서울 : 삼영사, 2002
- 노중선, 『민족과 통일 1-자료편-』, 서울 : 사계절, 1985
- 박홍순 편저, 『국제기구학: 이론과 실제』, 서울 : 동립사, 2000
- 박치영, 『유엔정치론 제2판』, 서울 : 법문사, 1998
『유엔 정치와 한국문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유엔한국협회, 『유엔이란 무엇인가』, 서울: 유엔한국협회, 1995
- 오기평, 『현대 국제기구 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94
- 외교통상부, 『1998년도 외교백서』, 대한민국외교통상부 1999
-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서울 : 외무부, 1990

▣ 논문

- 방귀철, “남북한 유엔가입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3
- 백영옥,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협력 방안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 2001
- 서종환, “남북한의 對유엔정책과 남북한 관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논문, 1997
- 조덕호, “탈냉전시대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기타자료

국제연합 현장
조선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주간조선
한국경제
한겨레신문

■ 검색사이트

<http://www.un.org/documents> / (검색일 : 2003. 2. 3)
<http://www.reliefweb.int/w/rwb.nsf> / (검색일 : 2003. 4. 26)
<http://weekly.chosun.com/news/html/200203/200203120024.html>
/ (검색일 : 2003. 4. 20)
<http://riam.snu.ac.kr/notice/UNDP> / (검색일: 2003. 4. 24)
http://www.un.or.kr/un/html/un_about_rok.html / (검색일 : 2003. 5. 1)
<http://unescap.org/search/query.idq> / (검색일 : 2003. 5. 30)

* 첨부 <1> 남한의 국제기구 이사국 및 위원회 진출 현황

대학생통일논문집 <비매품>

2003년 12월 10일 인쇄

2003년 12월 17일 발행

발행처 :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901-7021

인쇄처 : 삼일문화정보(주)

TEL : (02)2277-7122

- ♣ 이 책자는 통일부(www.unikorea.go.kr) 또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이 책자내용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